

정책자료 2019-05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김은정

강은나 · 변수정 · 이상정 · 임정미 · 장인수 · 이주연

**【책임연구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영유아 돌봄서비스 공급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2019-0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발행일 2019년 12월

저자 김은정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현대아트컴

## 발간사 <<

한국 사회는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 사회에 많은 의제를 던져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곧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는 변화하고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 인식 또한 급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 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본 현상에 대한 인식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수행해 왔다. 청년과 노인, 기혼과 미혼, 서비스 이용자와 수요자의 관점에서 현재의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 다양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노력해 왔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주거와 직업 안정성,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원에서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8년

에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청년·노인 지원 정책 체감도 조사와 신중년층의 가족 부양 및 가족 문화에 관한 인식 조사·분석을 통하여 향후 도래할 고령사회의 주요 세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추진될 관련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9년 모니터링 주제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아동과 노인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결혼·출산·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미혼과 기혼의 인식 차이,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의견을 밝혀 둔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목 차

<b>제1장 서 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b>제2장 미세먼지와 삶의 질</b> .....	<b>7</b>
제1절 미세먼지와 아동 .....	9
제2절 미세먼지와 노인 .....	33
제3절 소결 .....	75
<b>제3장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b> .....	<b>79</b>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	81
제2절 결혼 및 출산 .....	83
제3절 자녀 양육 및 돌봄 .....	115
제4절 소결 .....	141
<b>제4장 노인 돌봄</b> .....	<b>149</b>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	151
제2절 노인 돌봄에 관한 경험과 인식 .....	157
제3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와 정책 요구 .....	179
제4절 소결 .....	185
<b>제5장 제 언</b> .....	<b>189</b>
제1절 미세먼지와 삶의 질 .....	191

---

제2절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 .....	195
제3절 노인 돌봄 .....	198

<b>참고문헌</b> .....	<b>201</b>
-------------------	------------

<b>부 록</b> .....	<b>203</b>
------------------	------------

부록 1.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 미세먼지와 노인의 삶 .....	203
부록 2.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 미세먼지와 아동의 삶 .....	209
부록 3.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 관련 국민인식조사 .....	215
부록 4. 노후돌봄 관련 국민인식조사 .....	222

## 표 목차

〈표 2-1〉 응답자 특성(보호자) .....	10
〈표 2-2〉 응답자 특성(아동) .....	12
〈표 2-3〉 미세먼지 정보 확인 빈도 .....	13
〈표 2-4〉 정보 확인 방법 .....	15
〈표 2-5〉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행동(질문 3-1~3-8) .....	17
〈표 2-6〉 자녀의 미세먼지 대처 .....	20
〈표 2-7〉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안구 질환 경험 .....	22
〈표 2-8〉 야외활동 불참 경험 .....	24
〈표 2-9〉 신체적 건강 .....	25
〈표 2-10〉 이사 생각 .....	27
〈표 2-11〉 이민 생각 .....	29
〈표 2-12〉 임신·출산 영향 .....	30
〈표 2-13〉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32
〈표 2-14〉 비례할당 방식 적용 시 표본 수 .....	34
〈표 2-15〉 응답자 현황 .....	35
〈표 2-16〉 미세먼지와 노인의 삶 조사 응답자 특성 .....	37
〈표 2-17〉 미세먼지 관련한 정보 확인 빈도 .....	39
〈표 2-18〉 미세먼지 확인 방법: TV나 라디오의 일기예보 .....	41
〈표 2-19〉 미세먼지 확인 방법: 스마트폰 이용 .....	42
〈표 2-20〉 미세먼지 확인 방법: 가족이나 주변 사람 .....	44
〈표 2-21〉 미세먼지 확인 방법: 당일 날씨나 공기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 .....	46
〈표 2-22〉 미세먼지 확인 방법: 시·군·구청이나 환경부에서 보내 주는 문자 .....	47
〈표 2-23〉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 정도 .....	49
〈표 2-24〉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정도 .....	50
〈표 2-25〉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착용 여부 .....	52
〈표 2-26〉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구입 경로 .....	54

〈표 2-27〉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실내 환기 자제 정도 .....	56
〈표 2-28〉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식수(물) 섭취 정도 .....	57
〈표 2-29〉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손과 발, 얼굴 등의 위생 관리 정도 .....	59
〈표 2-30〉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섭취 정도 .....	60
〈표 2-31〉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 .....	62
〈표 2-32〉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정도 .....	63
〈표 2-3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발생 여부 .....	66
〈표 2-34〉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병원 진료 여부 .....	67
〈표 2-35〉 미세먼지 대처 물품별 사용 여부 .....	69
〈표 2-36〉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노인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 .....	70
〈표 2-37〉 미세먼지, 황사 등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	72
〈표 2-38〉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불안 정도 .....	74
〈표 3-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	82
〈표 3-2〉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미혼 .....	84
〈표 3-3〉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기혼 .....	86
〈표 3-4〉 결혼 이점에 대한 태도: 미혼 .....	87
〈표 3-5〉 결혼 이점에 대한 태도: 기혼 .....	88
〈표 3-6〉 결혼의 가장 큰 이점: 미혼 .....	90
〈표 3-7〉 결혼의 가장 큰 이점: 기혼 .....	91
〈표 3-8〉 결혼 단점에 대한 태도: 미혼 .....	92
〈표 3-9〉 결혼 단점에 대한 태도: 기혼 .....	93
〈표 3-10〉 결혼의 가장 큰 단점: 미혼 .....	94
〈표 3-11〉 결혼의 가장 큰 단점: 기혼 .....	96
〈표 3-12〉 결혼제도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 미혼 .....	97
〈표 3-13〉 결혼제도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 기혼 .....	98
〈표 3-14〉 장래 본인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미혼 .....	100
〈표 3-15〉 장래 본인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기혼 .....	101
〈표 3-16〉 혼인신고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 미혼 .....	102



〈표 3-17〉 혼인신고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 기혼 .....	103
〈표 3-18〉 혼인신고의 시기: 미혼 .....	105
〈표 3-19〉 혼인신고의 시기: 기혼 .....	106
〈표 3-20〉 신혼 기간에 대한 견해: 미혼 .....	107
〈표 3-21〉 신혼 기간에 대한 견해: 기혼 .....	109
〈표 3-22〉 임신의 적정 시기: 미혼 .....	110
〈표 3-23〉 임신의 적정 시기: 기혼 .....	111
〈표 3-24〉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미혼 .....	113
〈표 3-25〉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기혼 .....	114
〈표 3-26〉 자녀 양육 및 돌봄 책임에 대한 국가 책임 비율 정도: 미혼 .....	116
〈표 3-27〉 자녀 양육 및 돌봄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비율 정도: 기혼 .....	117
〈표 3-28〉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미혼 .....	118
〈표 3-29〉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기혼 .....	120
〈표 3-30〉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 미혼 .....	121
〈표 3-31〉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 기혼 .....	122
〈표 3-32〉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정도: 미혼 .....	124
〈표 3-33〉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정도: 기혼 .....	125
〈표 3-34〉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해소에 필요한 정책: 미혼 .....	126
〈표 3-35〉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해소에 필요한 정책: 기혼 .....	128
〈표 3-36〉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성평등: 미혼 .....	129
〈표 3-37〉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성평등: 기혼 .....	131
〈표 3-38〉 조부모의 자녀 돌봄 가능 시 선호하는 사람: 미혼 .....	132
〈표 3-39〉 조부모의 자녀 돌봄 가능 시 선호하는 사람: 기혼 .....	133
〈표 3-40〉 부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 .....	134
〈표 3-41〉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남편 외별이): 미혼 .....	135
〈표 3-42〉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남편 외별이): 기혼 .....	136
〈표 3-43〉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부인 외별이): 미혼 .....	137
〈표 3-44〉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부인 외별이): 기혼 .....	138

〈표 3-45〉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맞벌이): 미혼 .....	140
〈표 3-46〉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맞벌이): 기혼 .....	140
〈표 4-1〉 노인 돌봄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내용 요약 .....	152
〈표 4-2〉 표본배분(비례배분) .....	154
〈표 4-3〉 노인 돌봄 관련 국민 인식 조사 절차 .....	154
〈표 4-4〉 응답자 특성 .....	155
〈표 4-5〉 돌봄이 필요한 가족/친척 여부 .....	157
〈표 4-6〉 일주일 이상 가족/친척에게 돌봄 제공 경험 .....	159
〈표 4-7〉 노후 중풍/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까 봐 불안했던 경험 .....	161
〈표 4-8〉 노후 중풍/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할 어려움 .....	163
〈표 4-9〉 가족 중 중풍/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발생할 어려움 .....	164
〈표 4-10〉 중풍/치매로 인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100% 중 몇 %) .....	166
〈표 4-11〉 중풍/치매로 인한 돌봄 필요 시, 적절한 간병비 .....	168
〈표 4-12〉 노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 .....	170
〈표 4-13〉 추후 돌봄 필요 시 희망 장소 .....	172
〈표 4-14〉 본인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 .....	174
〈표 4-15〉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 .....	176
〈표 4-16〉 노인요양시설 선택 시 중요한 기준 .....	178
〈표 4-17〉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180
〈표 4-18〉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경험 .....	181
〈표 4-19〉 향후 돌봄 필요 노인 증가에 따라 필요한 정부 중점 대책 .....	183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제1~3차에 이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저출산·고령화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국민 인식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적절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본원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과 관련하여 결혼식 비용, 결혼·출산 행태 및 가치관에 관한 한일 비교, 청소년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출산율 결정 요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분석 등이 실시되었으며 일·가정 양립 환경 분석 측면에서 가족 친화 기업 운영, 출산·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현황과 실태, 남성 취업자들의 일·가정 양립 관련 욕구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청년·노인 지원 정책 체감도 조사·분석을 통하여 청년과 노인층의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신중년층의 가족 부양 및 가족 문화에 관한 인식 조사·분석을 통하여 향후 도래할 고령사회의 주요 세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주제

의 국민 인식을 모니터링함에 따라 관련 정책의 수요와 방향성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이 기존에는 출산율 제고를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점차 우리 사회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어 보았으며 이와 함께 결혼·출산·양육을 둘러싼 미혼과 기혼의 인식 차이, 고령사회의 노인 돌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한 조사·분석을 다룬다. 1장은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하며 2장, 3장, 4장은 미세먼지,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 노인 돌봄에 대해서 각각 다룬다. 봄철에 미세먼지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주요 이슈로 미세먼지 관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나머지 두 조사는 하반기에 각각 실시되었다.

2장은 미세먼지가 아동과 노인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에 따라 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미세먼지 관련 조사는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이루어졌으며 아동 대상 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에 대해서, 노인 조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65~74세 미만과 75세 이상 층으로 분류)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세먼지의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국을 5개 권역(① 서울/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②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③ 강원권(강원), ④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

주), ⑤ 영남권(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 취득, 대응 실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미세먼지가 아동과 노인의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3장은 전국 19~4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인식을 전화 조사로 실시한 분석 결과를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결혼의 장단점, 결혼제도의 성평등, 저출산의 이유, 양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양육과 돌봄 관련 성평등 인식 등을 담고 있다. 4장은 2008년 실시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의 실수요층인 만 4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 경험과 인식,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요구에 대해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5장은 마지막으로 각 조사의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수록했다.





## 제 2 장

# 미세먼지와 삶의 질

제1절 미세먼지와 아동

제2절 미세먼지와 노인

제3절 소결



# 2

## 미세먼지와 삶의 질 <<

### 제1절 미세먼지와 아동

최근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국가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 피해, 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의 제약과 건강상의 위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환경부, 2016). 그중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널리 알려지면서(신동천, 2007; 이명선, 2017),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공기 오염, 자연재해, 기후 변화에 아동은 성인보다 더 취약하며, 특히 동일한 수준의 공기 오염에 노출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 성인보다 아동에게 더 유해하기 때문에(우석진 외, 2019, 재인용, p. 130), 아동은 미세먼지의 약자 또는 민감 집단으로 분류된다(김호현, 2014). 그러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 2019), 미세먼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이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미세먼지가 아동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응답자 특성

### 가. 보호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 보호자의 50% 이상이 서울·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영남권이 24.4%, 충청권 11.5%, 호남권 11.3%, 강원권 2.7%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이 동 지역(86.7%)에 거주하였으며, 읍면 지역 거주자는 13.3%였다. 조사에 응답한 보호자의 성별은 남자가 44.5%, 여자가 55.5%였으며, 연령은 30대 이하가 56.5%, 40대 이상이 43.5%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이 73%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 17.1%, ‘전문대졸’ 9.9%로 분석되었다. 가구 형태는 양부모 가구가 98.1%로 대부분이었으며, 한부모 가구는 1.9% 분포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700만 원 이상’이 21%,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20.9%,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이 17%,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16.9%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 응답자 특성(보호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권역		
서울/수도권	(501)	50.1
충청권	(115)	11.5
강원권	(27)	2.7
호남권	(113)	11.3
영남권	(244)	24.4
지역		
동 지역	(867)	86.7
읍면 지역	(133)	13.3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45)	44.5
여자	(555)	55.5
부모 연령		
30대 이하	(565)	56.5
40대 이상	(435)	43.5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1)	17.1
전문대졸	(99)	9.9
대졸 이상	(730)	73.0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981)	98.1
한부모 가구	(19)	1.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5)	2.5
200만 원~300만 원 미만	(70)	7.0
300만 원~400만 원 미만	(209)	20.9
400만 원~500만 원 미만	(169)	16.9
500만 원~600만 원 미만	(170)	17.0
600만 원~700만 원 미만	(69)	6.9
700만 원 이상	(210)	21.0
응답 거절, 잘 모름	(77)	7.7

## 나. 아동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아동 성별은 남자 51.4%, 여자가 48.6%였다. 아동의 연령은 5세 이하가 41.9%, 6~12세는 58.1%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2세의 영아는 전체의 19.3%, 3~5세의 유아는 22.6%, 6~8세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은 33.7%, 마지막으로 9~12세의 초등 고학년 아동은 24.4%로 나타났다.

〈표 2-2〉 응답자 특성(아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아동 성별		
남자	(514)	51.4
여자	(486)	48.6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419)	41.9
6~12세 이하	(581)	58.1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193)	19.3
3~5세 이하	(226)	22.6
6~8세 이하	(337)	33.7
9~12세 이하	(244)	24.4

## 2. 미세먼지 정보 확인

### 가. 정보 확인 빈도

평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에 대해 전체 보호자의 75.6%는 거의 매일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약 8명은 미세먼지 정보를 거의 매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였다. 부모의 성별, 학력, 가구 형태에 따라 미세먼지 정보 확인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보호자의 성별이 여자일 경우 약 81%가 거의 매일 확인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는 69%가 거의 매일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약 12%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미세먼지 정보를 거의 매일 확인한다는 응답률이 78.4%로 고졸 이하(68.1%)와 전문대졸(67.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가구 형태와 관련해서는 양부모 가구의 보호자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거의 매일 확인한다는 응답이 75.7%로 67.4%인 한부모 가구보다 높은 반면,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로 21.2%인 한부모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미세먼지 정보 확인 빈도

(단위: 명, %)

구분	거의 매일 확인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3번	확인하지 않음	(수)	$\chi^2$
전체	75.6	10.8	6.9	1.0	5.7	100.0	
권역							
서울/수도권	77.7	11.2	5.6	0.9	4.6	(501)	19.312
충청권	73.8	16.1	6.8	0.0	3.2	(115)	(0.253)
강원권	70.2	10.6	6.9	4.0	8.2	(27)	
호남권	74.5	5.7	10.0	1.5	8.4	(113)	
영남권	73.1	9.9	8.1	1.1	7.8	(244)	
지역							
동 지역	76.1	10.7	6.4	1.0	5.8	(867)	2.547
읍면 지역	72.1	11.9	9.7	1.1	5.2	(133)	(0.636)
부모 성별							
남자	69.0	12.8	9.4	1.8	7.0	(445)	22.373***
여자	80.7	9.4	4.7	0.4	4.9	(555)	(0.000)
부모 연령							
30대 이하	75.4	11.6	7.0	0.7	5.3	(565)	2.113
40대 이상	75.8	9.9	6.7	1.4	6.2	(435)	(0.715)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8.1	10.9	11.6	0.5	9.0	(171)	24.098***
전문대졸	67.3	15.7	10.2	3.0	3.8	(99)	(0.002)
대졸 이상	78.4	10.1	5.3	0.9	5.2	(730)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75.7	11.0	7.0	0.8	5.4	(981)	29.098***
한부모 가구	67.4	0.0	2.1	9.2	21.2	(19)	(0.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2.6	16.8	7.4	1.6	11.6	(25)	23.390
200만~300만 원 미만	75.8	10.1	7.9	0.0	6.3	(70)	(0.713)
300만~400만 원 미만	71.3	11.8	9.0	1.4	6.6	(209)	
400만~500만 원 미만	79.9	10.5	4.6	1.1	3.8	(169)	
500만~600만 원 미만	76.2	12.7	6.2	1.1	3.7	(170)	
600만~700만 원 미만	74.4	14.3	2.9	0.0	8.4	(69)	
700만 원 이상	76.7	10.1	6.6	0.9	5.6	(210)	

1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구분	거의 매일 확인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3번	확인하지 않음	(수)	$\chi^2$
아동 성별							
남자	77.8	9.9	6.1	0.9	5.3	(514)	2.742
여자	73.2	11.8	7.7	1.1	6.2	(486)	(0.602)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77.8	8.9	6.6	1.3	5.5	(419)	3.429
6~12세 이하	74.0	12.2	7.1	0.8	5.9	(581)	(0.489)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78.8	11.5	4.4	0.1	5.2	(193)	14.477
3~5세 이하	76.9	6.7	8.4	2.2	5.7	(226)	(0.271)
6~8세 이하	73.4	12.8	7.5	0.8	5.4	(337)	
9~12세 이하	74.8	11.3	6.5	0.9	6.5	(244)	

나. 정보 확인 방법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당일 날씨나 공기 상태를 보고 육안으로 관찰하여 확인한다는 응답이 93.6%였다. 시·군·구청이나 환경부에서 보내는 문자로 확인한다는 응답은 71.4%로 3위였으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 60.4%, TV 또는 라디오 5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TV 또는 라디오의 일기예보를 통해 미세먼지를 확인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15.288$ ,  $p<.05$ ), 소득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4.409$ ,  $p<.05$ ). 또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군·구청이나 환경부에서 보내는 문자로 확인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chi^2=14.804$ ,  $p<.01$ ).



〈표 2-4〉 정보 확인 방법

(단위: 명, %)

구분	TV·라디오	스마트폰	가족·주변 사람	육안	시·군·구/ 환경부 문자
전체(N=1000)	51.5	94.4	60.4	93.6	71.4
권역					
서울/수도권	54.1	95.6	62.0	93.6	72.0
충청권	47.3	93.9	55.1	94.5	78.2
강원권	48.6	89.7	65.1	94.1	64.9
호남권	53.4	97.5	59.4	92.5	75.0
영남권	47.4	91.4	59.3	93.7	66.0
지역					
동 지역	50.9	95.1	60.7	93.2	70.8
읍면 지역	55.1	90.1	58.0	96.7	75.5
부모 성별					
남자	51.2	92.3	54.8	91.3	68.8
여자	51.6	96.2	35.3	95.5	73.3
부모 연령					
30대 이하	48.0	95.0	62.3	93.8	69.4
40대 이상	56.0	93.7	57.8	93.4	74.1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1.4	90.5	63.1	90.8	75.3
전문대졸	53.2	95.9	61.3	92.5	73.9
대졸 이상	51.2	95.1	59.6	94.4	70.3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51.7	94.4	60.2	93.6	71.3
한부모 가구	36.7	100.0	73.1	97.3	81.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8.4	92.2	55.5	95.1	89.6
200만~300만 원 미만	42.8	95.2	55.5	90.4	60.5
300만~400만 원 미만	52.8	94.1	60.1	94.6	69.0
400만~500만 원 미만	56.5	95.5	62.4	90.9	75.1
500만~600만 원 미만	58.4	93.6	58.3	93.4	70.0
600만~700만 원 미만	41.9	97.3	62.8	95.7	74.0
700만 원 이상	47.5	97.1	61.4	93.9	73.2
아동 성별					
남자	50.8	94.8	59.0	93.9	72.3
여자	52.1	94.0	61.8	93.4	70.5

1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구분	TV·라디오	스마트폰	가족·주변 사람	육안	시·군·구/ 환경부 문자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51.5	94.4	61.5	92.9	65.7
6~12세 이하	51.5	94.5	59.5	94.1	75.6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47.5	95.0	61.9	94.1	64.6
3~5세 이하	54.8	93.9	61.1	92.0	66.6
6~8세 이하	47.2	94.8	56.7	92.5	72.7
9~12세 이하	57.4	94.1	63.5	96.4	79.7

주: 평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참여자 제외.

### 3. 미세먼지 대응 방법

#### 가. 자녀를 위한 부모의 미세먼지 대응 방법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녀들을 위해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게 한다는 응답이 9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내 환기를 자제 한다는 응답이 90.7%로 높았다. 외출 및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89.4%로 나타났으며, 외출 시 마스크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게 한다와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는 응답이 각각 82.9%, 82.7%로 분석되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게 한다는 응답 또한 79.2%로 나타났다. 한편,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21.3%에 불과했다.

〈표 2-5〉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행동(질문 3-1~3-8)

(단위: 명, %)

구분	외출, 야외 활동 지양	마스크, 보호 안경 착용	실내 환기 자제	물 자주 섭취	손, 발, 얼굴 씻기	과일, 야채 섭취	공기 청정기 가동	대중 교통 이용
전체(N=1000)	89.4	82.9	90.7	81.1	94.2	79.2	82.7	21.3
권역								
서울/수도권	92.1	86.5	92.6	82.3	93.0	78.5	82.9	27.7
충청권	91.3	81.2	91.2	84.6	93.9	78.8	77.8	21.2
강원권	82.8	83.6	92.8	81.8	91.8	71.9	78.9	14.3
호남권	84.2	78.8	90.4	82.9	96.5	83.5	84.6	16.6
영남권	86.3	78.0	86.4	76.0	95.9	79.7	84.0	11.3
지역								
동 지역	89.5	83.0	90.9	81.4	94.4	78.6	84.2	22.1
읍면 지역	89.3	82.3	89.8	79.0	93.0	83.3	72.9	16.6
부모 성별								
남자	86.7	77.5	90.8	76.6	92.1	73.9	92.1	13.4
여자	91.7	87.2	90.6	84.7	95.9	83.6	96.5	30.1
부모 연령								
30대 이하	88.9	82.9	90.2	76.8	92.8	77.0	85.0	18.8
40대 이상	90.1	82.8	91.4	86.6	96.0	82.1	79.6	24.6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82.7	78.8	86.4	77.1	92.3	74.4	71.9	21.2
전문대졸	82.4	80.2	89.5	82.5	90.2	75.7	84.4	27.2
대졸 이상	92.0	84.2	91.9	81.8	95.2	80.8	85.0	20.5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89.8	83.2	91.0	80.9	94.1	79.1	83.0	21.0
한부모 가구	70.1	67.8	74.6	88.6	100.0	85.9	63.6	37.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4.6	61.4	76.1	80.0	89.6	84.1	73.2	40.8
200만~300만 원 미만	91.1	72.1	92.9	82.2	91.2	80.1	74.8	19.4
300만~400만 원 미만	87.0	80.8	89.0	82.3	92.1	75.4	79.8	24.3
400만~500만 원 미만	89.9	87.5	93.2	81.3	95.5	74.3	83.9	23.6
500만~600만 원 미만	92.6	77.9	92.7	85.5	95.2	85.8	85.4	21.6
600만~700만 원 미만	89.1	90.8	94.2	77.4	95.0	75.8	89.4	15.7
700만 원 이상	93.0	88.7	91.2	75.7	96.3	83.2	88.8	17.9
아동 성별								
남자	90.0	83.0	92.7	82.0	94.9	81.4	81.0	22.6
여자	88.8	82.8	88.6	80.1	93.4	76.9	84.5	19.9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87.9	79.5	92.3	79.6	92.2	76.6	87.3	17.3
6~12세 이하	90.5	85.3	89.6	82.2	95.7	81.1	79.3	24.2

구분	외출, 야외 활동 지양	마스크, 보호 안경 착용	실내 환기 자제	물 자주 섭취	손, 발, 얼굴 씻기	과일, 야채 섭취	공기청정기 가동	대중 교통 이용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88.9	71.8	95.1	75.5	90.4	71.2	90.0	16.7
3~5세 이하	87.2	86.1	89.9	83.0	93.7	81.1	85.0	17.7
6~8세 이하	88.6	87.1	89.1	80.3	96.3	80.6	79.7	18.3
9~12세 이하	93.2	82.8	90.2	84.7	94.8	81.9	78.8	32.5

주: \*4점 척도(항상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 않는다) 응답에 대해 '항상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 그리고 '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하지 않는다'로 리코딩한 응답률.

서울/수도권, 충청권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외출 및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타 지역, 특히 강원권에 거주하는 보호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hi^2=11.433$ ,  $p<.05$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 또한, 서울/수도권, 충청권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응답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chi^2=29.293$ ,  $p<.001$ ). 외출 시 마스크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게 한다는 응답은 서울/수도권, 강원권이 타 지역보다 많았다( $\chi^2=11.065$ ,  $p<.05$ ). 전반적으로 중서부(서울/수도권, 충청권)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아동의 실외 활동이나 외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동 혹은 읍면 지역에 따른 보호자의 미세 먼지 대응 방법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자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남자보다 외출 및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chi^2=6.492$ ,  $p<.05$ ), 외출 시 마스크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게 한다는 응답 비율 또한 높았다( $\chi^2=16.322$ ,  $p<.001$ ). 자녀에게 물을 자주 마시게 하거나( $\chi^2=10.456$ ,  $p<.01$ ),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게 하고( $\chi^2=6.259$ ,  $p<.05$ ),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게 한다( $\chi^2=14.215$ ,  $p<.001$ ),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chi^2=8.189$ ,  $p<.01$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chi^2=37.045$ ,  $p<.001$ )는 응답의 비율 또한 여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 즉 여자 보호자가 남자 보호자보

다 자녀의 미세먼지 대응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30대 이하인 경우보다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chi^2=15.565$ ,  $p<.001$ ),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게 한다( $\chi^2=4.976$ ,  $p<.05$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chi^2=5.327$ ,  $p<.05$ )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또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전문대졸이나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외출 및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chi^2=18.341$ ,  $p<.001$ ), 양부모 가구의 보호자가 한부모 가구의 보호자보다 환기를 자제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chi^2=8.995$ ,  $p<.01$ ). 특히,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는 응답은 고학력, 고소득 보호자가 높은 반면, 공기청정기가 없다(12.5%)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남자일 때 여자인 경우보다 환기를 자제한다는( $\chi^2=5.072$ ,  $p<.05$ )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외출 시 마스크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게 한다( $\chi^2=5.968$ ,  $p<.05$ )와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게 한다( $\chi^2=5.688$ ,  $p<.05$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chi^2=8.111$ ,  $p<.01$ )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마스크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게 한다는 응답은 3~8세 자녀가 있는 보호자의 응답률이 높았고,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게 한다는 응답은 3~12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는 응답은 9~12세 자녀를 둔 보호자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외출이나 야외활동량이 많아지는 자녀의 연령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미세먼지 관련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자녀의 미세먼지 대처

“귀하의 자녀는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처할 줄 압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보호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41.4%,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58.6%로 자녀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처할 줄 모른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은 서울/수도권과 강원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hi^2=29.686$ ,  $p<.01$ ).

부모의 연령이 30대 이하일 때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인 경우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chi^2=44.402$ ,  $p<.001$ ). 또한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chi^2=297.645$ ,  $p<.001$ ). 이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이 비례하기 때문에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고,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처할 줄 아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6〉 자녀의 미세먼지 대처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
전체	8.6	32.8	23.7	34.9	(1000)	
권역						
서울/수도권	10.8	34.9	20.3	34.0	(501)	29.686** (0.003)
충청권	9.5	30.9	17.8	41.7	(115)	
강원권	12.6	32.2	22.6	32.6	(27)	
호남권	10.4	29.4	26.1	34.1	(113)	
영남권	2.6	30.8	32.5	34.2	(244)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
지역						
동 지역	8.2	32.4	24.9	34.4	(867)	5.987
읍면 지역	11.4	34.9	15.5	38.2	(133)	(0.112)
부모 연령						
30대 이하	6.8	26.7	23.5	43.0	(565)	44.402***
40대 이상	11.0	40.6	24.0	24.4	(435)	(0.000)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2	34.4	24.5	29.9	(171)	6.823
전문대졸	5.4	36.8	17.9	39.9	(99)	(0.337)
대졸 이상	8.5	31.8	24.3	35.4	(730)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8.4	32.6	24.0	35.0	(981)	6.722
한부모 가구	23.3	39.6	6.0	31.1	(19)	(0.08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8	37.6	11.7	38.9	(25)	32.193
200만~300만 원 미만	4.9	27.0	25.8	42.2	(70)	(0.056)
300만~400만 원 미만	10.2	31.9	21.6	36.3	(209)	
400만~500만 원 미만	5.6	32.6	26.7	35.1	(169)	
500만~600만 원 미만	10.5	39.8	15.2	34.6	(170)	
600만~700만 원 미만	5.0	43.0	22.1	30.0	(69)	
700만 원 이상	10.3	29.6	26.7	33.4	(210)	
아동 성별						
남성	8.2	32.6	22.8	36.4	(514)	1.287
여성	9.1	32.9	24.6	33.4	(486)	(0.732)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4.3	14.7	19.5	61.5	(419)	237.411***
6~12세 이하	11.7	45.8	26.7	15.8	(581)	(0.000)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1.8	7.6	13.4	77.3	(193)	297.645***
3~5세 이하	6.5	20.8	24.7	48.0	(226)	(0.000)
6~8세 이하	8.7	41.9	30.0	19.4	(337)	
9~12세 이하	15.9	51.1	22.2	10.8	(244)	

## 4. 미세먼지와 아동의 삶

### 가. 건강과 야외활동

#### 1) 건강

〈표 2-7〉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안구 질환 경험

(단위: %)

구분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안구 질환	
	경험(N=1000)	병원 진료(n=440)
전체	44.0	87.0
권역		
서울/수도권	45.7	88.4
충청권	44.9	81.0
강원권	33.9	95.6
호남권	37.1	79.2
영남권	44.4	89.1
지역		
동 지역	44.9	87.3
읍면 지역	38.3	85.0
부모 성별		
남자	40.7	88.3
여자	59.3	86.2
부모 연령		
30대 이하	40.3	86.9
40대 이상	46.9	87.1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3.9	75.6
전문대졸	49.2	91.4
대졸 이상	43.3	89.0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43.9	86.8
한부모 가구	49.5	95.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8.9	81.2
200만~300만 원 미만	45.3	88.9
300만~400만 원 미만	45.1	93.2
400만~500만 원 미만	46.9	80.7
500만~600만 원 미만	49.2	85.1
600만~700만 원 미만	37.6	92.8
700만 원 이상	39.8	85.1



구분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안구 질환	
	경험(N=1000)	병원 진료(n=440)
아동 성별		
남자	51.0	85.6
여자	36.6	89.0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44.3	88.9
6~12세 이하	43.8	85.6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41.4	94.9
3~5세 이하	46.7	84.4
6~8세 이하	44.9	87.4
9~12세 이하	42.3	83.0

## 2) 야외활동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원)의 등교/등원, 체육 활동, 소풍/수학여행, 봉사활동 등 공식적인 야외활동(등교, 등원 포함)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보호자의 30.9%는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가족모임, 친구모임, 여가 등 비공식적인 야외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에는 그보다 높은 비율인 47.1%가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공식적인 야외활동에 대해서는 서울/수도권과 강원권의 아동이 타 지역의 아동에 비해 참여하지 않은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chi^2=12.535$ ,  $p<.05$ ). 공식적인 야외활동은 부모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여자보다( $\chi^2=7.211$ ,  $p<.01$ ), 연령이 낮을수록( $\chi^2=8.852$ ,  $p<.01$ ),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chi^2=18.970$ ,  $p<.001$ ).<sup>1)</sup> 비공식적인 야외활동의 경우 불참의 경험 비율이 공식적인 야외활동보다 높고,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높은 반면, 공식적인 야외활동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어 학령기 아동의 공식적인

1)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원) 등을 다니지 않는 비해당 아동은 제외함.

야외활동 불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2-8〉 야외활동 불참 경험

(단위: %)

구분	공식적 야외활동 불참		비공식적 야외활동 불참
	그런 적 있음	비해당	
전체(N=1000)	30.9	7.9	47.1
권역			
서울/수도권	30.7	6.9	52.0
충청권	34.0	10.7	41.8
강원권	35.0	5.0	53.3
호남권	26.4	4.6	36.3
영남권	31.6	10.5	44.0
지역			
동 지역	29.7	7.8	46.8
읍면 지역	38.9	8.3	49.1
부모 성별			
남자	35.1	8.3	44.9
여자	27.6	7.6	48.8
부모 연령			
30대 이하	33.1	12.6	47.3
40대 이상	28.1	1.8	46.9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3.4	8.0	44.8
전문대졸	28.4	6.4	47.9
대졸 이상	30.7	8.1	47.6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30.9	7.9	46.8
한부모 가구	33.4	7.2	64.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1	6.2	40.6
200만~300만 원 미만	39.1	8.2	46.8
300만~400만 원 미만	35.3	7.0	49.2
400만~500만 원 미만	30.0	7.8	45.1
500만~600만 원 미만	27.0	9.3	50.3
600만~700만 원 미만	32.6	6.9	46.1
700만 원 이상	28.4	7.7	51.6
아동 성별			
남자	30.3	6.5	47.3
여자	31.5	9.4	46.9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34.4	16.8	48.5
6~12세 이하	28.4	1.5	46.1

구분	공식적 야외활동 불참		비공식적 야외활동 불참
	그런 적 있음	비해당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29.1	31.9	44.5
3~5세 이하	38.9	4.0	51.9
6~8세 이하	31.5	1.7	46.7
9~12세 이하	24.3	1.2	45.2

## 나. 미세먼지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가 자녀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신체적 건강, 야외 놀이 및 문화·여가 활동,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질 영역에서 11점 척도(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점, 보통 5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0점)로 조사하였다. 전 영역에서 평균 6점을 넘어 미세먼지가 아동의 삶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아동의 보호자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야외 놀이 및 문화·여가 활동 영역이 8.3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신체적 건강 8.1점, 삶의 질 8.0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2-9〉 신체적 건강

(단위: 점)

구분	신체적 건강		놀이·문화·여가 활동		스트레스		삶의 질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전체	8.1	2.1	8.3	2.1	6.6	2.9	8.0	2.4
권역								
서울/수도권	8.2	2.0	8.5	2.0	6.7	2.8	8.2	2.3
충청권	8.1	2.2	8.3	2.0	6.5	3.2	7.8	2.8
강원권	8.0	2.2	8.3	2.0	6.7	3.1	8.2	2.2
호남권	7.8	2.1	7.9	2.0	6.5	2.8	7.9	2.3
영남권	7.9	2.2	8.3	2.2	6.4	2.9	7.7	2.5
지역								
동 지역	8.0	2.1	8.3	2.1	6.6	2.9	8.0	2.4
읍면 지역	8.1	2.1	8.4	1.9	6.4	2.8	7.7	2.4

2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구분	신체적 건강		놀이·문화·여가 활동		스트레스		삶의 질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부모 성별								
남자	7.7	2.4	8.1	2.3	6.0	3.1	7.6	2.6
여자	8.3	1.9	8.5	1.8	7.0	2.5	8.3	2.1
부모 연령								
30대 이하	8.1	2.1	8.5	2.0	6.5	3.0	8.0	2.5
40대 이상	8.0	2.1	8.2	2.1	6.7	2.7	8.0	2.2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7.8	2.3	8.0	2.2	6.2	3.1	7.5	2.6
전문대졸	7.6	2.3	7.7	2.4	6.3	2.9	7.6	2.6
대졸 이상	8.2	2.0	8.5	1.9	6.7	2.8	8.2	2.3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8.1	2.1	8.4	2.1	6.6	2.9	8.0	2.4
한부모 가구	7.6	2.3	7.8	2.1	6.0	3.1	7.7	3.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1	2.8	7.4	3.2	6.4	3.3	7.2	3.3
200만~300만 원 미만	7.9	2.1	8.2	1.8	6.6	2.8	7.7	2.5
300만~400만 원 미만	8.0	2.1	8.4	1.9	6.4	2.9	7.9	2.4
400만~500만 원 미만	8.0	1.9	8.3	1.7	6.7	2.6	8.0	2.2
500만~600만 원 미만	8.0	2.0	8.4	2.0	7.0	2.6	8.2	2.1
600만~700만 원 미만	7.9	2.1	8.6	1.8	6.9	3.0	8.3	2.3
700만 원 이상	8.3	2.2	8.4	2.2	6.3	3.1	8.0	2.5
아동 성별								
남자	8.2	2.0	8.5	2.0	6.7	2.8	8.1	2.3
여자	7.9	2.2	8.2	2.1	6.4	3.0	7.9	2.4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8.2	2.1	8.5	2.2	6.7	3.0	8.1	2.5
6~12세 이하	8.0	2.1	8.2	2.0	6.5	2.8	7.9	2.3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8.2	2.2	8.3	2.4	6.8	3.2	8.1	2.6
3~5세 이하	8.2	2.0	8.6	2.0	6.6	2.8	8.0	2.4
6~8세 이하	8.0	2.1	8.4	1.9	6.6	2.9	8.0	2.3
9~12세 이하	7.8	2.1	8.0	2.0	6.4	2.7	7.8	2.3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성별이 여자일 때 남자인 경우보다 미세먼지가 아동의 삶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신체적 건강 영역에서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나 전문대졸인 경우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F = 4.029, p < .05$ ), 아동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여자

인 경우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t = 2.051, p < .05$ ).

야외 놀이, 문화·여가 활동 영역에서는 30대 이하의 부모가 40대 이상의 부모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t = 6.204, p < .05$ ).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고졸 이하나 전문대졸인 경우보다 야외 놀이, 문화·여가 활동 영역( $F = 9.106, p < .001$ )과 스트레스 영역( $F = 3.010, p < .05$ ), 그리고 삶의 질 영역( $F = 7.179, p < .01$ ) 모두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 다. 이사·이민 생각

자녀를 위해 공기가 좀 더 좋은 곳으로의 이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71.4%의 보호자가 한 번 이상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수도권 거주 보호자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보다 한 번 이상 이사를 생각해 본 비율이 높았으며, 보호자가 여자인 경우 남자보다 높았다. 또 가구소득이 200만~300만 원 미만, 400만~5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보호자가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0〉 이사 생각

(단위: 명, %)

구분	자주 생각	가끔 생각	한 번 생각	없다	계(수)	$\chi^2$
전체	22.3	35.3	13.7	28.6	(1000)	
권역						
서울/수도권	21.3	38.9	15.6	24.2	(501)	22.250* (0.035)
충청권	23.4	36.4	11.1	29.1	(115)	
강원권	30.4	32.3	7.4	30.0	(27)	
호남권	24.7	22.0	17.1	36.2	(113)	
영남권	22.0	34.1	10.2	33.7	(244)	
지역						
동 지역	22.4	36.0	14.1	27.6	(867)	3.963 (0.265)
읍면 지역	22.3	30.9	11.3	35.6	(133)	

2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구분	자주 생각	가끔 생각	한 번 생각	없다	계(수)	$\chi^2$
부모 성별						
남자	20.4	29.0	13.7	36.9	(445)	29.777***
여자	23.9	40.5	13.7	21.9	(556)	(000)
부모 연령						
30대 이하	24.2	34.1	13.4	28.3	(565)	2.550
40대 이상	20.0	36.9	14.1	29.0	(435)	(0.466)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4.3	31.2	10.3	34.2	(171)	6.404
전문대졸	18.4	38.0	13.5	30.0	(99)	(0.379)
대졸 이상	22.4	36.0	14.5	27.1	(730)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22.4	35.5	13.7	28.4	(981)	0.987
한부모 가구	21.2	25.4	14.9	38.6	(19)	(0.80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7	40.5	3.1	23.6	(25)	42.872**
200만~300만 원 미만	27.4	26.7	11.0	34.9	(70)	(0.003)
300만~400만 원 미만	24.3	34.9	13.9	26.9	(209)	
400만~500만 원 미만	17.0	31.2	19.3	32.6	(169)	
500만~600만 원 미만	17.7	47.0	12.8	22.5	(170)	
600만~700만 원 미만	29.4	36.4	11.0	23.2	(69)	
700만 원 이상	27.0	31.9	14.3	26.8	(210)	
아동 성별						
남자	22.7	37.4	13.2	26.7	(514)	2.898
여자	21.9	33.2	14.2	30.7	(486)	(0.408)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26.6	33.4	13.2	26.8	(419)	7.898*
6~12세 이하	19.2	36.8	14.1	29.9	(581)	(0.048)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27.9	34.4	13.0	24.6	(193)	11.157
3~5세 이하	25.6	32.5	13.3	28.6	(226)	(0.265)
6~8세 이하	18.9	39.0	12.8	29.3	(337)	
9~12세 이하	19.8	33.6	15.8	30.8	(244)	

자녀를 위해 공기가 좋은 나라로의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5.4%, 약 2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자가 여자인 경우 남자보다,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의 보호자가 고졸 이하의 보호자보다 한 번 이상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자녀의 연령이 6~12세의 학령

기인 경우에 이민을 한 번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1〉 이민 생각

(단위: 명, %)

구분	자주 생각	가끔 생각	한 번 생각	없다	계(수)	$\chi^2$
전체	16.9	21.8	16.7	44.6	(1000)	
권역						
서울/수도권	16.8	21.9	19.5	41.9	(501)	14.040
충청권	18.9	19.3	12.4	49.4	(115)	(0.298)
강원권	11.2	25.6	10.4	52.8	(27)	
호남권	10.6	26.2	13.8	49.3	(113)	
영남권	19.8	20.5	15.0	44.7	(244)	
지역						
동 지역	16.9	21.6	17.7	43.8	(867)	5.448
읍면 지역	16.9	23.4	10.0	49.7	(133)	(0.142)
부모 성별						
남자	15.3	17.3	12.8	54.6	(445)	34.256***
여자	18.2	25.5	19.8	36.5	(556)	(0.000)
부모 연령						
30대 이하	17.4	21.1	15.9	45.6	(565)	1.268
40대 이상	16.2	22.8	17.7	43.2	(435)	(0.737)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9	13.3	10.6	58.3	(171)	24.448***
전문대졸	13.8	17.7	22.4	46.2	(99)	(0.000)
대졸 이상	17.1	24.4	17.4	41.1	(730)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17.1	21.7	16.5	44.7	(981)	3.170
한부모 가구	5.7	28.3	26.9	39.2	(19)	(0.36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8	21.2	9.6	50.4	(25)	20.715
200만~300만 원 미만	15.9	19.3	11.2	53.6	(70)	(0.476)
300만~400만 원 미만	17.5	25.4	16.0	41.0	(209)	
400만~500만 원 미만	16.8	18.2	18.1	46.9	(169)	
500만~600만 원 미만	13.7	26.2	20.6	39.6	(170)	
600만~700만 원 미만	17.0	25.0	18.3	39.7	(69)	
700만 원 이상	19.6	20.9	16.3	43.2	(210)	
아동 성별						
남자	16.2	23.7	16.4	43.7	(514)	2.222
여자	17.6	19.9	17.0	45.5	(486)	(0.528)

3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구분	자주 생각	가끔 생각	한 번 생각	없다	계(수)	$\chi^2$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18.6	23.4	11.7	46.3	(419)	13.379**
6~12세 이하	15.7	20.7	20.3	43.3	(581)	(0.004)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19.6	21.2	14.7	44.5	(193)	17.487*
3~5세 이하	17.7	25.4	9.2	47.7	(226)	(0.042)
6~8세 이하	16.3	19.3	21.1	43.3	(337)	
9~12세 이하	14.9	22.6	19.1	43.4	(244)	

라. 임신·출산 영향

추가로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보호자는 전체의 약 15.6%로 나타났으며 아직 결정하지 않은 보호자는 약 9%로 응답한 가운데, 전체의 83.2%는 미세먼지가 임신·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수도권과 강원권 거주 보호자가 “미세먼지가 임신·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8%, 48.6%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여자 보호자가 남자 보호자보다 미세먼지가 임신·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2〉 임신·출산 영향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
전체	42.9	40.3	13.2	3.6	(1000)	
권역						
서울/수도권	45.8	38.4	14.5	1.4	(501)	29.277**
충청권	36.1	45.5	14.1	4.3	(115)	(0.004)
강원권	48.6	36.3	15.1	0.0	(27)	
호남권	39.0	45.6	11.3	4.0	(113)	
영남권	41.4	39.9	10.7	8.1	(244)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chi^2$
지역						
동 지역	42.0	41.0	13.4	3.6	(867)	2.132
읍면 지역	48.5	35.8	11.9	3.8	(133)	(0.545)
부모 성별						
남자	36.3	39.2	18.2	6.3	(444)	40.866***
여자	48.2	41.1	9.0	1.0	(556)	(.000)
부모 연령						
30대 이하	42.4	39.5	14.0	4.2	(565)	2.390
40대 이상	43.6	41.5	12.1	2.8	(435)	(0.496)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3.9	48.3	13.8	4.0	(171)	8.156
전문대졸	41.0	41.1	15.2	2.6	(99)	(0.227)
대졸 이상	45.2	38.4	12.7	3.6	(730)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43.1	40.3	13.0	3.5	(981)	1.676
한부모 가구	30.4	40.3	22.1	7.2	(19)	(0.64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9.7	34.4	15.9	0.0	(25)	15.653
200만~300만 원 미만	52.9	38.7	8.4	0.0	(70)	(0.789)
300만~400만 원 미만	44.3	39.2	13.0	3.4	(209)	
400만~500만 원 미만	42.5	41.8	13.1	2.6	(169)	
500만~600만 원 미만	40.5	39.2	14.5	5.7	(170)	
600만~700만 원 미만	45.9	40.5	9.5	4.1	(69)	
700만 원 이상	41.5	40.7	12.9	4.9	(210)	
아동 성별						
남자	42.6	41.3	12.7	3.3	(514)	0.722
여자	43.2	39.3	13.6	3.9	(486)	(0.868)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44.5	39.8	13.3	2.4	(419)	3.496
6~12세 이하	41.7	40.7	13.1	4.5	(581)	(0.321)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43.3	41.6	12.6	2.5	(193)	11.713
3~5세 이하	45.6	38.3	13.9	2.2	(226)	(0.230)
6~8세 이하	40.1	39.1	14.9	5.9	(337)	
9~12세 이하	43.9	42.9	10.5	2.6	(244)	

## 5.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녀를 생각했을 때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97.1%, 실내 놀이 및 체육 활동 공간 96%,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95.5%, 국가적인 공기 질 관리 92%,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물질적 지원 91.3% 차례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10명 중 9명 이상의 아동 보호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30대 이하의 보호자는 실내 놀이 및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욕구도가 40대 이하의 보호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 = 1.993, p < .05$ ). 또한 모든 항목에 대해 여자 보호자의 필요도가 남자 보호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3〉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분	미세먼지 정보	미세먼지 대응 교육 및 홍보	실내 놀이 및 체육 활동 공간	물질적 지원	국가적인 공기 질 관리
전체(N=1000)	97.1	95.5	96.0	91.3	92.0
권역					
서울/수도권	97.4	95.7	96.4	93.7	92.1
충청권	97.3	97.7	97.8	88.6	92.0
강원권	100.0	94.8	96.3	92.8	90.6
호남권	98.5	95.2	93.7	85.7	89.6
영남권	95.5	94.4	95.6	89.9	92.8
지역					
동 지역	97.1	95.2	96.2	91.3	91.9
읍면 지역	97.2	97.6	95.2	90.9	92.6
부모 성별					
남자	95.0	93.9	94.2	84.9	87.6
여자	98.6	96.8	97.4	96.4	95.5
부모 연령					
30대 이하	97.4	95.2	96.2	90.6	91.4
40대 이상	96.8	95.9	95.8	92.2	92.7

구분	미세먼지 정보	미세먼지 대응 교육 및 홍보	실내 높이 및 체육 활동 공간	물질적 지원	국가적인 공기 질 관리
부모 최종 학력					
고졸 이하	96.5	95.5	94.8	90.7	90.4
전문대졸	98.4	92.4	92.7	83.5	87.9
대졸 이상	97.1	95.9	96.8	92.5	92.9
가구 형태					
양부모 가구	97.1	95.7	96.2	91.3	92.0
한부모 가구	95.5	87.8	87.8	92.3	87.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0.0	89.6	91.1	81.4	83.1
200만~300만 원 미만	96.0	97.5	98.9	92.2	86.8
300만~400만 원 미만	97.4	95.9	96.7	94.4	94.1
400만~500만 원 미만	98.5	96.8	96.6	94.2	93.5
500만~600만 원 미만	97.5	94.3	95.2	90.3	90.5
600만~700만 원 미만	95.4	94.1	95.3	92.0	91.7
700만 원 이상	96.8	96.8	96.3	88.7	94.1
아동 성별					
남자	97.2	96.2	97.1	90.9	91.0
여자	97.0	94.8	94.9	91.7	93.0
아동 연령 1					
0~5세 이하	96.4	94.9	95.8	90.0	91.5
6~12세 이하	97.6	95.9	96.2	92.2	92.3
아동 연령 2					
0~2세 이하	97.4	95.0	94.8	90.3	91.5
3~5세 이하	95.6	94.9	96.6	89.7	91.5
6~8세 이하	97.0	95.6	96.2	92.4	92.3
9~12세 이하	98.4	96.3	96.2	91.9	92.3

## 제2절 미세먼지와 노인

### 1. 조사 개요

미세먼지와 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 대상은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조사는 표본설계에 의해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설계는 지역, 성별, 연령대의 세 층화지표를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지역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① 서울/수

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②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③ 강원권(강원), ④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⑤ 영남권(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2개 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대는 ① 65~74세 이하와 ② 75세 이상 층으로 분류하였다.

2019년 3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의하면 남성은 42.9%, 여성은 57.1%였으며, 65~74세 인구는 전체 노인의 56.0%, 75세 이상 인구는 44.0%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역별 인구 규모를 보면, 서울/수도권 43.6%, 충청권 11.0%, 강원권 3.7%, 호남권 13.7%, 영남권 27.8%로 강원권 노인 인구가 전체 노인의 3.7%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1000명을 추출할 경우, 강원권 거주 노인은 37명밖에 되지 않아 집단 간 비교 등 자료 분석에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근 할당 방식을 적용하여 모집단 비율이 통계적으로 왜곡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은 셀에 보다 많은 할당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표 2-14〉 비례할당 방식 적용 시 표본 수

표본 할당	남		여		소계
	65~74세	7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서울/수도권	120	71	134	111	436
충청권	28	19	30	33	110
강원권	9	7	10	11	37
호남권	33	23	38	43	137
영남권	74	43	83	78	278
계	265	164	295	276	1000

제공근 비례할당 방식으로 강원권 거주 노인의 표본을 과대추출하였지만, 자료 분석에서는 원래 모집단의 분포에 맞추기 위해 가중치를 활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래 응답자 현황은 모집단 분포에 맞추기 이전 실제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으로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63.3%,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36.7%였으며, 서울/수도권은 31.1%, 충청권 13.9%, 강원권 12.3%, 호남권 17.0%, 영남권 25.7%로 나타났다. 즉, 강원권 노인이 모집단에서는 3.7%이지만, 실제 표집에서는 12.3%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성별과 연령대 비율도 원래 모집단과는 달리 남성이 52.8%, 여성이 47.2%였으며, 65~74세 응답자는 51.4%, 75세 이상 응답자는 47.2%로 분석되었다.

〈표 2-15〉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지역		
동 지역	(633)	63.3
읍면 지역	(367)	36.7
권역		
서울/수도권	(311)	31.1
충청권	(139)	13.9
강원권	(123)	12.3
호남권	(170)	17.0
영남권	(257)	25.7
성별		
남성	(528)	52.8
여성	(472)	47.2
연령 1		
65~75세 미만	(514)	51.4
75세 이상	(486)	48.6
연령 2		
65~70세 미만	(258)	25.8
70~75세 미만	(266)	26.6
75~80세 미만	(231)	23.1
80세 이상	(245)	24.5

주: 위 빈도와 비율은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수치임.

모집단의 분포와 실제 표본의 분포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지역, 성별, 연령대는 모집단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초졸이 2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 24.2%, 전문대졸 이상 15.9%, 중졸 15.4%, 무학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최종 학력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무학 24.3%, 초졸 34.1%, 중졸 16.9%, 고졸 17.3%,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이 7.5%였다. 즉, 본 조사 응답자는 무학 비율이 낮고, 전문대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가구 형태는 노인독거 가구 29.7%, 노인부부 가구 53.3%, 자녀동거 가구 15.7%, 기타 1.3%였으며, 2017년 실태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가구 유형은 노인독거 23.6%, 노인부부 가구 48.4%, 자녀동거 가구 23.7%, 기타 4.4%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2년이라는 시점 차이는 있지만,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는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높고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평소에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3.2%로 나타나 노인 4명 중 1명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42.9%,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2.4%,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1.0%,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5.0%, 400만 원 이상은 5.9%였으며, 응답 거절과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12.8%로 나타났다.

〈표 2-16〉 미세먼지와 노인의 삶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000)	100.0
지역		
동 지역	(695)	69.5
읍면 지역	(305)	30.5
권역		
서울/수도권	(436)	43.6
충청권	(111)	11.1
강원권	(37)	3.7
호남권	(138)	13.8
영남권	(278)	27.8
성별		
남성	(428)	42.8
여성	(572)	57.2
연령 1		
65~75세 미만	(561)	56.1
75세 이상	(439)	43.9
연령 2		
65~69세	(294)	29.4
70~75세	(284)	28.4
75~80세	(198)	19.8
80세 이상	(224)	22.4
최종 학력		
무학	(149)	14.9
초졸	(296)	29.6
중졸	(154)	15.4
고졸	(242)	24.2
전문대졸 이상	(159)	15.9
가구 형태		
노인독거	(297)	29.7
노인부부 가구	(533)	53.3
자녀동거 가구	(157)	15.7
기타	(13)	1.3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232)	23.2
아니요	(768)	76.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29)	42.9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24)	22.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10)	11.0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50)	5.0
400만 원 이상	(59)	5.9
응답 거절, 잘 모름	(128)	12.8

주: 위 빈도와 비율은 가중치가 부여된 수치임.

## 2. 미세먼지 정보 확인

우리나라 노인들이 평소에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거의 매일 확인한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3~4번 8.8%, 일주일에 1~2번 7.6%, 한 달에 1~3번 1.8%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지 않는다고도 20.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미세먼지 정보를 거의 매일 확인하는 집단은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68.2%로 높았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는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비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여성(57.3%)보다는 남성(66.6%)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집단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매일 확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 형태에서는 '기타'에 속한 노인의 미세먼지 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매일 확인하는 비율이 72.9%로 다른 가구소득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와 반대로 미세먼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집단의 특성을 보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29.8%로 동 지역 거주 노인 16.4%보다 높았으며, 권역별로는 강원권(26.1%), 호남권(27.6%), 영남권(25.7%) 거주 노인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성(17.6%)보다는 여성(22.7%)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에서는 80세 이상에서 32.5%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며, 가구 형태에서는 노인독거 가구에 속한 노인의 23.9%가 평소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노인의 25.9%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노인의 20.4%가 평소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미세먼지 관련한 정보 확인 빈도

(단위: 명, %)

구분	거의 매일 확인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3번	확인하지 않음	계(수)
전체	61.3	8.8	7.6	1.8	20.5	100.0(1000)
지역						
동 지역	63.3	10.9	7.9	1.5	16.4	100.0(695)
읍면 지역	56.6	4.0	7.0	2.6	29.8	100.0(305)
권역						
서울/수도권	68.2	9.7	6.6	1.8	13.7	100.0(436)
충청권	58.6	6.5	11.1	0.5	23.3	100.0(111)
강원권	53.9	9.3	7.8	2.9	26.1	100.0(37)
호남권	55.2	7.5	9.4	0.4	27.6	100.0(138)
영남권	55.5	8.9	6.9	3.0	25.7	100.0(278)
성별						
남성	66.6	7.5	6.0	2.4	17.6	100.0(428)
여성	57.3	9.7	8.9	1.4	22.7	100.0(572)
연령 1						
65~75세 미만	62.0	11.6	7.8	1.6	17.0	100.0(561)
75세 이상	60.4	5.1	7.5	2.1	24.9	100.0(439)
연령 2						
65~70세 미만	62.7	14.9	9.4	1.7	11.3	100.0(294)
70~75세 미만	62.9	8.1	5.7	1.4	21.9	100.0(284)
75~80세 미만	65.6	3.8	9.4	2.7	18.5	100.0(198)
80세 이상	53.5	5.9	6.3	1.8	32.5	100.0(224)
최종 학력						
무학	44.8	4.8	7.7	1.8	41.0	100.0(149)
초졸	57.8	6.8	9.2	1.1	25.1	100.0(296)
중졸	63.7	5.9	6.9	2.1	21.3	100.0(154)
고졸	70.0	11.8	5.7	1.6	11.0	100.0(242)
전문대졸 이상	67.5	14.4	8.5	3.2	6.4	100.0(159)
가구 형태						
노인독거	61.2	6.7	6.6	1.6	23.9	100.0(297)
노인부부 가구	62.4	9.3	7.4	2.1	18.8	100.0(533)
자녀동거 가구	57.2	11.5	10.4	1.0	19.9	100.0(157)
기타	66.0	0.0	9.5	7.8	16.8	100.0(13)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55.5	9.0	8.0	2.2	25.3	100.0(232)
아니요	63.0	8.7	7.5	1.7	19.0	100.0(76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9.6	7.0	6.9	0.6	25.9	100.0(429)
100만~200만 원 미만	63.1	6.6	9.3	2.9	18.1	100.0(224)
200만~300만 원 미만	59.2	10.6	7.6	2.2	20.4	100.0(110)
300만~400만 원 미만	57.8	24.8	13.3	0.6	3.6	100.0(50)
400만 원 이상	72.9	10.8	5.1	6.7	4.5	100.0(59)

다음은 평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한 달에 1~3번 이상 확인한다는 응답자(확인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제외)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TV나 라디오의 일기예보를 통해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비율은 90.3%로 동 지역(89.3%) 보다는 읍면 지역(92.9%)이 높고, 서울/수도권(87.7%)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TV나 라디오로 확인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75세 이상에서 94.0%로 65~74세 87.7%보다 높았으며, 전문대 이상 졸업자(84.5%)는 다른 최종 학력 집단에 비해 TV나 라디오로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노인독거 가구 91.4%, 노인부부 가구 89.5%, 자녀동거 가구 90.3%, 기타 100.0%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 94.3%,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6.2%,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89.3%,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86.0%, 400만 원 이상은 85.4%로 분석되었다.

평상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로 TV나 라디오 활용(90.3%)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율은 읍면 지역(33.1%)보다는 동 지역(49.9%) 노인이 높았으며, 서울/수도권 52.7%, 충청권 48.4%, 강원권 30.4%, 호남권 36.1%, 영남권 37.4%로 나타났다. 여성(41.1%)보다는 남성(50.8%) 비율이 높았으며, 65~74세가 54.0%, 75세 이상이 41.1%로 분석되었다.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활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무학 22.7%, 초졸 33.0%, 중졸 41.4%, 고졸 56.2%, 전문대졸 이상 64.8%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노인독거 36.4%, 노인부부 가구 49.9%, 자녀동거 가구 46.7%, 기타 36.1%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활용률도 높았으며, 100만 원 미만 30.7%, 100만 원 이

상~200만 원 미만 45.0%,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63.4%,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75.4%, 400만 원 이상은 81.4%로 나타났다.

평상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8.9%로 나타났다. 동 지역 거주 노인의 60.2%, 읍면 지역 거주 노인의 55.4%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권역별로는 충청권(65.3%)과 호남권(64.9%) 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5~74세 노인 비율(60.4%)이 75세 이상 응답자 비율(56.7%)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노인의 70.5%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세먼지 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노인독거 가구 48.6%, 노인부부 가구 62.4%, 자녀동거 가구 66.2%, 기타 49.6%로 분석되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2-18〉 미세먼지 확인 방법: TV나 라디오의 일기예보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요	계(수)
전체	90.3	9.7	100.0(795)
지역			
동 지역	89.3	10.7	100.0(581)
읍면 지역	92.9	7.1	100.0(214)
권역			
서울/수도권	87.7	12.3	100.0(376)
충청권	90.9	9.1	100.0(85)
강원권	93.0	7.0	100.0(27)
호남권	95.3	4.7	100.0(100)
영남권	92.0	8.0	100.0(206)
성별			
남성	91.9	8.1	100.0(353)
여성	89.0	11.0	100.0(442)

4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구분	예	아니요	계(수)
연령 1			
65~75세 미만	87.7	12.3	100.0(466)
75세 이상	94.0	6.0	100.0(330)
연령 2			
65~70세 미만	86.4	13.6	100.0(261)
70~75세 미만	90.2	9.8	100.0(222)
75~80세 미만	92.6	7.4	100.0(161)
80세 이상	94.8	5.2	100.0(151)
최종 학력			
무학	92.8	7.2	100.0(88)
초졸	91.0	9.0	100.0(221)
중졸	92.6	7.4	100.0(121)
고졸	91.3	8.7	100.0(215)
전문대졸 이상	84.5	15.5	100.0(149)
가구 형태			
노인독거	91.4	8.6	100.0(226)
노인부부 가구	89.5	10.5	100.0(433)
자녀동거 가구	90.3	9.7	100.0(126)
기타	100.0	0.0	100.0(10)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88.4	11.6	100.0(174)
아니요	90.8	9.2	100.0(6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94.3	5.7	100.0(318)
100만~200만 원 미만	86.2	13.8	100.0(184)
200만~300만 원 미만	89.3	10.7	100.0(87)
300만~400만 원 미만	86.0	14.0	100.0(49)
400만 원 이상	85.4	14.6	100.0(56)

〈표 2-19〉 미세먼지 확인 방법: 스마트폰 이용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요	비해당 (스마트폰 없음)	계(수)
전체	45.4	44.5	10.1	100.0(795)
지역				
동 지역	49.9	43.5	6.6	100.0(581)
읍면 지역	33.1	47.4	19.5	100.0(214)
권역				
서울/수도권	52.7	42.4	5.0	100.0(376)
충청권	48.4	40.2	11.3	100.0(85)

구분	예	아니요	비해당 (스마트폰 없음)	계(수)
강원권	30.4	61.6	8.0	100.0(27)
호남권	36.1	48.7	15.3	100.0(100)
영남권	37.4	46.0	16.6	100.0(206)
성별				
남성	50.8	42.2	7.0	100.0(353)
여성	41.1	46.4	12.5	100.0(442)
연령 1				
65~75세 미만	54.0	41.8	4.3	100.0(466)
75세 이상	33.3	48.4	18.3	100.0(330)
연령 2				
65~70세 미만	58.8	36.7	4.5	100.0(261)
70~75세 미만	50.3	46.0	3.7	100.0(222)
75~80세 미만	37.1	49.8	13.1	100.0(161)
80세 이상	23.9	50.3	25.8	100.0(151)
최종 학력				
무학	22.7	52.5	24.7	100.0(88)
초졸	33.0	52.4	14.6	100.0(221)
중졸	41.4	50.5	8.0	100.0(121)
고졸	56.2	38.7	5.0	100.0(215)
전문대졸 이상	64.8	31.6	3.6	100.0(149)
가구 형태				
노인독거	36.4	45.8	17.7	100.0(226)
노인부부 가구	49.9	43.2	6.8	100.0(433)
자녀동거 가구	46.7	45.1	8.2	100.0(126)
기타	36.1	63.9	0.0	100.0(10)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42.0	45.1	12.9	100.0(174)
아니요	46.4	44.4	9.3	100.0(6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0.7	53.9	15.5	100.0(318)
100만~200만 원 미만	45.0	50.4	4.6	100.0(184)
200만~300만 원 미만	63.4	29.8	6.8	100.0(87)
300만~400만 원 미만	75.4	21.1	3.4	100.0(49)
400만 원 이상	81.4	18.6	0.0	100.0(56)

주: 질문 1의 '확인하지 않음' 응답자에게 질문하지 않았음.

4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표 2-20〉 미세먼지 확인 방법: 가족이나 주변 사람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요	계(수)
전체	58.9	41.1	100.0(795)
지역			
동 지역	60.2	39.8	100.0(581)
읍면 지역	55.4	44.6	100.0(214)
권역			
서울/수도권	56.5	43.5	100.0(376)
충청권	65.3	34.7	100.0(85)
강원권	58.7	41.3	100.0(27)
호남권	64.9	35.1	100.0(100)
영남권	57.8	42.2	100.0(206)
성별			
남성	58.1	41.9	100.0(353)
여성	59.5	40.5	100.0(442)
연령 1			
65~75세 미만	60.4	39.6	100.0(466)
75세 이상	56.7	43.3	100.0(330)
연령 2			
65~70세 미만	65.8	34.2	100.0(261)
70~75세 미만	56.4	43.6	100.0(222)
75~80세 미만	53.7	46.3	100.0(161)
80세 이상	56.2	43.8	100.0(151)
최종 학력			
무학	53.1	46.9	100.0(88)
초졸	53.1	46.9	100.0(221)
중졸	58.8	41.2	100.0(121)
고졸	59.2	40.8	100.0(215)
전문대졸 이상	70.5	29.5	100.0(149)
가구 형태			
노인독거	48.6	51.4	100.0(226)
노인부부 가구	62.4	37.6	100.0(433)
자녀동거 가구	66.2	33.8	100.0(126)
기타	49.6	50.4	100.0(10)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54.8	45.2	100.0(174)
아니요	60.0	40.0	100.0(6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0.5	49.5	100.0(318)
100만~200만 원 미만	65.9	34.1	100.0(184)
200만~300만 원 미만	54.7	45.3	100.0(87)
300만~400만 원 미만	70.2	29.8	100.0(49)
400만 원 이상	75.0	25.0	100.0(56)

주: 질문 1의 '확인하지 않음' 응답자에게 질문하지 않았음.

평상시 당일 날씨나 공기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서 미세먼지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89.7%로 TV나 라디오로 확인하는 비율(90.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 지역 88.5%보다 읍면 지역 노인 비율(92.9%)이 다소 높았으며, 서울/수도권(87.6%)보다는 충청권(91.0%), 강원권(95.7%), 호남권(90.5%), 영남권(91.9%)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89.5%와 89.9%로 유사했으며, 연령대 비율도 65~74세 89.6%와 75세 이상 89.9%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학력과 가구 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무학 집단(83.9%)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문대졸 이상(94.8%)과 자녀동거 가구(92.0%)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200만~300만 원 미만 집단(81.2%)이 가장 낮았으며, 300만~400만 원 미만 집단에서는 100.0%로 분석되었다.

평상시 시·군·구청이나 환경부에서 보내 주는 문자를 통해 미세먼지를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61.1%로 조사되었으며, 동 지역(64.6%)보다는 읍면 지역(51.6%)에 거주하는 노인이 정부의 미세먼지 알림 문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수도권(65.7%), 충청권(64.7%), 강원권(65.6%)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호남권(52.5%)과 영남권(54.8%)은 낮은 수준이었다. 남성(64.2%)보다 여성(58.6%)의 정보 접근성이 낮았으며, 65~74세 연령집단은 67.8%, 75세 이상 연령집단은 51.6%로 고연령집단에서 정부의 문자 정보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서도 시·군·구청이나 환경부에서 보내는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비율이 무학 36.1%, 초졸 50.6%, 중졸 66.3%, 고졸 74.3%, 전문대졸 이상 68.3%로 차이를 보였다. 가구 형태에서는 노인독거 50.8%, 노인부부 가구 67.4%, 자녀동거 가구 58.9%, 기타 47.5%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100만 원 미만 55.1%,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67.6%,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66.2%,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86.6%, 400만 원 이상은 69.0%로 나타났다.

〈표 2-21〉 미세먼지 확인 방법: 당일 날씨나 공기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요	계(수)
전체	89.7	10.3	100.0(795)
지역			
동 지역	88.5	11.5	100.0(581)
읍면 지역	92.9	7.1	100.0(214)
권역			
서울/수도권	87.6	12.4	100.0(376)
충청권	91.0	9.0	100.0(85)
강원권	95.7	4.3	100.0(27)
호남권	90.5	9.5	100.0(100)
영남권	91.9	8.1	100.0(206)
성별			
남성	89.5	10.5	100.0(353)
여성	89.9	10.1	100.0(442)
연령 1			
65~75세 미만	89.6	10.4	100.0(466)
75세 이상	89.9	10.1	100.0(330)
연령 2			
65~70세 미만	90.9	9.1	100.0(261)
70~75세 미만	88.7	11.3	100.0(222)
75~80세 미만	90.8	9.2	100.0(161)
80세 이상	87.9	12.1	100.0(151)
최종 학력			
무학	83.9	16.1	100.0(88)
초졸	88.8	11.2	100.0(221)
중졸	90.6	9.4	100.0(121)
고졸	89.0	11.0	100.0(215)
전문대졸 이상	94.8	5.2	100.0(149)
가구 형태			
노인독거	88.7	11.3	100.0(226)
노인부부 가구	89.5	10.5	100.0(433)
자녀동거 가구	92.0	8.0	100.0(126)
기타	90.7	9.3	100.0(10)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87.7	12.3	100.0(174)
아니요	90.3	9.7	100.0(6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90.2	9.8	100.0(318)
100만~200만 원 미만	86.8	13.2	100.0(184)
200만~300만 원 미만	81.2	18.8	100.0(87)
300만~400만 원 미만	100.0	0.0	100.0(49)
400만 원 이상	89.2	10.8	100.0(56)

주: 질문 1의 '확인하지 않음' 응답자에게 질문하지 않았음.



〈표 2-22〉 미세먼지 확인 방법: 시·군·구청이나 환경부에서 보내 주는 문자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요	계(수)
전체	61.1	38.9	100.0(795)
지역			
동 지역	64.6	35.4	100.0(581)
읍면 지역	51.6	48.4	100.0(214)
권역			
서울/수도권	65.7	34.3	100.0(376)
충청권	64.7	35.3	100.0(85)
강원권	65.6	34.4	100.0(27)
호남권	52.5	47.5	100.0(100)
영남권	54.8	45.2	100.0(206)
성별			
남성	64.2	35.8	100.0(353)
여성	58.6	41.4	100.0(442)
연령 1			
65~75세 미만	67.8	32.2	100.0(466)
75세 이상	51.6	48.4	100.0(330)
연령 2			
65~70세 미만	67.8	32.2	100.0(261)
70~75세 미만	67.9	32.1	100.0(222)
75~80세 미만	56.8	43.2	100.0(161)
80세 이상	44.1	55.9	100.0(151)
최종 학력			
무학	36.1	63.9	100.0(88)
초졸	50.6	49.4	100.0(221)
중졸	66.3	33.7	100.0(121)
고졸	74.3	25.7	100.0(215)
전문대졸 이상	68.3	31.7	100.0(149)
가구 형태			
노인독거	50.8	49.2	100.0(226)
노인부부 가구	67.4	32.6	100.0(433)
자녀동거 가구	58.9	41.1	100.0(126)
기타	47.5	52.5	100.0(10)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60.1	39.9	100.0(174)
아니요	61.4	38.6	100.0(6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5.1	44.9	100.0(318)
100만~200만 원 미만	67.6	32.4	100.0(184)
200만~300만 원 미만	66.2	33.8	100.0(87)
300만~400만 원 미만	86.6	13.4	100.0(49)
400만 원 이상	69.0	31.0	100.0(56)

주: 질문 1의 '확인하지 않음' 응답자에게 질문하지 않았음.

### 3. 미세먼지 대처 행동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7%, 그렇지 않다는 42.3%로 나타났다. 동 지역 응답자는 60.6%, 읍면 지역은 51.1%로 읍면 지역 거주 노인이 야외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수도권(60.6%)과 충청권(61.1%)은 60% 이상이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한다고 하였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55.8%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52.3%)보다는 여성(61.8%)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5~74세 집단과 75세 이상 집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최종 학력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고졸로 64.9%였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중졸(51.7%)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노인독거 61.1%, 노인부부 가구 56.7%, 자녀동거 가구 57.3%, 기타 26.1%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외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은 63.5%,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나타났다. 동 지역 (67.0%)보다는 읍면 지역(55.5%) 노인의 마스크 착용률이 낮았으며, 권역별로는 강원권(68.8%)과 서울/수도권(66.8%)이 높은 반면 호남권 (58.8%)과 영남권(59.9%)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58.7%)보다는 여성(67.1%)이 마스크 착용률이 높았으며, 65~74세 연령대의 마스크 착용률은 62.5%,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64.8%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으로 보면, 무학 63.7%, 초졸 59.6%, 중졸 66.4%, 고졸 61.9%, 전문대졸 이상 70.3%였으며,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독거 가구 64.2%, 노인부부 가구 65.0%, 자녀동거 가구 59.4%, 기타 35.4%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200만~300만 원 미만 집단의 마스크 착용률이 69.9%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 원 미만 집단이 60.9%로 가장 낮았다.

〈표 2-23〉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전체	24.4	33.4	24.5	17.7	57.7	42.3	100.0(1000)	2.6
지역								
동 지역	25.9	34.7	23.8	15.6	60.6	39.4	100.0(695)	2.7
읍면 지역	20.9	30.2	26.1	22.7	51.1	48.9	100.0(305)	2.5
권역								
서울/수도권	26.2	34.4	25.6	13.8	60.6	39.4	100.0(436)	2.7
충청권	27.0	34.1	22.9	16.0	61.1	38.9	100.0(111)	2.7
강원권	24.7	30.1	28.4	16.9	54.7	45.3	100.0(37)	2.6
호남권	24.8	31.0	23.6	20.6	55.8	44.2	100.0(138)	2.6
영남권	20.2	33.0	23.5	23.3	53.2	46.8	100.0(278)	2.5
성별								
남성	22.7	29.6	24.8	23.0	52.3	47.7	100.0(428)	2.5
여성	25.6	36.2	24.4	13.8	61.8	38.2	100.0(572)	2.7
연령 1								
65~75세 미만	25.0	33.6	25.9	15.5	58.6	41.4	100.0(561)	2.7
75세 이상	23.5	33.0	22.8	20.6	56.5	43.5	100.0(439)	2.6
연령 2								
65~70세 미만	24.6	32.6	24.4	18.3	57.2	42.8	100.0(294)	2.6
70~75세 미만	24.6	35.6	26.4	13.4	60.2	39.8	100.0(284)	2.7
75~80세 미만	24.8	34.5	23.7	17.1	59.2	40.8	100.0(198)	2.7
80세 이상	23.4	30.5	23.1	23.0	53.9	46.1	100.0(224)	2.5
최종 학력								
무학	22.1	30.2	25.0	22.7	52.2	47.8	100.0(149)	2.5
초졸	25.8	30.8	24.2	19.2	56.6	43.4	100.0(296)	2.6
중졸	21.7	30.1	29.3	19.0	51.7	48.3	100.0(154)	2.5
고졸	20.5	44.4	22.6	12.6	64.9	35.1	100.0(242)	2.7
전문대졸 이상	32.4	27.4	23.2	17.0	59.8	40.2	100.0(159)	2.8
가구 형태								
노인독거	28.5	32.6	21.2	17.7	61.1	38.9	100.0(297)	2.7
노인부부 가구	22.1	34.6	25.7	17.6	56.7	43.3	100.0(533)	2.6
자녀동거 가구	24.6	32.7	25.0	17.7	57.3	42.7	100.0(157)	2.6
기타	18.3	7.9	49.9	24.0	26.1	73.9	100.0(13)	2.2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22.1	33.3	26.4	18.2	55.4	44.6	100.0(232)	2.6
아니요	25.0	33.4	24.0	17.6	58.4	41.6	100.0(768)	2.7

5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2.7	34.0	23.4	19.9	56.7	43.3	100.0(429)	2.6
100만~200만 원 미만	26.5	31.0	24.1	18.3	57.6	42.4	100.0(224)	2.7
200만~300만 원 미만	25.5	34.1	26.5	13.8	59.7	40.3	100.0(110)	2.7
300만~400만 원 미만	30.2	31.7	23.0	15.0	62.0	38.0	100.0(50)	2.8
400만 원 이상	20.5	40.1	21.9	17.6	60.6	39.4	100.0(59)	2.6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런 편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표 2-24>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전체	38.4	25.1	14.1	22.4	63.5	36.5	100.0(1000)	2.8
지역								
동 지역	40.8	26.2	13.4	19.6	67.0	33.0	100.0(695)	2.9
읍면 지역	32.7	22.8	15.7	28.8	55.5	44.5	100.0(305)	2.6
권역								
서울/수도권	42.0	24.8	13.0	20.3	66.8	33.2	100.0(436)	2.9
충청권	37.3	26.5	10.2	26.1	63.8	36.2	100.0(111)	2.7
강원권	40.8	28.0	12.6	18.6	68.8	31.2	100.0(37)	2.9
호남권	33.5	25.3	16.2	24.9	58.8	41.2	100.0(138)	2.7
영남권	35.3	24.6	16.7	23.4	59.9	40.1	100.0(278)	2.7
성별								
남성	35.1	23.6	16.6	24.7	58.7	41.3	100.0(428)	2.7
여성	40.9	26.3	12.3	20.6	67.1	32.9	100.0(572)	2.9
연령 1								
65~75세 미만	35.9	26.6	15.0	22.5	62.5	37.5	100.0(561)	2.8
75세 이상	41.5	23.3	13.0	22.2	64.8	35.2	100.0(439)	2.8
연령 2								
65~70세 미만	36.4	26.1	14.9	22.5	62.5	37.5	100.0(294)	2.8
70~75세 미만	36.9	26.6	14.8	21.7	63.6	36.4	100.0(284)	2.8
75~80세 미만	38.9	25.1	15.7	20.4	63.9	36.1	100.0(198)	2.8
80세 이상	42.4	21.9	10.9	24.8	64.3	35.7	100.0(224)	2.8
최종 학력								
무학	40.6	23.0	16.3	20.1	63.7	36.3	100.0(149)	2.8
초졸	33.0	26.6	12.3	28.1	59.6	40.4	100.0(296)	2.6
중졸	38.7	27.6	12.1	21.5	66.4	33.6	100.0(154)	2.8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고졸	34.7	27.3	16.1	22.0	61.9	38.1	100.0(242)	2.7
전문대졸 이상	51.7	18.7	14.4	15.3	70.3	29.7	100.0(159)	3.1
가구 형태								
노인독거	38.8	25.3	11.7	24.1	64.2	35.8	100.0(297)	2.8
노인부부 가구	39.1	25.9	13.7	21.3	65.0	35.0	100.0(533)	2.8
자녀동거 가구	36.0	23.4	17.6	23.0	59.4	40.6	100.0(157)	2.7
기타	25.9	9.5	46.8	17.8	35.4	64.6	100.0(13)	2.4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40.5	31.0	11.7	16.8	71.5	28.5	100.0(232)	3.0
아니오	37.7	23.3	14.9	24.1	61.1	38.9	100.0(768)	2.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7.7	23.2	15.8	23.3	60.9	39.1	100.0(429)	2.8
100만~200만 원 미만	34.6	29.3	10.8	25.2	64.0	36.0	100.0(224)	2.7
200만~300만 원 미만	39.7	30.2	11.5	18.6	69.9	30.1	100.0(110)	2.9
300만~400만 원 미만	39.3	22.7	16.2	21.8	61.9	38.1	100.0(50)	2.8
400만 원 이상	51.4	15.2	11.5	22.0	66.5	33.5	100.0(59)	3.0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런 편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노인(응답자의 63.5%)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응답자의 66.8%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22.7%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나머지 10.4%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착용률은 동 지역 67.6%, 읍면 지역 64.8%였으며, 권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73.3%로 가장 높고 충청권 66.9%, 강원권 64.4%, 호남권 67.8%, 영남권 55.5%로 나타났다. 남성(70.4%)이 여성(64.5%)보다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착용률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5~74세 67.7%, 75세 이상 65.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착용률이 높았으며(무학 50.1%~전문대졸 이상 77.8%), 가구 형태에서는 노인독거 62.5%, 노인부부 가구 67.9%, 자녀

동거 가구 71.3%, 기타 78.1%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00만 원 미만 63.7%,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66.0%,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60.1%,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88.7%, 400만 원 이상 82.2%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의 구입 경로는 본인이 구입이 43.9%, 배우자 7.0%, 자녀 또는 손자녀 34.8%, 이웃이나 지인 3.3%, 친인척 1.9%, 기타 9.0%로 나타났으며, 주로 본인이나 자녀를 통해 전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영남권(50.7%), 65~74세 연령집단(47.8%), 전문대졸 이상(52.5%),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51.9%)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자녀나 손자녀가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구입해 주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충청권(47.4%), 여성(40.4%), 75세 이상 연령집단(38.4%), 중졸(37.0%)과 고졸(39.6%) 집단, 자녀동거 가구(45.5%)와 기타 가구(48.7%),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인 집단(42.7%)으로 나타났다.

〈표 2-25〉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착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가 무엇인지 모름	계(수)
전체	66.8	22.7	10.4	100.0(635)
지역				
동 지역	67.6	22.4	10.0	100.0(466)
읍면 지역	64.8	23.7	11.5	100.0(169)
권역				
서울/수도권	73.3	17.8	8.9	100.0(291)
충청권	66.9	26.8	6.3	100.0(71)
강원권	64.4	28.7	6.9	100.0(25)
호남권	67.8	19.4	12.8	100.0(81)
영남권	55.5	30.3	14.2	100.0(167)

구분	예	아니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가 무엇인지 모름	계(수)
성별				
남성	70.4	21.8	7.8	100.0(251)
여성	64.5	23.3	12.2	100.0(384)
연령 1				
65~75세 미만	67.7	22.3	10.0	100.0(351)
75세 이상	65.8	23.2	11.0	100.0(284)
연령 2				
65~70세 미만	68.8	21.8	9.4	100.0(184)
70~75세 미만	67.1	23.1	9.8	100.0(180)
75~80세 미만	66.5	23.6	9.8	100.0(127)
80세 이상	64.3	22.7	13.0	100.0(144)
최종 학력				
무학	50.1	32.6	17.3	100.0(95)
초졸	59.7	24.4	15.9	100.0(176)
중졸	68.4	17.5	14.2	100.0(102)
고졸	76.6	20.3	3.1	100.0(150)
전문대졸 이상	77.8	19.8	2.4	100.0(112)
가구 형태				
노인독거	62.5	21.8	15.7	100.0(191)
노인부부 가구	67.9	23.3	8.8	100.0(347)
자녀동거 가구	71.3	23.6	5.1	100.0(93)
기타	78.1	0.0	21.9	100.0(4)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64.4	13.0	22.6	100.0(166)
아니요	67.7	26.2	6.1	100.0(46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63.7	26.5	9.8	100.0(261)
100만~200만 원 미만	66.0	19.8	14.2	100.0(143)
200만~300만 원 미만	60.1	22.6	17.3	100.0(77)
300만~400만 원 미만	88.7	11.3	0.0	100.0(31)
400만 원 이상	82.2	15.3	2.5	100.0(39)

주: 질문 3-2의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 응답자에게만 질문함.

5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표 2-26〉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구입 경로

(단위: 명, %)

구분	본인 (응답자)	배우자	자녀나 손자녀	친인척	이웃/ 지인	기타	계(수)
전체	43.9	7.0	34.8	1.9	3.3	9.0	100.0(635)
지역							
동 지역	44.1	7.9	35.3	2.4	2.2	8.0	100.0(466)
읍면 지역	43.3	4.7	33.5	0.5	6.4	11.6	100.0(169)
권역							
서울/수도권	41.4	8.5	39.2	2.6	1.2	7.1	100.0(291)
충청권	42.5	1.9	47.4	0.0	0.8	7.4	100.0(71)
강원권	39.3	2.3	25.5	0.0	4.5	28.4	100.0(25)
호남권	41.7	6.7	30.0	2.4	7.6	11.7	100.0(81)
영남권	50.7	7.6	25.7	1.4	6.0	8.6	100.0(167)
성별							
남성	47.5	10.8	26.4	1.3	1.1	12.9	100.0(251)
여성	41.6	4.6	40.4	2.2	4.8	6.4	100.0(384)
연령 1							
65~75세 미만	46.8	7.4	31.9	2.9	3.0	7.9	100.0(351)
75세 이상	40.3	6.6	38.4	0.6	3.7	10.3	100.0(284)
연령 2							
65~70세 미만	42.8	8.5	37.7	3.8	1.4	5.9	100.0(184)
70~75세 미만	48.4	5.6	30.3	1.8	4.4	9.5	100.0(180)
75~80세 미만	43.3	4.5	40.2	1.3	0.9	9.7	100.0(127)
80세 이상	40.3	9.1	32.2	0.0	6.6	11.7	100.0(144)
최종 학력							
무학	38.1	5.2	36.7	1.2	9.4	9.4	100.0(95)
초졸	45.4	6.1	31.1	1.4	4.3	11.7	100.0(176)
중졸	38.6	7.8	37.0	4.8	1.4	10.4	100.0(102)
고졸	43.0	8.0	39.6	0.0	2.2	7.2	100.0(150)
전문대졸 이상	52.5	8.2	30.9	3.0	0.0	5.4	100.0(112)
가구 형태							
노인독거	40.6	4.2	35.5	3.9	3.8	12.0	100.0(191)
노인부부 가구	49.1	8.6	31.4	1.3	3.0	6.7	100.0(347)
자녀동거 가구	33.6	7.5	45.5	0.0	4.0	9.4	100.0(93)
기타	0.0	0.0	48.7	0.0	0.0	51.3	100.0(4)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37.5	14.2	34.6	2.3	4.0	7.4	100.0(166)
아니요	46.2	4.5	34.9	1.7	3.1	9.5	100.0(46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3.6	2.9	34.2	0.8	4.6	13.9	100.0(261)
100만~200만 원 미만	42.2	11.8	31.7	3.8	2.8	7.8	100.0(143)
200만~300만 원 미만	34.8	12.9	37.5	3.6	5.5	5.6	100.0(77)
300만~400만 원 미만	47.3	4.1	42.7	5.4	0.0	0.5	100.0(31)
400만 원 이상	51.9	13.0	34.4	0.0	0.0	0.8	100.0(39)

주: 질문 3-2의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 응답자에게만 질문함.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대처 행동 중 하나인 창문을 닫고 실내 환기를 자제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43.4%, 그렇다 34.3%, 그렇지 않다 14.5%, 전혀 그렇지 않다 7.8%로 실내 환기를 자제하는 비율은 77.7%, 그렇지 않는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심한데도 창문을 닫지 않거나 실내 환기를 자제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을 보면, 동 지역(20.9%)보다는 읍면 지역(25.2%) 거주 노인이었으며, 충청권(24.0%)과 강원권(23.2%), 80세 이상 연령집단(28.3%), 최종 학력이 무학인 집단(25.9%), 노인독거 가구(26.5%),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400만 원인 집단(30.2%)으로 분석되었다.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물을 자주 마시는 행동을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6.5%, 그런 편이다 32.6%, 그렇지 않다 22.5%, 전혀 그렇지 않다 8.3%로 그렇다 69.1%, 그렇지 않다 30.8%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물을 자주 마시는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강원권(70.1%), 호남권(70.0%), 65~70세 미만 집단(73.9%), 75~79세 집단(73.0%), 노인부부 가구(71.3%),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71.3%)과 200만~300만 원 미만(71.2%)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읍면 지역 거주 노인(33.3%), 80세 이상 연령집단(37.3%), 노인독거 가구(33.2%)와 자녀동거 가구(33.7%),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400만 원 미만(37.3%)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2-27〉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실내 환기 자제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전체	43.4	34.3	14.5	7.8	77.8	22.2	100.0(1000)	3.1
지역								
동 지역	43.5	35.6	14.6	6.3	79.1	20.9	100.0(695)	3.2
읍면 지역	43.3	31.5	14.2	11.1	74.8	25.2	100.0(305)	3.1
권역								
서울/수도권	43.9	34.7	14.9	6.6	78.5	21.5	100.0(436)	3.2
충청권	45.7	30.3	13.9	10.0	76.0	24.0	100.0(111)	3.1
강원권	38.7	38.0	16.0	7.3	76.8	23.2	100.0(37)	3.1
호남권	48.3	30.2	15.3	6.2	78.5	21.5	100.0(138)	3.2
영남권	40.1	37.0	13.4	9.5	77.1	22.9	100.0(278)	3.1
성별								
남성	41.1	34.3	13.2	11.4	75.4	24.6	100.0(428)	3.1
여성	45.2	34.4	15.4	5.1	79.6	20.4	100.0(572)	3.2
연령 1								
65~75세 미만	42.7	36.3	13.9	7.2	79.0	21.0	100.0(561)	3.1
75세 이상	44.4	31.8	15.2	8.5	76.3	23.7	100.0(439)	3.1
연령 2								
65~70세 미만	43.4	35.3	13.8	7.6	78.7	21.3	100.0(294)	3.1
70~75세 미만	41.8	36.9	14.3	7.0	78.7	21.3	100.0(284)	3.1
75~80세 미만	46.8	35.2	13.0	5.0	82.0	18.0	100.0(198)	3.2
80세 이상	42.7	29.0	16.8	11.5	71.7	28.3	100.0(224)	3.0
최종 학력								
무학	42.4	31.8	16.5	9.4	74.1	25.9	100.0(149)	3.1
초졸	48.7	30.6	14.1	6.6	79.3	20.7	100.0(296)	3.2
중졸	35.6	42.5	11.9	10.0	78.1	21.9	100.0(154)	3.0
고졸	43.3	34.1	16.1	6.5	77.4	22.6	100.0(242)	3.1
전문대졸 이상	42.4	36.3	13.2	8.1	78.7	21.3	100.0(159)	3.1
가구 형태								
노인독거	43.5	29.9	16.7	9.8	73.5	26.5	100.0(297)	3.1
노인부부 가구	44.0	35.6	13.5	6.9	79.6	20.4	100.0(533)	3.2
자녀동거 가구	42.1	37.5	14.0	6.4	79.6	20.4	100.0(157)	3.2
기타	34.2	46.1	9.5	10.3	80.2	19.8	100.0(13)	3.0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41.6	34.3	14.6	9.4	76.0	24.0	100.0(232)	3.1
아니요	44.0	34.4	14.4	7.3	78.3	21.7	100.0(768)	3.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4.4	32.3	15.4	7.9	76.7	23.3	100.0(429)	3.1
100만~200만 원 미만	40.2	37.4	14.8	7.5	77.7	22.3	100.0(224)	3.1
200만~300만 원 미만	42.1	37.1	11.3	9.5	79.2	20.8	100.0(110)	3.1
300만~400만 원 미만	45.9	23.9	24.2	6.0	69.8	30.2	100.0(50)	3.1
400만 원 이상	47.0	43.3	3.5	6.2	90.3	9.7	100.0(59)	3.3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런 편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표 2-28〉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식수(물) 섭취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전체	36.5	32.6	22.5	8.3	69.2	30.8	100.0(1000)	3.0
지역								
동 지역	38.7	31.5	22.4	7.4	70.2	29.8	100.0(695)	3.0
읍면 지역	31.5	35.1	22.7	10.6	66.7	33.3	100.0(305)	2.9
권역								
서울/수도권	42.2	27.7	23.7	6.4	69.9	30.1	100.0(436)	3.1
충청권	31.4	36.7	20.7	11.2	68.2	31.8	100.0(111)	2.9
강원권	31.6	38.5	20.3	9.6	70.1	29.9	100.0(37)	2.9
호남권	33.7	36.3	19.5	10.4	70.0	30.0	100.0(138)	2.9
영남권	31.7	36.1	23.1	9.1	67.8	32.2	100.0(278)	2.9
성별								
남성	38.8	29.3	21.4	10.4	68.1	31.9	100.0(428)	3.0
여성	34.8	35.1	23.3	6.8	69.9	30.1	100.0(572)	3.0
연령 1								
65~75세 미만	39.2	30.8	22.2	7.8	70.0	30.0	100.0(561)	3.0
75세 이상	33.1	35.0	22.9	9.1	68.0	32.0	100.0(439)	2.9
연령 2								
65~70세 미만	41.9	32.0	18.0	8.1	73.9	26.1	100.0(294)	3.1
70~75세 미만	37.7	29.0	26.4	7.0	66.7	33.3	100.0(284)	3.0
75~80세 미만	35.9	37.0	22.4	4.6	73.0	27.0	100.0(198)	3.0
80세 이상	28.5	34.3	23.6	13.7	62.7	37.3	100.0(224)	2.8
최종 학력								
무학	29.2	39.6	18.9	12.3	68.8	31.2	100.0(149)	2.9
초졸	37.3	32.1	22.0	8.5	69.5	30.5	100.0(296)	3.0
중졸	39.1	29.1	25.0	6.8	68.2	31.8	100.0(154)	3.0
고졸	35.6	32.8	25.2	6.3	68.4	31.6	100.0(242)	3.0
전문대졸 이상	40.8	30.2	20.2	8.9	70.9	29.1	100.0(159)	3.0
가구 형태								
노인독거	31.1	35.7	22.0	11.2	66.8	33.2	100.0(297)	2.9
노인부부 가구	39.0	32.3	21.9	6.8	71.3	28.7	100.0(533)	3.0
자녀동거 가구	38.0	28.3	24.9	8.8	66.3	33.7	100.0(157)	3.0
기타	38.8	30.4	30.9	0.0	69.1	30.9	100.0(13)	3.1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36.2	34.0	22.2	7.6	70.2	29.8	100.0(232)	3.0
아니요	36.6	32.2	22.6	8.6	68.8	31.2	100.0(768)	3.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5.1	33.1	23.1	8.7	68.2	31.8	100.0(429)	2.9
100만~200만 원 미만	39.3	32.0	19.4	9.3	71.3	28.7	100.0(224)	3.0
200만~300만 원 미만	39.1	32.1	23.8	5.0	71.2	28.8	100.0(110)	3.1
300만~400만 원 미만	28.0	34.7	24.9	12.4	62.7	37.3	100.0(50)	2.8
400만 원 이상	41.2	27.0	24.0	7.7	68.3	31.7	100.0(59)	3.0

주: 평점은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런 편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는 행동과 관련해서는 매우 그렇다 35.3%, 그런 편이다 38.0%, 그렇지 않다 18.3%, 전혀 그렇지 않다 8.4%로 73.3%는 손과 발, 얼굴의 위생 관리를 하였지만, 나머지 26.7%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평소보다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는 집단은 동 지역 거주 노인(76.0%), 서울/수도권(74.6%), 강원권(74.4%), 호남권(75.0%), 영남권(73.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71.8%) 보다는 여성(74.4%)이 위생 관리를 자주 하였으며, 연령대에서는 80세 미만 집단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는 비율은 중졸 75.9%, 고졸 77.4%, 전문대졸 이상 75.8%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형태에서는 독거노인을 제외한 가구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는 비율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는다는 비율이 300만~400만 원 미만 84.9%, 400만 원 이상 80.9%로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비타민C가 충분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16.5%, 그런 편이다 31.1%, 그렇지 않다 32.7%, 전혀 그렇지 않다 19.7%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그렇다 47.6%, 그렇지 않다 52.4%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비타민C가 충분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지 않는 노인 비율이 높았다. 비타민C가 충분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을 보면, 동 지역 거주 노인(50.9%), 강원권(51.5%), 75~79세 연령집단(51.0%), 고졸(53.1%)과 전문대졸 이상(54.3%), 가구 유형에서는 자녀동거 가구(52.6%)와 기타 가구(69.1%),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300만~400만 원 미만(64.4%), 400만 원 이상(52.0%) 집단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타민C가 충분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읍면 지역 거주 노인(59.8%), 호남권(55.8%)과 영남권(53.9%), 남성(54.6%), 80세 이상 연령집단(56.0%), 무학인 노인(60.6%), 독거노인(58.4%),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100만 원 미만 집단(54.1%)과 100만~200만 원 미만 집단(59.0%)으로 분석되었다.

〈표 2-29〉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손과 발, 얼굴 등의 위생 관리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전체	35.3	38.0	18.3	8.4	73.3	26.7	100.0(1000)	3.0
지역								
동 지역	37.7	38.3	16.8	7.2	76.0	24.0	100.0(695)	3.1
읍면 지역	29.9	37.2	21.7	11.2	67.1	32.9	100.0(305)	2.9
권역								
서울/수도권	41.0	33.6	17.9	7.5	74.6	25.4	100.0(436)	3.1
충청권	29.5	36.7	20.5	13.3	66.3	33.7	100.0(111)	2.8
강원권	32.6	41.8	17.7	8.0	74.4	25.6	100.0(37)	3.0
호남권	30.3	44.7	16.3	8.7	75.0	25.0	100.0(138)	3.0
영남권	31.5	41.4	19.1	8.0	73.0	27.0	100.0(278)	3.0
성별								
남성	35.8	36.0	17.4	10.9	71.8	28.2	100.0(428)	3.0
여성	35.0	39.5	18.9	6.6	74.4	25.6	100.0(572)	3.0
연령 1								
65~75세 미만	37.5	35.9	18.1	8.5	73.4	26.6	100.0(561)	3.0
75세 이상	32.5	40.7	18.4	8.4	73.2	26.8	100.0(439)	3.0
연령 2								
65~70세 미만	39.5	34.9	15.7	9.9	74.4	25.6	100.0(294)	3.0
70~75세 미만	35.5	37.7	19.6	7.2	73.3	26.7	100.0(284)	3.0
75~80세 미만	36.9	39.8	17.7	5.6	76.7	23.3	100.0(198)	3.1
80세 이상	28.0	40.8	20.5	10.7	68.8	31.2	100.0(224)	2.9
최종 학력								
무학	32.6	34.9	24.1	8.4	67.5	32.5	100.0(149)	2.9
초졸	31.8	38.5	17.8	11.9	70.2	29.8	100.0(296)	2.9
중졸	37.9	37.9	17.0	7.2	75.9	24.1	100.0(154)	3.1
고졸	38.2	39.2	16.6	6.1	77.4	22.6	100.0(242)	3.1
전문대졸 이상	37.5	38.3	17.4	6.8	75.8	24.2	100.0(159)	3.1
가구 형태								
노인독거	30.3	37.4	21.8	10.5	67.7	32.3	100.0(297)	2.9
노인부부 가구	35.9	39.0	17.2	7.9	74.9	25.1	100.0(533)	3.0
자녀동거 가구	43.3	34.7	15.2	6.8	78.0	22.0	100.0(157)	3.1
기타	27.6	50.9	18.1	3.4	78.6	21.4	100.0(13)	3.0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34.3	35.7	21.6	8.5	69.9	30.1	100.0(232)	3.0
아니요	35.6	38.7	17.3	8.4	74.3	25.7	100.0(768)	3.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4.2	38.7	20.0	7.1	72.9	27.1	100.0(429)	3.0
100만~200만 원 미만	36.8	34.5	16.3	12.4	71.3	28.7	100.0(224)	3.0
200만~300만 원 미만	26.5	47.8	15.8	9.9	74.3	25.7	100.0(110)	2.9
300만~400만 원 미만	45.6	39.4	5.2	9.8	84.9	15.1	100.0(50)	3.2
400만 원 이상	38.6	42.2	13.1	6.1	80.9	19.1	100.0(59)	3.1

주: 평점은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런 편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표 2-30〉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섭취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전체	16.5	31.1	32.7	19.7	47.6	52.4	100.0(1000)	2.4
지역								
동 지역	17.7	33.2	31.0	18.2	50.9	49.1	100.0(695)	2.5
읍면 지역	13.8	26.4	36.5	23.3	40.2	59.8	100.0(305)	2.3
권역								
서울/수도권	19.4	29.9	31.3	19.4	49.3	50.7	100.0(436)	2.5
충청권	14.4	33.2	28.4	24.0	47.6	52.4	100.0(111)	2.4
강원권	16.7	34.8	32.3	16.2	51.5	48.5	100.0(37)	2.5
호남권	14.5	29.7	35.8	19.9	44.2	55.8	100.0(138)	2.4
영남권	13.8	32.3	34.9	18.9	46.1	53.9	100.0(278)	2.4
성별								
남성	16.2	29.2	32.3	22.3	45.4	54.6	100.0(428)	2.4
여성	16.7	32.6	32.9	17.8	49.3	50.7	100.0(572)	2.5
연령 1								
65~5세 미만	18.8	28.3	35.3	17.5	47.2	52.8	100.0(561)	2.5
75세 이상	13.5	34.7	29.3	22.5	48.2	51.8	100.0(439)	2.4
연령 2								
65~70세 미만	19.7	30.1	32.8	17.3	49.8	50.2	100.0(294)	2.5
70~75세 미만	18.0	27.8	37.0	17.2	45.8	54.2	100.0(284)	2.5
75~80세 미만	16.8	34.2	31.4	17.6	51.0	49.0	100.0(198)	2.5
80세 이상	10.1	33.9	28.1	27.9	44.0	56.0	100.0(224)	2.3
최종 학력								
무학	10.2	29.1	33.5	27.1	39.4	60.6	100.0(149)	2.2
초졸	14.0	31.6	32.3	22.1	45.7	54.3	100.0(296)	2.4
중졸	14.9	28.9	33.0	23.2	43.8	56.2	100.0(154)	2.4
고졸	17.9	35.2	33.3	13.6	53.1	46.9	100.0(242)	2.6
전문대졸 이상	26.4	27.9	31.3	14.3	54.3	45.7	100.0(159)	2.7
가구 형태								
노인독거	10.8	30.8	30.2	28.2	41.6	58.4	100.0(297)	2.2
노인부부 가구	18.1	30.9	33.9	17.1	49.0	51.0	100.0(533)	2.5
자녀동거 가구	20.6	32.0	33.4	14.0	52.6	47.4	100.0(157)	2.6
기타	30.9	38.2	30.9	0.0	69.1	30.9	100.0(13)	3.0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12.7	24.0	35.8	27.6	36.7	63.3	100.0(232)	2.2
아니요	17.6	33.3	31.7	17.3	50.9	49.1	100.0(768)	2.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3.4	32.5	34.5	19.6	45.9	54.1	100.0(429)	2.4
100만~200만 원 미만	12.9	28.1	34.4	24.6	41.0	59.0	100.0(224)	2.3
200만~300만 원 미만	19.6	29.8	26.8	23.8	49.4	50.6	100.0(110)	2.5
300만~400만 원 미만	30.0	34.5	24.8	10.7	64.4	35.6	100.0(50)	2.8
400만 원 이상	24.0	28.0	35.0	13.0	52.0	48.0	100.0(59)	2.6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런 편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구입 여부와 사용 수준을 질문하였다. 응답자 가구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비율은 31.5%에 불과하였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경우는 28.2%, 그러지 않는 경우는 3.3%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가구는 읍면 지역 거주 노인이 79.3%, 호남권 81.5%, 80세 이상 노인 76.9% 등이었으며, 최종 학력에서는 무학(82.4%)과 초졸(74.7%) 노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독거노인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공기청정기가 없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공기청정기가 없는 비율을 보면, 100만 원 미만 80.5%,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68.2%,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59.5%,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5.5%, 400만 원 이상은 41.5%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가 있는 노인 중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동 지역(32.5%), 서울/수도권(34.3%), 충청권(32.4%) 거주 노인이었으며, 연령대로는 65~69세(33.0%), 최종 학력으로는 고졸(37.8%)과 전문대졸 이상(36.0%)이었다. 가구 형태에서는 자녀동거 가구가 33.0%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300만~400만 원 미만(44.2%)과 400만 원 이상(57.2%)의 공기청정기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가용 유무와 대중교통 이용 수준을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자가용이 있는 비율은 46.3%였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16.4%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 3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의 특성은 지역별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동 지역이 19.6%인 반면 읍면 지역은 9.0%로 나타났으며, 서울/수도권이 23.2%로 타 권

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2-31〉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해당 (공기 청정기 없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전체	21.2	7.1	2.1	1.2	68.5	28.2	3.3	100.0(1000)	3.5
지역									
동 지역	25.2	7.3	2.5	1.3	63.8	32.5	3.8	100.0(695)	3.6
읍면 지역	12.0	6.5	1.1	1.0	79.3	18.6	2.1	100.0(305)	3.4
권역									
서울/수도권	27.8	6.5	3.0	1.0	61.7	34.3	4.0	100.0(436)	3.6
충청권	25.4	7.0	3.2	0.5	63.9	32.4	3.7	100.0(111)	3.6
강원권	15.5	6.3	3.2	1.2	73.9	21.7	4.3	100.0(37)	3.4
호남권	11.2	6.1	1.2	0.0	81.5	17.3	1.2	100.0(138)	3.5
영남권	14.7	8.6	0.4	2.4	73.9	23.3	2.9	100.0(278)	3.4
성별									
남성	21.4	6.9	2.4	1.1	68.2	28.3	3.5	100.0(428)	3.5
여성	21.0	7.1	1.8	1.3	68.7	28.1	3.1	100.0(572)	3.5
연령 1									
65~75세 미만	23.0	8.1	2.4	1.6	64.9	31.1	4.0	100.0(561)	3.5
75세 이상	18.9	5.7	1.7	0.7	73.1	24.6	2.3	100.0(439)	3.6
연령 2									
65~70세 미만	24.1	8.9	2.8	1.3	62.9	33.0	4.1	100.0(294)	3.5
70~75세 미만	21.0	8.1	1.8	1.9	67.3	29.1	3.7	100.0(284)	3.5
75~80세 미만	22.6	5.7	1.6	1.2	69.0	28.2	2.8	100.0(198)	3.6
80세 이상	16.3	4.6	1.9	0.3	76.9	20.9	2.1	100.0(224)	3.6
최종 학력									
무학	12.7	3.1	1.4	0.4	82.4	15.8	1.8	100.0(149)	3.6
초졸	17.9	5.0	2.0	0.5	74.7	22.9	2.5	100.0(296)	3.6
중졸	18.3	9.3	0.3	3.4	68.7	27.6	3.7	100.0(154)	3.4
고졸	28.0	9.8	1.4	0.5	60.3	37.8	1.9	100.0(242)	3.6
전문대졸 이상	27.5	8.4	5.5	2.3	56.3	36.0	7.8	100.0(159)	3.4
가구 형태									
노인독거	16.4	6.6	1.2	2.3	73.5	23.0	3.5	100.0(297)	3.4
노인부부 가구	22.1	7.7	2.0	0.7	67.5	29.7	2.8	100.0(533)	3.6
자녀동거 가구	26.8	6.2	3.4	0.8	62.9	33.0	4.1	100.0(157)	3.6



구분	매우 그렇다 ①	그런 편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④	비해당 (공기 청정기 없음)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계(수)	평점
기타	26.1	3.4	7.8	0.0	62.7	29.5	7.8	100.0(13)	3.5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24.9	7.3	0.7	0.5	66.6	32.2	1.2	100.0(232)	3.7
아니요	20.0	7.0	2.5	1.4	69.1	27.0	3.9	100.0(768)	3.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1.6	5.1	1.3	1.5	80.5	16.7	2.8	100.0(429)	3.4
100만~200만 원 미만	22.0	8.0	0.8	1.1	68.2	30.0	1.8	100.0(224)	3.6
200만~300만 원 미만	29.8	7.6	2.3	0.9	59.5	37.3	3.1	100.0(110)	3.6
300만~400만 원 미만	32.9	11.3	7.0	3.3	45.5	44.2	10.3	100.0(50)	3.4
400만 원 이상	53.7	3.5	1.3	0.0	41.5	57.2	1.3	100.0(59)	3.9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런 편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평점은 '비해당(공기청정기 없음)' 응답자를 제외하고 산출함.

〈표 2-32〉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그렇다 ①	그런 편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④	비해당 (자가 용 없음)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계(수)	평점
전체	5.7	10.6	14.3	15.6	53.7	16.4	30.0	100.0(1000)	2.1
지역									
동 지역	6.6	13.0	15.9	14.6	50.0	19.6	30.5	100.0(695)	2.2
읍면 지역	3.8	5.3	10.8	18.1	62.1	9.0	28.9	100.0(305)	1.9
권역									
서울/수도권	8.6	14.6	16.2	13.7	47.0	23.2	29.9	100.0(436)	2.3
충청권	4.2	13.1	13.9	19.2	49.5	17.3	33.2	100.0(111)	2.0
강원권	2.4	6.5	13.1	24.7	53.3	8.9	37.8	100.0(37)	1.7
호남권	4.0	5.4	13.8	14.4	62.4	9.4	28.2	100.0(138)	2.0
영남권	3.2	6.5	12.0	16.7	61.5	9.7	28.8	100.0(278)	1.9
성별									
남성	8.0	10.9	16.4	23.2	41.4	19.0	39.6	100.0(428)	2.1
여성	4.0	10.4	12.8	10.0	62.8	14.4	22.8	100.0(572)	2.2
연령 1									
65~75세 미만	8.0	12.9	18.8	19.2	41.2	20.8	38.0	100.0(561)	2.2
75세 이상	2.9	7.8	8.7	11.1	69.5	10.6	19.8	100.0(439)	2.1

6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구분	매우 그렇다 ①	그런 편이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④	비해당 (자가 응 없음)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계(수)	평점
<b>연령 2</b>									
65~70세 미만	10.7	13.4	18.6	23.2	34.1	24.1	41.8	100.0(294)	2.2
70~75세 미만	5.2	11.6	19.6	13.9	49.7	16.8	33.5	100.0(284)	2.2
75~80세 미만	3.4	12.5	9.6	15.0	59.5	15.9	24.6	100.0(198)	2.1
80세 이상	1.9	4.1	6.3	8.5	79.2	6.0	14.8	100.0(224)	2.0
<b>최종 학력</b>									
무학	0.9	7.4	6.6	7.0	78.1	8.3	13.6	100.0(149)	2.1
초졸	3.5	6.4	11.7	13.1	65.3	10.0	24.8	100.0(296)	2.0
중졸	3.9	5.8	16.6	15.3	58.4	9.7	31.9	100.0(154)	2.0
고졸	6.0	18.0	18.0	20.0	38.1	24.0	38.0	100.0(242)	2.2
전문대졸 이상	15.8	14.9	18.8	22.2	28.2	30.7	41.0	100.0(159)	2.3
<b>가구 형태</b>									
노인독거	4.8	3.2	9.3	7.3	75.4	8.0	16.6	100.0(297)	2.2
노인부부 가구	5.2	15.6	15.8	18.4	45.0	20.8	34.2	100.0(533)	2.1
자녀동거 가구	8.4	8.4	19.5	20.0	43.6	16.8	39.6	100.0(157)	2.1
기타	18.3	0.0	7.8	42.9	31.1	18.3	50.6	100.0(13)	1.9
<b>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b>									
예	6.1	15.0	15.1	11.8	52.0	21.1	26.9	100.0(232)	2.3
아니요	5.6	9.3	14.1	16.8	54.2	14.9	30.9	100.0(768)	2.1
<b>월평균 가구소득</b>									
100만 원 미만	3.0	5.6	8.2	8.0	75.2	8.6	16.1	100.0(429)	2.2
100만~200만 원 미만	6.7	13.3	15.4	18.8	45.9	20.0	34.2	100.0(224)	2.1
200만~300만 원 미만	4.3	16.8	23.0	27.5	28.4	21.1	50.5	100.0(110)	2.0
300만~400만 원 미만	15.0	15.3	26.5	24.0	19.2	30.3	50.5	100.0(50)	2.3
400만 원 이상	8.3	22.7	27.2	31.4	10.4	31.0	58.6	100.0(59)	2.1

주: 평균은 '매우 그렇다'를 4점, '그런 편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평점은 '비해당(공기청정기 없음)' 응답자 제외하고 산출함.

#### 4.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5%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나머지 74.5%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 종류를 보

면, 기관지염,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이 1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7.2%,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6.9%, 피부 질환 3.9%, 두통 1.4% 등으로 응답하였다. 호흡기 질환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높은 집단을 보면, 서울/수도권 18.3%, 여성 16.4%, 65~69세 18.3%, 전문대졸 이상 22.2% 및 중졸 15.9%, 자녀동거 가구 22.7%, 평소 호흡기 질환이 있는 집단 30.0% 등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각막염 질환 비율이 높은 집단은 서울/수도권(9.2%)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300만 원(11.4%)인 가구로 분석되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경험한 응답자는 충청권 10.1%, 65~69세 12.3%, 고졸 9.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0.9%가 있다, 59.1%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미세먼지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특징을 보면, 읍면 지역 거주 노인이 53.2%로 동 지역 거주 노인 36.1%보다 높았으며, 영남권에 거주하는 노인이 50.9%로 타 권역 거주 노인보다 높았다.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종 학력에서는 무학인 노인의 병의원 이용률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46.5%, 전문대졸 이상 3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기타 가구 100.0%, 자녀동거 가구 46.6%, 노인독거 41.5%, 노인부부 가구 37.8% 순이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200만~300만 원 미만 58.6%, 400만 원 이상 49.3%, 100만 원 미만 42.4% 등으로 나타났다.

〈표 2-3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발생 여부

(단위: 명, %)

구분	기관지염,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	알레르 기성 결막염, 각막염	알레르 기성 비염	두통	심혈관 질환 (협심증, 뇌졸중)	피부 질환	기타 질환	경험한 적 없음	계(수)
전체	14.5	6.9	7.2	1.4	1.5	3.9	0.4	74.5	100.0(1000)
지역									
동 지역	14.5	7.5	6.8	1.4	1.3	3.9	0.4	73.6	100.0(695)
읍면 지역	14.3	5.5	8.1	1.3	2.0	3.9	0.3	76.6	100.0(305)
권역									
서울/수도권	18.3	9.2	8.6	1.9	2.0	4.5	0.2	68.2	100.0(436)
충청권	13.7	7.8	10.1	3.5	3.8	6.4	0.0	75.5	100.0(111)
강원권	14.7	3.9	5.2	0.0	0.8	2.0	0.4	76.5	100.0(37)
호남권	11.3	6.0	2.7	0.0	0.0	3.8	1.2	79.9	100.0(138)
영남권	10.2	3.7	6.3	0.6	0.7	2.2	0.4	81.0	100.0(278)
성별									
남성	11.9	4.3	8.8	0.7	2.1	4.0	0.5	76.8	100.0(428)
여성	16.4	8.8	6.0	1.9	1.1	3.8	0.4	72.8	100.0(572)
연령 1									
65~75세 미만	13.6	8.2	8.1	1.2	1.4	3.7	0.4	73.5	100.0(561)
75세 이상	15.5	5.2	6.1	1.5	1.8	4.1	0.5	75.8	100.0(439)
연령 2									
65~70세 미만	18.3	7.2	12.3	0.7	1.8	4.8	0.0	67.1	100.0(294)
70~75세 미만	10.4	9.2	4.4	1.7	1.4	3.5	0.7	78.1	100.0(284)
75~80세 미만	16.9	5.5	7.0	1.7	1.0	5.4	0.5	75.6	100.0(198)
80세 이상	12.4	4.6	4.3	1.5	1.8	1.8	0.4	78.8	100.0(224)
최종 학력									
무학	9.4	8.7	3.5	1.9	0.6	2.6	0.0	83.0	100.0(149)
초졸	12.3	5.8	7.2	1.3	1.3	4.4	1.0	76.0	100.0(296)
중졸	15.9	6.7	6.8	0.6	2.8	3.0	0.0	76.3	100.0(154)
고졸	14.3	6.7	9.0	1.1	2.3	3.2	0.1	73.5	100.0(242)
전문대졸 이상	22.2	7.5	8.5	2.2	0.4	6.1	0.6	63.6	100.0(159)
가구 형태									
노인독거	12.4	5.9	4.8	1.7	1.7	3.8	0.7	76.2	100.0(297)
노인부부 가구	13.2	6.8	8.9	1.2	1.4	3.0	0.3	74.8	100.0(533)
자녀동거 가구	22.7	8.7	5.7	0.5	1.8	6.4	0.0	69.3	100.0(157)
기타	13.7	10.3	10.3	10.3	0.0	10.3	0.0	86.3	100.0(13)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30.0	10.4	9.9	2.0	2.9	6.1	0.0	57.8	100.0(232)
아니요	9.8	5.8	6.4	1.2	1.1	3.2	0.5	79.6	100.0(76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3.3	5.7	7.1	1.5	2.2	4.4	0.7	75.7	100.0(429)
100만~200만 원 미만	15.7	6.0	8.6	1.5	1.5	2.8	0.1	73.7	100.0(224)
200만~300만 원 미만	9.7	11.4	6.4	1.5	2.4	3.9	0.0	77.3	100.0(110)
300만~400만 원 미만	15.9	2.6	8.8	2.0	0.0	2.6	0.0	73.1	100.0(50)
400만 원 이상	12.1	3.3	4.2	0.0	0.0	2.7	0.0	80.2	100.0(59)

〈표 2-34〉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병원 진료 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요	계(수)
전체	40.9	59.1	100.0(255)
지역			
동 지역	36.1	63.9	100.0(183)
읍면 지역	53.2	46.8	100.0(71)
권역			
서울/수도권	38.0	62.0	100.0(139)
충청권	40.4	59.6	100.0(27)
강원권	43.8	56.2	100.0(9)
호남권	36.2	63.8	100.0(28)
영남권	50.9	49.1	100.0(53)
성별			
남성	49.1	50.9	100.0(99)
여성	35.7	64.3	100.0(156)
연령 1			
65~75세 미만	41.1	58.9	100.0(149)
75세 이상	40.7	59.3	100.0(106)
연령 2			
65~70세 미만	43.3	56.7	100.0(97)
70~75세 미만	41.9	58.1	100.0(62)
75~80세 미만	35.0	65.0	100.0(48)
80세 이상	40.8	59.2	100.0(48)
최종 학력			
무학	61.3	38.7	100.0(25)
초졸	36.1	63.9	100.0(71)
중졸	29.2	70.8	100.0(37)
고졸	46.5	53.5	100.0(64)
전문대졸 이상	39.0	61.0	100.0(58)
가구 형태			
노인독거	41.5	58.5	100.0(71)
노인부부 가구	37.8	62.2	100.0(134)
자녀동거 가구	46.6	53.4	100.0(48)
기타	100.0	0.0	100.0(2)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44.6	55.4	100.0(98)
아니요	38.6	61.4	100.0(15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42.4	57.6	100.0(104)
100만~200만 원 미만	41.3	58.7	100.0(59)
200만~300만 원 미만	58.6	41.4	100.0(25)
300만~400만 원 미만	29.3	70.7	100.0(14)
400만 원 이상	49.3	50.7	100.0(12)

주: 질문 4의 '경험한 적 없음' 응답자에게 질문하지 않았음.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관련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22.3%는 관련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역(18.4%)보다는 읍면 지역(31.3%) 노인이 미세먼지 대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19.1%)보다는 남성(26.6%) 노인이, 연령대가 높을수록(70~79세 20.2%, 80세 이상 28.9%),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100만 원 미만 28.0%, 100만~200만 원 미만 21.1%)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황사/미세먼지 마스크로 응답자의 67.5%가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기 정화 식물 25.7%, 실내용 공기청정기 21.7%, 손소독제/손세정제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제품은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에서 사용률이 높았으며, 고연령 노인보다는 저연령 노인에서 사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육 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서 미세먼지 대처 제품 사용률이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관련 상품 사용률이 높았다.

미세먼지나 황사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큰 불편을 느낀다 29.3%, 어느 정도 불편을 느낀다 34.2%,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27.4%,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9.1%로 나타났으며, 불편을 느낀다(매우 큰 불편을 느낀다+어느 정도 불편을 느낀다)가 전체 응답 노인의 63.5%로 나타났다. 불편을 느끼는 응답 노인의 비율을 보면,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66.2%) 거주 노인이 높았으며, 서울/수도권(69.4%), 충청권(67.6%)이 타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남성(61.3%)보다는 여성(65.0%)이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65~70세 미만(73.5%)의 불편함이 높았으며, 최종 학력에서는 고졸 이상(고졸 63.6%, 전문대졸 이상 77.2%)의 불편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200만~300만 원 미만

71.5%, 300만~400만 원 미만 69.6%, 100만~200만 원 미만 68.7%, 400만 원 이상 65.6%로 나타났다.

〈표 2-35〉 미세먼지 대처 물품별 사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	실내용 (차량용) 공기청 정기	손소독 제/손세 정정	미세먼 지 전용 세탁용 폼	공기 정화 식물 (화초)	기타	사용한 적 없음	계(수)
전체	67.5	21.7	20.1	1.2	25.7	0.0	22.3	100.0(1000)
지역								
동 지역	70.6	26.2	24.1	1.6	28.8	0.0	18.4	100.0(695)
읍면 지역	60.3	11.6	10.9	0.2	18.7	0.0	31.3	100.0(305)
권역								
서울/수도권	70.5	29.9	26.3	1.8	30.6	0.0	18.5	100.0(436)
충청권	65.6	23.4	19.3	0.7	23.1	0.0	25.4	100.0(111)
강원권	69.2	15.0	19.3	1.3	26.6	0.0	19.0	100.0(37)
호남권	66.3	11.0	14.6	0.4	19.7	0.0	27.0	100.0(138)
영남권	63.9	14.5	13.5	0.8	21.9	0.0	25.2	100.0(278)
성별								
남성	64.0	20.9	14.2	1.6	24.6	0.0	26.6	100.0(428)
여성	70.1	22.3	24.5	0.8	26.5	0.0	19.1	100.0(572)
연령 1								
65~75세 미만	68.6	25.0	21.7	0.9	29.6	0.0	20.5	100.0(561)
75세 이상	66.1	17.6	18.0	1.5	20.7	0.0	24.6	100.0(439)
연령 2								
65~70세 미만	69.1	29.4	24.5	1.4	31.9	0.0	17.0	100.0(294)
70~75세 미만	68.1	20.8	21.1	0.5	27.9	0.0	24.2	100.0(284)
75~80세 미만	67.1	21.5	21.4	3.0	26.7	0.0	20.2	100.0(198)
80세 이상	64.8	13.2	11.7	0.2	14.0	0.0	28.9	100.0(224)
최종 학력								
무학	64.9	6.2	7.9	0.0	17.0	0.0	28.1	100.0(149)
초졸	65.2	13.3	15.7	0.6	16.7	0.0	26.7	100.0(296)
중졸	68.0	20.4	16.6	1.1	24.4	0.0	20.0	100.0(154)
고졸	68.3	34.3	29.5	2.0	36.9	0.0	20.3	100.0(242)
전문대졸 이상	72.3	34.3	28.8	2.1	34.8	0.0	14.2	100.0(159)
가구 형태								
노인독거	66.4	12.9	16.8	0.0	17.6	0.0	24.9	100.0(297)
노인부부 가구	69.4	23.4	22.0	2.2	28.0	0.0	20.4	100.0(533)
자녀동거 가구	64.6	32.9	21.4	0.0	33.9	0.0	23.0	100.0(157)
기타	45.7	21.4	0.0	0.0	15.9	0.0	34.2	100.0(13)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80.6	15.3	15.1	0.6	20.0	0.0	13.3	100.0(232)
아니요	63.5	23.7	21.6	1.4	27.4	0.0	25.0	100.0(768)

7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구분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실내용(차량용) 공기청정기	손소독제/손세정제	미세먼지 전용 세탁용품	공기정화식물(화초)	기타	사용한적 없음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62.7	11.2	14.7	1.3	19.9	0.0	28.0	100.0(429)
100만~200만 원 미만	68.3	20.3	16.4	0.8	17.7	0.0	21.1	100.0(224)
200만~300만 원 미만	79.1	25.4	28.2	1.1	37.3	0.0	12.3	100.0(110)
300만~400만 원 미만	67.3	47.7	22.7	0.0	49.1	0.0	12.2	100.0(50)
400만 원 이상	73.7	54.9	41.4	2.9	52.1	0.0	8.0	100.0(59)

〈표 2-36〉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노인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큰 불편을 느낀다	어느 정도 불편을 느낀다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불편을 느낀다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전체	29.3	34.2	27.4	9.1	63.4	36.6	100.0(1000)	2.8
지역								
동 지역	30.4	35.8	25.8	8.0	66.2	33.8	100.0(695)	2.9
읍면 지역	26.7	30.4	31.1	11.9	57.1	42.9	100.0(305)	2.7
권역								
서울/수도권	34.7	34.8	22.5	8.0	69.4	30.6	100.0(436)	3.0
충청권	31.6	36.0	26.6	5.8	67.6	32.4	100.0(111)	2.9
강원권	21.1	28.9	34.1	15.9	50.0	50.0	100.0(37)	2.6
호남권	24.2	27.9	36.2	11.7	52.1	47.9	100.0(138)	2.6
영남권	23.5	36.3	30.2	10.1	59.7	40.3	100.0(278)	2.7
성별								
남성	27.4	33.8	26.8	12.0	61.3	38.7	100.0(428)	2.8
여성	30.6	34.4	27.9	7.0	65.0	35.0	100.0(572)	2.9
연령 1								
65~75세 미만	33.6	36.0	23.3	7.1	69.6	30.4	100.0(561)	3.0
75세 이상	23.8	31.7	32.7	11.7	55.5	44.5	100.0(439)	2.7
연령 2								
65~70세 미만	36.0	37.5	20.5	6.0	73.5	26.5	100.0(294)	3.0
70~75세 미만	32.6	34.2	25.4	7.8	66.8	33.2	100.0(284)	2.9
75~80세 미만	23.3	35.7	31.8	9.2	59.0	41.0	100.0(198)	2.7
80세 이상	21.4	28.4	35.3	14.9	49.8	50.2	100.0(224)	2.6
최종 학력								
무학	21.8	31.5	37.6	9.0	53.3	46.7	100.0(149)	2.7
초졸	29.6	34.3	27.7	8.5	63.8	36.2	100.0(296)	2.8
중졸	22.7	35.3	33.1	8.9	58.0	42.0	100.0(154)	2.7
고졸	29.4	34.2	25.3	11.1	63.6	36.4	100.0(242)	2.8
전문대졸 이상	41.9	35.3	15.0	7.8	77.2	22.8	100.0(159)	3.1



구분	매우 큰 불편을 느낀다	어느 정도 불편을 느낀다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불편을 느낀다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가구 형태								
노인독거	26.3	30.5	32.5	10.6	56.9	43.1	100.0(297)	2.7
노인부부 가구	28.4	36.7	26.3	8.6	65.1	34.9	100.0(533)	2.8
자녀동거 가구	36.3	32.4	22.5	8.8	68.7	31.3	100.0(157)	3.0
기타	48.2	34.3	17.4	0.0	82.6	17.4	100.0(13)	3.3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38.7	40.1	16.0	5.2	78.8	21.2	100.0(232)	3.1
아니요	26.4	32.4	30.9	10.3	58.8	41.2	100.0(768)	2.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6.5	30.9	31.4	11.2	57.4	42.6	100.0(429)	2.7
100만~200만 원 미만	25.1	43.5	23.6	7.7	68.7	31.3	100.0(224)	2.9
200만~300만 원 미만	34.0	37.5	23.2	5.3	71.5	28.5	100.0(110)	3.0
300만~400만 원 미만	32.9	36.6	22.1	8.3	69.6	30.4	100.0(50)	2.9
400만 원 이상	41.3	24.4	23.8	10.6	65.6	34.4	100.0(59)	3.0

주: 평균은 '매우 큰 불편을 느낀다'를 4점, '어느 정도 불편을 느낀다'를 3점,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를 2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미세먼지, 황사 등이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30.3%,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36.6%,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4.8%,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3%로 나타났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6.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33.1%로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배가량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자의 인식은 지역별이나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권역에서는 서울/수도권 거주 노인이 타 지역 거주 노인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연령에서는 65~70세 미만 노인집단(74.9%), 전문대졸 이상(75.9%),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300만~400만 원

미만(77.9%), 400만 원 이상(73.7%), 100만~200만 원 미만(72.0%) 등에서 미세먼지 등이 노인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자주 그렇다 17.8%, 종종 그렇다 32.8%, 별로 그렇지 않다 32.3%, 전혀 그렇지 않다 17.1%로 나타났으며, 그렇다(자주 그렇다+ 종종 그렇다)는 50.6%,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49.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나 황사 등으로 일상 생활에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는 응답자 특징을 보면, 서울/수도권 57.5%, 여성 52.3%, 65~69세 61.6%, 전문대졸 이상자 63.1%,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400만 원 미만64.0% 및 400만 원 이상 63.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7> 미세먼지, 황사 등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수)	평점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전체	30.3	36.6	24.8	8.3	66.9	33.1	100.0(1000)	2.9
지역								
동 지역	31.6	38.2	22.7	7.5	69.8	30.2	100.0(695)	2.9
읍면 지역	27.3	33.1	29.5	10.2	60.4	39.6	100.0(305)	2.8
권역								
서울/수도권	37.9	33.7	21.6	6.8	71.7	28.3	100.0(436)	3.0
충청권	32.3	32.2	27.8	7.8	64.5	35.5	100.0(111)	2.9
강원권	23.0	40.7	26.2	10.0	63.8	36.2	100.0(37)	2.8
호남권	20.8	39.2	29.5	10.6	60.0	40.0	100.0(138)	2.7
영남권	23.1	41.2	26.0	9.7	64.3	35.7	100.0(278)	2.8
성별								
남성	30.7	34.4	24.6	10.3	65.1	34.9	100.0(428)	2.9
여성	29.9	38.3	24.9	6.9	68.2	31.8	100.0(572)	2.9

구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①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②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①+②)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④)	계(수)	평점
연령 1								
65~75세 미만	31.7	39.4	22.2	6.6	71.1	28.9	100.0(561)	3.0
75세 이상	28.4	33.1	28.0	10.5	61.5	38.5	100.0(439)	2.8
연령 2								
65~70세 미만	34.3	40.6	18.8	6.3	74.9	25.1	100.0(294)	3.0
70~75세 미만	30.8	36.5	25.7	7.1	67.2	32.8	100.0(284)	2.9
75~80세 미만	30.1	33.6	25.8	10.5	63.7	36.3	100.0(198)	2.8
80세 이상	24.5	34.4	30.5	10.7	58.9	41.1	100.0(224)	2.7
최종 학력								
무학	25.0	35.9	29.5	9.6	61.0	39.0	100.0(149)	2.8
초졸	27.0	39.7	26.2	7.1	66.7	33.3	100.0(296)	2.9
중졸	30.5	38.2	25.1	6.2	68.7	31.3	100.0(154)	2.9
고졸	29.5	34.3	24.5	11.8	63.7	36.3	100.0(242)	2.8
전문대졸 이상	42.1	33.8	17.7	6.3	75.9	24.1	100.0(159)	3.1
가구 형태								
노인독거	28.7	36.0	26.5	8.8	64.7	35.3	100.0(297)	2.8
노인부부 가구	30.0	38.3	24.4	7.3	68.3	31.7	100.0(533)	2.9
자녀동거 가구	33.4	31.5	23.3	11.7	65.0	35.0	100.0(157)	2.9
기타	37.9	44.6	17.4	0.0	82.6	17.4	100.0(13)	3.2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39.2	49.2	9.6	2.1	88.3	11.7	100.0(232)	3.3
아니요	27.6	32.8	29.4	10.2	60.4	39.6	100.0(768)	2.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6.4	35.2	28.4	10.1	61.6	38.4	100.0(429)	2.8
100만~200만 원 미만	30.7	41.2	22.4	5.6	72.0	28.0	100.0(224)	3.0
200만~300만 원 미만	28.4	41.3	22.6	7.8	69.6	30.4	100.0(110)	2.9
300만~400만 원 미만	35.1	42.8	13.6	8.4	77.9	22.1	100.0(50)	3.0
400만 원 이상	48.6	25.1	20.0	6.2	73.7	26.3	100.0(59)	3.2

주: 평균은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를 4점,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를 3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2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7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표 2-38〉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불안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자주 그렇다 ①	종종 그렇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전혀 그런 적이 없다 ④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계(수)	평점
전체	17.8	32.8	32.3	17.1	50.6	49.4	100.0(1000)	2.5
지역								
동 지역	18.8	33.6	31.6	16.1	52.4	47.6	100.0(695)	2.6
읍면 지역	15.7	30.9	33.9	19.5	46.6	53.4	100.0(305)	2.4
권역								
서울/수도권	23.8	33.8	26.3	16.1	57.5	42.5	100.0(436)	2.7
충청권	18.2	33.6	27.2	21.0	51.9	48.1	100.0(111)	2.5
강원권	8.9	34.0	31.8	25.2	42.9	57.1	100.0(37)	2.3
호남권	14.5	27.4	40.0	18.2	41.8	58.2	100.0(138)	2.4
영남권	11.2	33.4	39.8	15.5	44.6	55.4	100.0(278)	2.4
성별								
남성	18.1	30.3	32.5	19.2	48.4	51.6	100.0(428)	2.5
여성	17.7	34.6	32.1	15.6	52.3	47.7	100.0(572)	2.5
연령 1								
65~75세 미만	20.3	35.9	30.7	13.1	56.2	43.8	100.0(561)	2.6
75세 이상	14.7	28.8	34.3	22.2	43.4	56.6	100.0(439)	2.4
연령 2								
65~70세 미만	22.7	38.9	26.4	12.0	61.6	38.4	100.0(294)	2.7
70~75세 미만	19.0	33.6	33.2	14.2	52.6	47.4	100.0(284)	2.6
75~80세 미만	17.4	28.6	31.0	23.0	46.0	54.0	100.0(198)	2.4
80세 이상	10.3	27.3	39.9	22.4	37.7	62.3	100.0(224)	2.3
최종 학력								
무학	15.9	26.6	37.8	19.6	42.6	57.4	100.0(149)	2.4
초졸	13.1	31.1	38.2	17.5	44.3	55.7	100.0(296)	2.4
중졸	14.0	36.0	31.9	18.0	50.0	50.0	100.0(154)	2.5
고졸	19.1	36.4	27.3	17.3	55.5	44.5	100.0(242)	2.6
전문대졸 이상	30.2	32.9	24.0	12.9	63.1	36.9	100.0(159)	2.8
가구 형태								
노인독거	14.1	31.7	34.4	19.8	45.8	54.2	100.0(297)	2.4
노인부부 가구	17.8	34.9	32.3	15.0	52.7	47.3	100.0(533)	2.6
자녀동거 가구	23.2	29.3	26.8	20.8	52.4	47.6	100.0(157)	2.5
기타	40.3	11.2	48.4	0.0	51.6	48.4	100.0(13)	2.9
평소 호흡기 질환 여부								
예	24.1	39.9	26.2	9.8	64.0	36.0	100.0(232)	2.8
아니요	15.9	30.6	34.1	19.3	46.6	53.4	100.0(768)	2.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2.5	32.9	35.5	19.1	45.4	54.6	100.0(429)	2.4
100만~200만 원 미만	18.5	35.8	32.4	13.2	54.3	45.7	100.0(224)	2.6
200만~300만 원 미만	15.2	37.1	33.5	14.2	52.3	47.7	100.0(110)	2.5
300만~400만 원 미만	19.1	45.0	23.6	12.4	64.0	36.0	100.0(50)	2.7
400만 원 이상	39.0	24.4	13.3	23.3	63.4	36.6	100.0(59)	2.8

주: 평점은 '매우 자주 그렇다'를 4점, '종종 그렇다'를 3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런 적이 없다'를 1점으로 계산한 평점의 평균을 말함.

## 제3절 소결

### 1. 미세먼지와 아동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보호자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거의 매일 확인한다는 응답이 75.6%였고, 일주일에 1~4회 이상 확인한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93.3%가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미세먼지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가구에서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서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관심이 높았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대처 방법의 사용에서도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 거주하는 부모가 아동의 실외 활동이나 외출 대응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남부 지역보다 미세먼지나 대기 질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쁜 중북부 지역의 부모가 미세먼지를 좀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부모 가구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자주 확인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한부모 가구와 전문대졸, 고졸 이하 저학력의 부모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 확인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스마트폰의 이용도가 높은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TV 또는 라디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계층 간에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 빈도와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미세먼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졸 이상의 부모가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대처 방법에서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인식, 대처 측면에서 사회계층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는 아동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약 10명 중의 4명 이상은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 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각·결막염 등 안구 질환 등의 건강상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 중에서 87%는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 공식적·비공식적 야외활동을 참여하지 않은 경험이 각각 30.9%, 47.1%로 나타나 야외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놀이 및 문화·여가 활동과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세먼지 대처 방법은 주로 아동의 성별, 연령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아동이거나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실내 환기를 자제하는 등 주로 실내에서의 대처법을 더 많이 이용하고, 미세먼지는 남자 아동의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외출 시 마스크나 보호안경의 착용, 대중교통 이용,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게 하는 등 야외활동 전후에 할 수 있는 대처법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스스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세먼지 대처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연령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야외활동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미세먼지와 노인

만 65세 이상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서울/수도권 거주 노인, 동 지역 거주 노인, 여성보다는 남성, 75세 미만, 최종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확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읍면 지역 거주 노인, 여성, 7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최종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소에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세먼지 확인 방법으로는 TV나 라디오가 9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도 89.7%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시·군·구청이나 환경부의 문자(61.1%),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보 수집(58.9%),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45.4%) 등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대처 방법은 창문을 닫고 실내 환기 자제 77.8%, 자주 씻음 73.3%, 물을 자주 마심 69.2%, 마스크 착용 63.5%,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 57.7%, 과일이나 야채 섭취 47.6% 등의 순이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은 66.8%였으며, 나머지 33.1%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제품 사용 경험은 황사/미세먼지 마스크가 67.5%로 가장 많았으며, 공기 정화 식물 25.7%, 공기청정기 21.7%, 손세정제 20.1% 등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22.3%는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별도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세먼지가 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노인이 전체의 25.5%였으며, 주로 호흡기 질환(14.5%), 알레르기성 비염(7.2%), 안과 질환 6.9% 등이었다.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응답자는 63.4%였으며, 응답자의 66.9%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노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한다는 응답자는 50.6%로 분석되었다.





제 3 장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제2절 결혼 및 출산

제3절 자녀 양육 및 돌봄

제4절 소결



# 3

##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 <<

###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본 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실시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결혼 생활 경험, 출산 경험, 양육 경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분석에 있어 미혼과 기혼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특성인 성별, 연령, 주거 지역, 교육 정도, 자녀 수,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차이를 검토한다. 분석 내용은 크게 결혼 및 출산 관련 영역과 자녀 양육 및 돌봄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조사는 미혼과 기혼을 포함해 만 19~4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9년 11월 2일~11월 24일에 실시되었으며 조사 표본은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 성별, 연령에 따른 3차 층화를 거쳐 설계하였다. 권역 층화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를 7개 권역(① 서울, ② 경기, 인천, ③ 대전, 충청, 충북, 세종, ④ 광주, 전남, 전북, ⑤ 대구, 경북, ⑥ 부산, 울산, 경남, ⑦ 강원, 제주)으로 분류하고 연령은 19~29세, 30~39세, 40~49세로 분류하였다. 모집단은 2019년 9월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에 비례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2000명

이고, 이 중 여성이 48.5%, 남성이 51.5%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2.5%, 30대가 31.0%, 40대가 36.6%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 53.0%, 수도권 외 광역시가 19.0%,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28.0%였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74.5%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20.1%, 대학원 이상은 5.4%였다. 혼인 상태는 미혼이 47.3%, 기혼은 51.5%, 이혼 및 사별은 1.2%였다. 분석에서는 이혼 및 사별은 기혼에 포함해 분석한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취업한 경우가 68.4%,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31.6%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미만인 23.8%,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인 38.6%,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인 24.7%, 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2.9%로 나타났다.

〈표 3-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항목	비율(%)	(명)
전체	100.0	(2000)
성별		
여성	48.5	(970)
남성	51.5	(1030)
연령		
19~29세	32.5	(649)
30~39세	31.0	(620)
40~49세	36.6	(731)
지역		
수도권	53.0	(1060)
수도권 외 광역시	19.0	(379)
그 외 지역	28.0	(56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0.1	(403)
대졸(대재 포함)	74.5	(1489)
대학원 이상	5.4	(108)
혼인 상태		
미혼	47.3	(947)
기혼	51.5	(1029)
이혼 및 사별	1.2	(24)

항목	비율(%)	(명)
경제활동		
취업	68.4	(1368)
비취업	31.6	(63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3.8	(477)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8.6	(77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4.7	(493)
700만 원 이상	12.9	(258)

주: 가중치 적용

## 제2절 결혼 및 출산

본 절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성인 남녀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본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이유와 함께 결혼의 이점과 단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결혼제도가 평등한지, 장래 자녀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본다. 또한, 혼인신고는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아보고, 신혼부부를 언제까지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임신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다.

### 1. 결혼

먼저,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다. 미혼의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주거 불안정으로 31.0%로 나타났다. 그다음 높게 나타난 것은 불안정한 일자리(27.6%)이며,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26.2%)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적절한 결혼상대 부재가 8.1%, 바쁜 업무가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주거 불안정이 3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남성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28.8%로 주거 불안정 다음으로 높았으나, 여성은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 다음으로 불안정한 일자리(25.9%)와 주거 불안정(25.5%)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결혼 연기 및 비혼에 대한 이유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최종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의 경우는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31.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불안정한 일자리(28.3%)로 나타난 반면, 대졸의 경우는 주거 불안정이 32.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불안정한 일자리(28.0%)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원 이상에서는 주거 불안정이 38.9%로 매우 높고, 그다음이 적절한 결혼상대 부재와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각각 19.4%로 동일하게 나타나 학력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취업을 한 경우 주거 불안정에 대한 이유가 가장 컸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상할 수 있듯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미혼

(단위: %, 명)

항목	불안정한 일자리	바쁜 업무	주거 불안정	적절한 결혼 상대 부재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	기타	계	(명)
전체	27.6	4.9	31.0	8.1	26.2	2.2	100.0	(947)
성별( $\chi^2=18.238^{**}$ )								
여성	25.9	6.3	25.5	9.6	31.0	1.8	100.0	(398)
남성	28.8	3.8	35.0	7.1	22.7	2.5	100.0	(548)
연령( $\chi^2=14.923$ )								
19~29세	28.0	5.7	31.1	6.3	26.1	2.7	100.0	(620)
30~39세	24.2	3.3	32.7	12.3	26.6	0.9	100.0	(211)
40~49세	31.5	3.4	27.5	10.2	25.8	1.6	100.0	(116)

항목	불안정한 일자리	바쁜 업무	주거 불안정	적절한 결혼 상대 부재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	기타	계	(명)
지역( $\chi^2=14.785$ )								
수도권	23.4	5.3	33.5	9.1	25.7	2.9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32.1	4.6	28.7	7.5	26.0	1.1	100.0	(174)
그 외 지역	33.3	4.0	27.3	6.4	27.3	1.6	100.0	(248)
최종 학력( $\chi^2=20.254^*$ )								
고졸 이하	28.3	5.1	21.4	11.3	31.5	2.5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28.0	4.8	32.7	6.9	25.4	2.3	100.0	(752)
대학원 이상	16.8	5.6	38.9	19.4	19.4	0.0	100.0	(36)
경제활동( $\chi^2=11.824^*$ )								
취업	24.6	5.1	34.1	8.4	25.9	2.0	100.0	(609)
비취업	33.1	4.4	25.4	7.7	26.7	2.7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4.029$ )								
300만 원 미만	27.8	4.3	32.2	8.8	24.6	2.3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2.8	4.7	35.2	8.1	27.1	2.2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3.5	6.8	25.7	7.3	24.6	2.1	100.0	(191)
700만 원 이상	30.5	3.8	25.9	7.6	29.8	2.3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 인구가 생각하는 청년층의 결혼 연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불안정한 일자리가 32.9%로 가장 높고,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도 31.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주거 불안정은 23.6%, 적절한 결혼상대 부재는 6.9%, 바쁜 업무가 3.1%로 나타났다.

기혼의 생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 때문이라는 이유가 32.9%로 가장 높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28.2%였다. 하지만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약 3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3〉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기혼

(단위: %, 명)

항목	불안정한 일자리	바쁜 업무	주거 불안정	적절한 결혼상대 부재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	기타	계	(명)
전체	32.9	3.1	23.6	6.9	31.6	1.9	100.0	(1053)
성별( $\chi^2=6.886$ )								
여성	34.3	3.0	22.1	5.5	33.1	2.0	100.0	(572)
남성	31.2	3.2	25.2	8.6	29.8	1.9	100.0	(482)
연령( $\chi^2=13.451$ )								
19~29세	38.0	0.0	20.6	3.5	34.4	3.4	100.0	(29)
30~39세	28.0	4.6	26.3	7.3	32.0	1.7	100.0	(409)
40~49세	35.8	2.3	21.8	6.8	31.3	2.0	100.0	(615)
지역( $\chi^2=23.856^{**}$ )								
수도권	28.2	2.8	26.7	6.7	32.9	2.6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37.5	5.7	18.5	8.7	28.5	1.0	100.0	(205)
그 외 지역	37.8	1.9	21.4	6.2	31.4	1.3	100.0	(312)
최종 학력( $\chi^2=9.633$ )								
고졸 이하	31.2	3.7	24.3	7.4	32.6	0.8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34.0	3.0	23.2	6.5	31.4	1.9	100.0	(737)
대학원 이상	26.5	2.6	24.9	9.6	30.8	5.6	100.0	(72)
경제활동( $\chi^2=9.183$ )								
맞벌이	34.5	2.2	22.9	7.7	30.4	2.4	100.0	(551)
외벌이	30.6	4.3	24.4	5.8	33.6	1.3	100.0	(478)
자녀 수( $\chi^2=22.688$ )								
없음	22.1	2.5	27.3	11.2	35.2	1.7	100.0	(117)
1명	33.4	3.4	24.0	7.4	30.9	1.0	100.0	(405)
2명	36.9	2.7	22.7	6.0	29.1	2.6	100.0	(436)
3명 이상	25.4	4.4	21.1	4.2	41.8	3.1	100.0	(95)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이혼 및 사별이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활동 범주에서는 제외(이하 해당 사항 동일).

3)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미혼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이점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5.9%로 가장 높고, 없는 편이라는 의견은 28.6%, 매우 많음은 10.8%, 전혀 없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결혼의 이점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많은 편임 + 매우 많음)이 71.5%로 여성의 59.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1.1%로 가장 높고, 30대는 60.2%, 40대는 54.7%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6.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 결혼 이점에 대한 태도: 미혼

(단위: %, 명)

항목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많은 편임	매우 많음	계	(명)
전체	4.8	28.6	55.9	10.8	100.0	(947)
성별( $\chi^2=28.042^{***}$ )						
여성	3.3	36.8	52.3	7.6	100.0	(398)
남성	5.8	22.7	58.4	13.1	100.0	(548)
연령( $\chi^2=33.118^{***}$ )						
19~29세	2.3	26.7	59.7	11.4	100.0	(620)
30~39세	9.0	30.8	51.2	9.0	100.0	(211)
40~49세	10.3	35.0	44.2	10.5	100.0	(116)
지역( $\chi^2=13.584^*$ )						
수도권	4.2	29.7	57.1	9.0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6.9	25.3	59.2	8.6	100.0	(174)
그 외 지역	4.4	28.6	50.9	16.1	100.0	(248)
최종 학력( $\chi^2=5.991$ )						
고졸 이하	4.4	22.1	61.5	12.0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4.8	29.5	55.1	10.6	100.0	(752)
대학원 이상	5.5	38.9	47.3	8.3	100.0	(36)
경제활동( $\chi^2=3.148$ )						
취업	5.3	28.0	54.9	11.8	100.0	(609)
비취업	3.8	29.6	57.7	8.9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0.831$ )						
300만 원 미만	4.9	32.8	52.4	9.8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9	27.2	56.9	10.0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1	24.0	61.8	12.1	100.0	(191)
700만 원 이상	5.4	28.9	52.8	12.9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 인구는 결혼의 이점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8.7%,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2.6%,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4.1%, 그리고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0대에서 이점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대, 40대보다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3-5) 결혼 이점에 대한 태도: 기혼

(단위: %, 명)

항목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많은 편임	매우 많음	계	(명)
전체	4.6	24.1	58.7	12.6	100.0	(1053)
성별( $x^2=4.315$ )						
여성	3.6	25.5	58.3	12.6	100.0	(572)
남성	5.7	22.3	59.3	12.7	100.0	(482)
연령( $x^2=6.100$ )						
19~29세	3.4	10.2	69.2	17.2	100.0	(29)
30~39세	4.1	27.0	56.9	12.0	100.0	(409)
40~49세	4.9	22.7	59.5	12.9	100.0	(615)
지역( $x^2=19.953^{**}$ )						
수도권	4.1	20.0	60.2	15.7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3.3	28.1	57.0	11.6	100.0	(205)
그 외 지역	6.2	28.4	57.4	8.1	100.0	(312)
최종 학력( $x^2=7.738$ )						
고졸 이하	3.3	29.3	57.2	10.2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5.2	22.7	59.0	13.2	100.0	(737)
대학원 이상	2.8	20.7	61.3	15.2	100.0	(72)
경제활동( $x^2=3.199$ )						
맞벌이	4.2	23.2	58.3	14.3	100.0	(551)
외벌이	5.2	24.0	59.8	11.0	100.0	(478)
자녀 수( $x^2=5.745$ )						
없음	3.4	20.7	59.7	16.3	100.0	(117)
1명	4.7	26.3	56.1	12.8	100.0	(405)
2명	4.4	23.7	60.4	11.5	100.0	(436)
3명 이상	6.3	20.1	61.1	12.5	100.0	(95)
월평균 가구소득( $x^2=11.503$ )						
300만 원 미만	6.4	25.5	55.4	12.7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2	24.9	60.3	10.6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5.3	23.9	57.8	12.9	100.0	(303)
700만 원 이상	1.6	19.6	60.0	18.9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결혼의 이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혼에게 결혼의 가장 큰 이점을 알아본 결과 정신적 의지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31.4%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정신적 의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주요한 이점으로 나타난 경향은 동일했으나, 여성은 이 두 이점에 집중된 비율이 남성보다는 낮아서 다른 이점들에서도 비율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은 남성에게서 더 큰 이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두 가지 주요 이점에 집중된 비율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독신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응답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응답이었다. 반면, 주요 두 가지 이점을 제외하고 남성에게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점 등 주요 두 이유를 제외한 이점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보면, 20대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더욱 컸다. 정신적 의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두 가지 주요 이점을 제외하고 20대는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고, 30대와 40대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을 꼽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에 대한 이점을 다른 소득 구간에 있는 경우보다 높게 꼽았다. 그리고 700만 원 이상 그룹에서는 정신적 의지를 이점으로 선택한 비율이 5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6〉 결혼의 가장 큰 이점: 미혼

(단위: %, 명)

항목	독신보다 경제적 여유	정신적 의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음	새로운 가족이 생김	아이를 가질 수 있음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음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부모나 주위 걱정으로부터 벗어남	기타	계	(명)
전체	5.5	44.5	31.4	6.1	4.5	1.5	1.9	4.1	0.3	100.0	(902)
성별( $\chi^2=22.025^{**}$ )											
여성	7.8	42.2	27.9	6.5	4.7	1.6	2.3	6.3	0.8	100.0	(385)
남성	3.8	46.2	34.1	5.8	4.5	1.5	1.5	2.5	0.0	100.0	(517)
연령( $\chi^2=58.870^{***}$ )											
19~29세	6.1	44.2	33.1	5.9	5.1	1.6	1.3	2.5	0.0	100.0	(606)
30~39세	4.7	46.9	27.1	6.3	3.1	2.1	1.0	8.8	0.0	100.0	(192)
40~49세	3.8	41.7	29.5	6.8	3.9	0.0	6.7	4.8	2.9	100.0	(104)
지역( $\chi^2=14.300$ )											
수도권	5.4	44.1	32.0	6.6	4.2	1.2	1.8	4.4	0.4	100.0	(503)
수도권 외 광역시	8.0	42.6	34.5	5.6	3.1	1.2	3.1	1.8	0.0	100.0	(162)
그 외 지역	4.2	46.6	28.1	5.5	6.3	2.5	1.3	5.1	0.4	100.0	(237)
최종 학력( $\chi^2=12.566$ )											
고졸 이하	4.6	41.4	35.5	7.3	2.0	0.7	2.6	5.3	0.7	100.0	(152)
대졸(대재 포함)	6.0	44.6	30.8	5.7	5.2	1.8	1.7	3.9	0.3	100.0	(716)
대학원 이상	0.0	55.8	26.4	8.9	3.0	0.0	2.9	2.9	0.0	100.0	(34)
경제활동( $\chi^2=8.157$ )											
취업	6.1	43.2	31.0	6.6	4.9	1.2	1.9	5.0	0.2	100.0	(577)
비취업	4.6	46.8	32.3	5.2	4.0	2.1	1.8	2.5	0.6	100.0	(325)
월평균 가구소득( $\chi^2=39.720^*$ )											
300만 원 미만	5.9	44.2	31.7	7.6	3.8	0.3	1.7	4.5	0.3	100.0	(290)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7	43.3	34.1	5.0	4.3	1.7	2.0	4.3	0.7	100.0	(302)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9.0	39.6	32.6	7.5	3.7	1.6	3.2	2.7	0.0	100.0	(187)
700만 원 이상	1.6	55.6	22.6	3.2	8.1	4.0	0.0	4.8	0.0	100.0	(124)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이 생각하는 결혼의 가장 큰 이점은 미혼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의지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기는 했으나 19.6%로 미혼의 경우보다는 낮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점이 각각 12.8%와 12.6%로 미혼의 결과에서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나 3명 이상인 경우에 경제적인 여유가 이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그룹과 비교해 약간씩 높았다.

〈표 3-7〉 결혼의 가장 큰 이점: 기혼

(단위: %, 명)

항목	독신보다 경제적 여유	정신적 의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음	새로운 가족이 생김	아이를 가질 수 있음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음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부모나 주위 걱정으로부터 벗어남	기타	계	(명)
전체	4.6	43.6	19.6	12.6	12.8	1.1	1.2	3.8	0.8	100.0	(1005)
성별( $\chi^2=19.995^*$ )											
여성	4.9	46.1	16.4	12.3	13.9	0.4	0.9	3.8	1.3	100.0	(551)
남성	4.1	40.7	23.4	13.0	11.3	2.0	1.5	3.7	0.2	100.0	(454)
연령( $\chi^2=14.622$ )											
19~29세	0.0	42.9	28.6	14.2	7.2	3.5	0.0	0.0	3.6	100.0	(28)
30~39세	4.6	42.7	20.9	11.7	14.3	1.0	0.5	3.8	0.5	100.0	(392)
40~49세	4.8	44.3	18.3	13.2	12.0	1.0	1.7	3.9	0.9	100.0	(584)
지역( $\chi^2=6.714$ )											
수도권	5.1	41.8	19.8	13.3	13.7	1.2	1.4	3.3	0.6	100.0	(513)
수도권 외 광역시	3.9	47.3	19.6	11.0	10.7	1.5	1.5	3.5	1.0	100.0	(199)
그 외 지역	4.1	44.4	19.1	12.6	12.6	0.7	0.7	4.8	1.0	100.0	(293)
최종 학력( $\chi^2=14.171$ )											
고졸 이하	6.3	46.5	16.9	9.8	12.8	2.1	1.3	3.8	0.4	100.0	(236)
대졸(대재 포함)	3.8	42.6	20.0	14.0	12.7	0.9	1.3	3.7	1.0	100.0	(699)
대학원 이상	5.6	44.3	24.6	8.5	12.8	0.0	0.0	4.3	0.0	100.0	(70)
경제활동( $\chi^2=1.492$ )											
맞벌이	4.2	44.8	20.5	12.0	12.1	1.1	1.0	3.6	0.8	100.0	(528)
외벌이	4.4	43.1	19.0	13.2	13.5	1.1	1.3	3.7	0.7	100.0	(453)
자녀 수( $\chi^2=33.707$ )											
없음	7.0	47.1	23.8	9.7	2.7	0.9	0.9	6.2	1.8	100.0	(113)
1명	4.4	45.2	17.3	13.9	13.2	1.3	1.0	3.6	0.0	100.0	(386)
2명	3.6	42.7	20.7	11.2	14.9	1.2	1.0	3.6	1.2	100.0	(416)
3명 이상	6.7	37.0	18.9	17.0	13.6	0.0	3.4	2.2	1.1	100.0	(89)
월평균 가구소득( $\chi^2=23.486$ )											
300만 원 미만	4.3	42.3	20.5	13.6	11.2	0.6	0.6	5.6	1.3	100.0	(161)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8	44.0	16.4	13.4	15.3	0.9	1.6	2.8	0.7	100.0	(432)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4.5	43.1	24.8	10.5	10.8	1.0	0.3	3.8	1.0	100.0	(287)
700만 원 이상	4.0	45.4	17.3	13.5	10.3	2.4	2.4	4.8	0.0	100.0	(126)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미혼에게 결혼의 단점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53.3%는 많은 편이라 응답했고, 없는 편이라 응답한 비율은 32.5%였다.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도 11.0%로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3%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의 단점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6.4%로 남성의 7.1%보다 높았다. 40대에서는 단점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그룹에서는 결혼의 단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1.1%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원 이상의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8〉 결혼 단점에 대한 태도: 미혼

(단위: %, 명)

항목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많은 편임	매우 많음	계	(명)
전체	3.3	32.5	53.3	11.0	100.0	(947)
성별( $\chi^2=30.279^{***}$ )						
여성	1.8	26.7	55.2	16.4	100.0	(398)
남성	4.4	36.7	51.9	7.1	100.0	(548)
연령( $\chi^2=8.607$ )						
19~29세	3.9	33.7	52.9	9.5	100.0	(620)
30~39세	1.9	30.7	55.5	11.9	100.0	(211)
40~49세	2.6	29.0	51.3	17.1	100.0	(116)
지역( $\chi^2=7.702$ )						
수도권	3.2	33.0	53.3	10.5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4.6	37.8	46.5	11.0	100.0	(174)
그 외 지역	2.4	27.6	57.9	12.1	100.0	(248)
최종 학력( $\chi^2=8.590$ )						
고졸 이하	2.5	32.7	51.6	13.2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3.1	32.4	53.9	10.7	100.0	(752)
대학원 이상	11.1	33.4	47.2	8.3	100.0	(36)
경제활동( $\chi^2=1.811$ )						
취업	3.6	33.4	51.8	11.2	100.0	(609)
비취업	2.7	30.7	55.9	10.7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9.320$ )						
300만 원 미만	3.0	31.8	54.7	10.5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7	33.3	53.0	9.0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6	35.6	48.6	13.1	100.0	(191)
700만 원 이상	1.5	27.4	57.3	13.7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은 결혼의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1.3%,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4.2%, 매우 많다는 응답은 10.0%, 전혀 없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여성은 단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1.2%, 많은 편이라는 비율이 54.3%로 같은 응답에 대한 남성의 비율인 8.6%와 47.8%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기혼 남성보다 기혼 여성이 결혼의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혼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 매우 많다는 비율은 높았지만,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낮아서 자녀가 없는 경우 단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3-9〉 결혼 단점에 대한 태도: 기혼

(단위: %, 명)

항목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많은 편임	매우 많음	계	(명)
전체	4.5	34.2	51.3	10.0	100.0	(1053)
성별( $\chi^2=18.589^{***}$ )						
여성	2.3	32.2	54.3	11.2	100.0	(572)
남성	7.0	36.5	47.8	8.6	100.0	(482)
연령( $\chi^2=8.024$ )						
19~29세	6.9	34.6	58.6	0.0	100.0	(29)
30~39세	4.9	37.3	47.3	10.5	100.0	(409)
40~49세	4.1	32.0	53.7	10.2	100.0	(615)
지역( $\chi^2=6.347$ )						
수도권	4.1	36.2	50.7	9.0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6.3	32.4	52.4	8.9	100.0	(205)
그 외 지역	3.9	31.8	51.7	12.5	100.0	(312)
최종 학력( $\chi^2=10.072$ )						
고졸 이하	6.1	29.6	51.9	12.4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3.5	36.0	51.3	9.1	100.0	(737)
대학원 이상	8.3	30.5	50.0	11.2	100.0	(72)
경제활동( $\chi^2=2.071$ )						
맞벌이	5.1	34.5	50.0	10.5	100.0	(551)
외벌이	3.5	34.5	52.6	9.4	100.0	(478)
자녀 수( $\chi^2=25.452^{**}$ )						
없음	3.4	49.7	35.9	11.0	100.0	(117)
1명	6.5	30.3	53.1	10.2	100.0	(405)
2명	2.5	33.0	54.8	9.7	100.0	(436)
3명 이상	6.3	36.9	47.4	9.5	100.0	(95)

항목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많은 편임	매우 많음	계	(명)
월평균 가구소득( $\chi^2=11.619$ )						
300만 원 미만	6.3	36.6	44.7	12.4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0	34.0	54.9	7.1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4.3	33.7	49.4	12.6	100.0	(303)
700만 원 이상	4.0	32.6	52.4	11.0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결혼의 단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결혼의 가장 큰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혼의 경우 개인의 삶 축소가 41.6%로 가장 많았고,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가 24.2%, 가족 및 친지 대소사 등 살피야 하는 것이 많다는 응답이 14.5%, 내 소득을 함께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10.2%, 부모 등 부양가족의 증가가 6.2%, 이성과의 만남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 1.5%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개인의 삶이 줄어드는 것이 39.2%,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가 27.2%, 가족 및 친지 대소사 등 챙겨야 하는 것이 많은 점이 19.0%인 반면, 남성은 개인의 삶이 줄어드는 것이 43.3%,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가 22.0%, 내 소득을 함께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13.6%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표 3-10〉 결혼의 가장 큰 단점: 미혼

(단위: %, 명)

항목	개인의 삶 축소	내 소득을 함께 지출하여 경제적 부담	가족 및 친지 대소사 살피야 하는 것이 많음	부모 등 부양가족의 증가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	이성과의 만남 제약	기타	계	(명)
전체	41.6	10.2	14.5	6.2	24.2	1.5	1.7	100.0	(916)
성별( $\chi^2=37.482$ ***)									
여성	39.2	5.6	19.0	5.1	27.2	2.8	1.0	100.0	(391)
남성	43.3	13.6	11.2	7.0	22.0	0.6	2.3	100.0	(524)
연령( $\chi^2=18.628$ )									
19~29세	41.1	10.4	13.4	5.4	26.0	2.0	1.7	100.0	(596)
30~39세	46.4	8.2	16.4	5.3	20.8	1.0	1.9	100.0	(207)
40~49세	35.2	13.1	16.6	12.3	21.1	0.0	1.8	100.0	(113)



항목	개인의 삶 축소	내 소득을 함께 지출하여 경제적 부담	가족 및 친지 대소사 살피야 하는 것이 많음	부모 등 부양 가족의 증가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	이성과의 만남 제약	기타	계	(명)
지역( $\chi^2=12.994$ )									
수도권	42.9	8.9	12.6	7.1	26.0	1.4	1.2	100.0	(508)
수도권 외 광역시	42.3	12.5	16.9	4.2	19.8	1.2	3.0	100.0	(166)
그 외 지역	38.2	11.5	16.9	5.7	23.6	2.1	2.1	100.0	(242)
최종 학력( $\chi^2=20.555$ )									
고졸 이하	37.5	12.9	16.8	6.4	23.8	0.0	2.6	100.0	(155)
대졸(대재 포함)	43.1	10.0	14.1	6.2	23.2	1.9	1.5	100.0	(729)
대학원 이상	25.1	3.1	12.5	6.3	49.8	0.0	3.1	100.0	(32)
경제활동( $\chi^2=7.746$ )									
취업	42.9	11.2	13.6	6.1	22.8	1.2	2.2	100.0	(587)
비취업	39.2	8.5	16.1	6.4	26.8	2.2	0.9	100.0	(329)
월평균 가구소득( $\chi^2=22.526$ )									
300만 원 미만	43.6	8.4	14.2	4.4	26.0	1.4	2.0	100.0	(296)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3.1	12.4	14.1	5.2	22.3	2.3	0.7	100.0	(306)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5.5	11.8	17.2	10.3	21.5	1.1	2.7	100.0	(186)
700만 원 이상	41.9	7.0	12.3	7.0	28.7	0.8	2.3	100.0	(129)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에게 결혼의 가장 큰 단점을 알아본 결과, 개인의 삶 축소가 37.6%,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가 26.3%, 가족 및 친지 대소사 등 살피야 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 18.7%, 내 소득을 함께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8.0%, 부모 등 부양가족의 증가가 6.3%, 이성과의 만남 제약이 1.6%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의 삶이 줄어든다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며,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가 두 번째로 큰 부담인 것이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은 가족 및 친지 대소사 등 살피야 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 23.6%이고 내 소득을 함께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4.2%였지만, 남성의 경우는 동일 응답에 대한 비율이 각각 12.5%와 12.7%로 나타나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의 경우 개인 삶의 축소가 5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에서 개인의 삶이 줄어든다는 점이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경우는 가족 및 친지 대소사 등을 살펴야 하는 것과 부모 등 부양가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 이하의 학력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11〉 결혼의 가장 큰 단점: 기혼

(단위: %, 명)

항목	개인의 삶 축소	내 소득을 함께 지출하여 경제적 부담	가족 및 친지 대소사 살펴야 하는 것이 많음	부모 등 부양가족의 증가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	이성과의 만남 제약	기타	계	(명)
전체	37.6	8.0	18.7	6.3	26.3	1.6	1.6	100.0	(1006)
성별( $\chi^2=43.079***$ )									
여성	36.5	4.2	23.6	5.3	27.4	1.6	1.5	100.0	(558)
남성	38.9	12.7	12.5	7.5	25.0	1.5	1.8	100.0	(448)
연령( $\chi^2=28.295**$ )									
19~29세	55.7	14.8	14.8	7.4	3.7	3.7	0.0	100.0	(27)
30~39세	43.6	8.7	17.2	4.9	23.9	1.0	0.8	100.0	(389)
40~49세	32.7	7.2	19.8	7.1	29.0	1.9	2.2	100.0	(589)
지역( $\chi^2=22.793*$ )									
수도권	34.9	8.0	19.7	6.4	27.5	1.6	1.9	100.0	(513)
수도권 외 광역시	32.1	11.3	23.3	6.8	22.9	2.6	1.0	100.0	(193)
그 외 지역	45.6	5.9	13.8	5.7	26.6	1.1	1.4	100.0	(300)
최종 학력( $\chi^2=21.058*$ )									
고졸 이하	35.4	6.9	17.6	7.9	26.8	3.1	2.2	100.0	(229)
대졸(대재 포함)	39.1	8.9	18.5	5.0	25.9	1.1	1.4	100.0	(711)
대학원 이상	28.7	1.5	24.3	13.6	29.1	1.4	1.5	100.0	(66)
경제활동( $\chi^2=6.730$ )									
맞벌이	37.8	6.7	19.2	6.7	26.0	1.6	2.1	100.0	(523)
외벌이	37.8	9.4	18.1	5.4	26.9	1.7	0.7	100.0	(461)
자녀 수( $\chi^2=28.075$ )									
없음	35.4	11.4	24.8	10.6	14.2	1.7	1.7	100.0	(113)
1명	39.8	8.7	18.0	4.8	25.8	1.6	1.3	100.0	(379)
2명	34.9	6.5	18.6	7.3	29.8	1.2	1.7	100.0	(425)
3명 이상	43.4	7.8	13.6	2.2	27.4	3.4	2.3	100.0	(89)
월평균 가구소득( $\chi^2=16.768$ )									
300만 원 미만	37.9	12.8	16.1	6.1	24.4	1.3	1.3	100.0	(161)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7.0	7.1	19.0	7.2	26.7	2.1	1.0	100.0	(432)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9.0	8.2	17.4	5.5	26.1	1.4	2.4	100.0	(290)
700만 원 이상	35.7	4.1	23.6	4.9	28.4	0.8	2.4	100.0	(122)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가 남녀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미혼은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34.4%,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응답이 31.4%,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24.2%,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비율은 10.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미혼 여성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40.0%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비율이 39.4%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응답은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하다는 것이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의 경우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30대의 경우는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는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라 결혼제도에 대한 태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3-12〉 결혼제도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 미혼

(단위: %, 명)

항목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평등	계	(명)
전체	24.2	10.0	34.4	31.4	100.0	(947)
성별( $\chi^2=126.597^{***}$ )						
여성	40.0	3.8	35.8	20.4	100.0	(398)
남성	12.7	14.5	33.4	39.4	100.0	(548)
연령( $\chi^2=23.995^{***}$ )						
19~29세	21.6	10.1	32.4	35.8	100.0	(620)
30~39세	24.6	10.9	39.8	24.6	100.0	(211)
40~49세	37.0	7.6	35.2	20.3	100.0	(116)
지역( $\chi^2=10.545$ )						
수도권	24.2	8.4	38.1	29.3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24.1	13.7	28.8	33.3	100.0	(174)
그 외 지역	24.2	10.8	30.5	34.5	100.0	(248)
최종 학력( $\chi^2=9.702$ )						
고졸 이하	29.6	8.8	32.7	28.9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22.7	10.6	34.1	32.5	100.0	(752)
대학원 이상	30.5	2.8	47.4	19.3	100.0	(36)
경제활동( $\chi^2=0.593$ )						
취업	24.8	10.1	33.6	31.5	100.0	(609)
비취업	23.1	9.7	35.8	31.3	100.0	(338)

항목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평등	계	(명)
월평균 가구소득( $\chi^2=12.271$ )						
300만 원 미만	22.0	10.2	34.4	33.4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3.4	11.4	32.4	32.7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7.2	7.3	41.4	24.0	100.0	(191)
700만 원 이상	26.7	9.9	29.0	34.3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결혼제도에 대한 기혼의 태도를 보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비율이 37.4%로 가장 높고,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30.0%,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비율은 25.9%,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46.2%)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 남성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3.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기혼의 경우 그 사례 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응답이 51.8%로 높았다.

〈표 3-13〉 결혼제도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 기혼

(단위: %, 명)

항목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평등	계	(명)
전체	37.4	6.7	30.0	25.9	100.0	(1053)
성별( $\chi^2=90.582$ ***)						
여성	46.2	2.0	32.4	19.4	100.0	(572)
남성	27.1	12.3	27.0	33.6	100.0	(482)
연령( $\chi^2=21.947$ **)						
19~29세	3.4	17.2	27.6	51.8	100.0	(29)
30~39세	38.3	6.6	30.5	24.6	100.0	(409)
40~49세	38.4	6.3	29.7	25.5	100.0	(615)
지역( $\chi^2=4.186$ )						
수도권	38.0	6.1	29.2	26.6	100.0	(535)

항목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평등	계	(명)
수도권 외 광역시 그 외 지역	35.5 37.6	9.7 5.7	30.0 31.2	24.8 25.5	100.0 100.0	(205) (312)
최종 학력( $\chi^2=7.204$ )						
고졸 이하	36.4	7.0	35.1	21.6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37.9	6.9	28.6	26.6	100.0	(737)
대학원 이상	36.1	4.2	26.5	33.2	100.0	(72)
경제활동( $\chi^2=6.637$ )						
맞벌이	40.5	5.3	28.8	25.4	100.0	(551)
외벌이	34.1	8.1	30.7	27.2	100.0	(478)
자녀 수( $\chi^2=9.866$ )						
없음	33.5	7.7	28.1	30.7	100.0	(117)
1명	36.6	7.6	28.7	27.0	100.0	(405)
2명	39.5	6.6	31.5	22.4	100.0	(436)
3명 이상	36.2	2.1	30.4	31.3	100.0	(95)
월평균 가구소득( $\chi^2=8.178$ )						
300만 원 미만	36.7	7.0	28.6	27.7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6.4	7.7	29.6	26.4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9.3	4.7	33.4	22.6	100.0	(303)
700만 원 이상	37.6	7.7	25.0	29.6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래에 본인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바라는지, 또는 안 하는 것을 바라는지 알아본 결과, 미혼인 경우의 응답은 자녀의 선택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0.8%로 높게 나타났다. 가능한 한 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26.1%, 반드시 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8.2%, 가능한 한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3.8%,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장래 자녀의 결혼에 대해 미혼은 대부분 자녀의 선택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택지에 응답이 집중되고, 일부는 가능한 한 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남성이 여성보다 장래 본인 자녀가 결혼하기를 바라(가능한 한 하기를 바랍+반드시 하기를 바랍) 경향을 보였다.

〈표 3-14〉 장래 본인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미혼

(단위: %, 명)

항목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람	가능한 한 하지 않기를 바람	가능한 한 하기를 바람	반드시 하기를 바람	자녀의 선택이므로 미관여	계	(명)
전체	1.2	3.8	26.1	8.2	60.8	100.0	(947)
성별( $\chi^2=8.344$ )							
여성	1.3	5.0	22.9	6.8	64.0	100.0	(398)
남성	1.1	2.9	28.3	9.2	58.4	100.0	(548)
연령( $\chi^2=11.977$ )							
19~29세	1.5	3.5	27.7	9.2	58.1	100.0	(620)
30~39세	0.0	4.3	23.7	4.7	67.3	100.0	(211)
40~49세	1.7	4.3	21.5	9.3	63.3	100.0	(116)
지역( $\chi^2=7.211$ )							
수도권	1.7	3.6	26.1	6.8	61.7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0.6	5.2	25.3	9.8	59.2	100.0	(174)
그 외 지역	0.4	3.2	26.6	10.0	59.8	100.0	(248)
최종 학력( $\chi^2=4.997$ )							
고졸 이하	1.9	3.2	21.4	8.2	65.4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0.9	4.0	27.1	8.3	59.6	100.0	(752)
대학원 이상	2.8	2.7	25.0	5.5	64.1	100.0	(36)
경제활동( $\chi^2=2.618$ )							
취업	1.1	4.4	26.6	7.7	60.2	100.0	(609)
비취업	1.2	2.7	25.2	9.2	61.8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7.881$ )							
300만 원 미만	0.7	2.9	28.2	6.9	61.4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2	4.1	25.3	8.4	61.0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6	2.6	25.7	9.4	60.7	100.0	(191)
700만 원 이상	1.5	6.9	23.7	9.1	58.8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래 본인 자녀의 결혼에 대한 기혼의 태도는 미혼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선택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3.3%로 높았고, 가능한 한 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25.4%, 반드시 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13.5%, 가능한 한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6.6%,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1.3%로 나타났다.

기혼 그룹에서도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그룹보다 미만인 그룹이 자녀의 선택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15〉 장래 본인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기혼

(단위: %, 명)

항목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람	가능한 한 하지 않기를 바람	가능한 한 하기를 바람	반드시 하기를 바람	자녀의 선택이므로 미관여	계	(명)
전체	1.3	6.6	25.4	13.5	53.3	100.0	(1053)
성별( $\chi^2=7.392$ )							
여성	1.2	8.1	25.1	11.7	53.9	100.0	(572)
남성	1.4	4.7	25.8	15.6	52.5	100.0	(482)
연령( $\chi^2=10.980$ )							
19~29세	0.0	0.0	20.4	10.4	69.2	100.0	(29)
30~39세	1.2	4.4	27.1	13.2	54.2	100.0	(409)
40~49세	1.4	8.3	24.5	13.8	51.9	100.0	(615)
지역( $\chi^2=3.379$ )							
수도권	1.1	5.6	26.7	13.6	52.9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1.4	6.9	24.6	12.2	54.8	100.0	(205)
그 외 지역	1.6	7.9	23.7	14.1	52.8	100.0	(312)
최종 학력( $\chi^2=11.337$ )							
고졸 이하	1.2	9.1	24.6	14.0	51.1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1.2	5.9	26.4	12.4	54.0	100.0	(737)
대학원 이상	2.8	4.4	18.0	22.3	52.6	100.0	(72)
경제활동( $\chi^2=5.913$ )							
맞벌이	0.7	7.2	26.3	14.2	51.5	100.0	(551)
외벌이	2.0	5.9	24.2	12.5	55.4	100.0	(478)
자녀 수( $\chi^2=6.149$ )							
없음	1.7	6.0	23.0	11.1	58.2	100.0	(117)
1명	1.2	6.5	24.9	14.1	53.3	100.0	(405)
2명	1.1	6.8	24.7	13.8	53.6	100.0	(436)
3명 이상	2.1	6.3	33.6	12.6	45.4	100.0	(95)
월평균 가구소득( $\chi^2=13.024$ )							
300만 원 미만	1.7	6.6	20.9	13.9	56.8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0.9	5.2	25.2	12.0	56.7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6	9.0	27.4	13.8	48.2	100.0	(303)
700만 원 이상	1.5	5.5	27.4	17.1	48.4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혼인신고 및 신혼부부

결혼 생활을 위해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한지 알아본 결과, 미혼은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46.1%,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29.8%,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19.6%,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보면, 20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2.7%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필요한 편+반드시 필요)로 비교해 보면, 20대 77.6%, 30대 72.5%, 40대 73.5%로 20대에서 여전히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6〉 혼인신고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 미혼

(단위: %, 명)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반드시 필요	계	(명)
전체	4.4	19.6	46.1	29.8	100.0	(947)
성별( $\chi^2=3.122$ )						
여성	5.3	21.6	44.1	29.0	100.0	(398)
남성	3.8	18.2	47.6	30.4	100.0	(548)
연령( $\chi^2=17.601^{**}$ )						
19~29세	4.3	18.1	44.9	32.7	100.0	(620)
30~39세	2.3	25.1	50.2	22.3	100.0	(211)
40~49세	8.6	18.0	45.2	28.3	100.0	(116)
지역( $\chi^2=10.911$ )						
수도권	4.8	19.6	49.7	25.9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4.0	21.9	41.3	32.8	100.0	(174)
그 외 지역	4.0	18.1	41.8	36.1	100.0	(248)
최종 학력( $\chi^2=8.143$ )						
고졸 이하	4.4	20.8	40.2	34.6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4.5	20.1	46.7	28.7	100.0	(752)
대학원 이상	2.7	5.6	58.3	33.5	100.0	(36)
경제활동( $\chi^2=3.082$ )						
취업	4.4	19.7	44.3	31.6	100.0	(609)
비취업	4.4	19.6	49.4	26.6	100.0	(338)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반드시 필요	계	(명)
월평균 가구소득( $\chi^2=9.539$ )						
300만 원 미만	5.6	20.3	42.0	32.1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7	18.1	47.0	31.2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5.2	22.6	48.7	23.5	100.0	(191)
700만 원 이상	2.3	17.6	49.6	30.6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혼인신고에 대한 기혼의 태도를 보면,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46.1%,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3.4%,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18.2%,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3%로 나타나 기혼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79.5%로 높았다.

기혼은 미혼과 달리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26.6%로 자녀가 있는 경우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17> 혼인신고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 기혼

(단위: %, 명)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반드시 필요	계	(명)
전체	2.3	18.2	46.1	33.4	100.0	(1053)
성별( $\chi^2=3.025$ )						
여성	2.0	18.8	47.7	31.5	100.0	(572)
남성	2.7	17.4	44.3	35.6	100.0	(482)
연령( $\chi^2=4.444$ )						
19~29세	0.0	13.9	55.2	30.9	100.0	(29)
30~39세	2.4	19.5	47.6	30.5	100.0	(409)
40~49세	2.3	17.5	44.8	35.5	100.0	(615)
지역( $\chi^2=4.495$ )						
수도권	2.2	19.4	44.3	34.0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1.4	19.1	45.6	33.8	100.0	(205)
그 외 지역	3.0	15.4	49.6	32.0	100.0	(312)
최종 학력( $\chi^2=1.724$ )						
고졸 이하	1.7	18.8	45.5	34.0	100.0	(244)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반드시 필요	계	(명)
대졸(대재 포함)	2.6	18.1	46.5	32.8	100.0	(737)
대학원 이상	1.4	16.6	44.2	37.8	100.0	(72)
경제활동( $x^2=1.663$ )						
맞벌이	1.9	17.2	47.4	33.6	100.0	(551)
외벌이	2.7	19.0	45.1	33.2	100.0	(478)
자녀 수( $x^2=6.413$ )						
없음	3.4	23.9	46.2	26.6	100.0	(117)
1명	2.5	17.5	45.5	34.5	100.0	(405)
2명	2.0	17.2	47.3	33.5	100.0	(436)
3명 이상	1.0	18.7	43.5	36.8	100.0	(95)
월평균 가구소득( $x^2=9.701$ )						
300만 원 미만	4.1	13.9	51.8	30.2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0	20.4	44.5	33.1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3	17.9	44.4	35.4	100.0	(303)
700만 원 이상	0.8	16.6	48.4	34.3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미혼의 경우, 결혼 후 6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았고, 결혼 후 1년 이내는 19.5%, 결혼과 무관하게 아이가 생겼을 때는 10.4%, 결혼 전은 10.1%, 결혼 후 3년 이내는 4.0%, 결혼 후 5년 이내는 0.7%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6개월 이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결혼 후 1년 이내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22.0%, 남성은 17.7%의 분포를 보였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은 기간과 무관하게 아이가 생겼을 때라는 응답이 13.1%인 데 반해, 남성은 결혼 전이라는 응답이 13.5%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18〉 혼인신고의 시기: 미혼

(단위: %, 명)

항목	결혼 전	결혼 후 6개월 이내	결혼 후 1년 이내	결혼 후 3년 이내	결혼 후 5년 이내	기간과 무관하게 아이가 생겼을 때	계	(명)
전체	10.1	55.3	19.5	4.0	0.7	10.4	100.0	(719)
성별( $\chi^2=33.236^{***}$ )								
여성	5.2	52.5	22.0	7.2	0.0	13.1	100.0	(291)
남성	13.5	57.2	17.7	1.9	1.2	8.6	100.0	(428)
연령( $\chi^2=11.705$ )								
19~29세	11.4	56.1	18.1	4.6	0.6	9.2	100.0	(481)
30~39세	7.2	54.9	22.2	1.3	1.3	13.1	100.0	(153)
40~49세	8.2	51.3	22.1	5.9	0.0	12.6	100.0	(85)
지역( $\chi^2=10.141$ )								
수도권	10.8	52.9	17.9	4.5	0.8	13.1	100.0	(397)
수도권 외 광역시	10.1	58.3	22.4	3.1	0.8	5.3	100.0	(129)
그 외 지역	8.7	58.2	20.7	3.6	0.5	8.2	100.0	(194)
최종 학력( $\chi^2=9.915$ )								
고졸 이하	10.9	52.2	20.2	1.7	0.0	15.1	100.0	(119)
대졸(대재 포함)	10.2	56.0	19.0	4.2	0.9	9.7	100.0	(567)
대학원 이상	6.0	54.5	24.2	9.2	0.0	6.1	100.0	(33)
경제활동( $\chi^2=6.616$ )								
취업	9.3	56.2	20.3	2.8	0.6	10.8	100.0	(462)
비취업	11.7	53.7	17.9	6.3	0.8	9.7	100.0	(257)
월평균 가구소득( $\chi^2=18.108$ )								
300만 원 미만	9.7	55.4	21.3	1.3	0.9	11.4	100.0	(226)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8.8	59.0	19.1	3.6	1.2	8.4	100.0	(25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2.3	49.3	18.9	8.0	0.0	11.6	100.0	(138)
700만 원 이상	11.5	54.2	17.1	5.8	0.0	11.4	100.0	(105)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이 생각하는 적절한 혼인신고 시기는 결혼 후 6개월 이내가 54.2%, 결혼 후 1년 이내가 22.3%, 기간과 무관하게 아이가 생겼을 때라는 응답이 13.3%, 결혼 전은 5.7%, 결혼 후 3년 이내는 3.7%, 결혼 후 5년 이내는 0.8%로 나타났다.

기혼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혼 후 6개월 이내가 남녀 모두 과반수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결혼 후 1년 이내가 22% 내외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 기간과 무관하

게 아이가 생겼을 때라는 것은 같으나 여성은 17.9%, 남성은 7.8%로 나타났다. 대신 남성의 경우 결혼 전이라는 응답 비율이 7.4%로 아이가 생겼을 때라는 응답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0대 기혼의 경우 결혼 전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9〉 혼인신고의 시기: 기혼

(단위: %, 명)

항목	결혼 전	결혼 후 6개월 이내	결혼 후 1년 이내	결혼 후 3년 이내	결혼 후 5년 이내	기간과 무관하게 아이가 생겼을 때	계	(명)
전체	5.7	54.2	22.3	3.7	0.8	13.3	100.0	(838)
성별( $\chi^2=25.314^{***}$ )								
여성	4.2	51.7	21.9	4.0	0.2	17.9	100.0	(453)
남성	7.4	57.0	22.9	3.3	1.6	7.8	100.0	(385)
연령( $\chi^2=9.238$ )								
19~29세	16.0	44.0	20.1	4.0	0.0	16.0	100.0	(25)
30~39세	5.6	50.9	25.0	3.8	0.6	14.1	100.0	(319)
40~49세	5.2	56.8	20.7	3.7	1.0	12.6	100.0	(493)
지역( $\chi^2=13.536$ )								
수도권	5.9	57.0	22.2	3.8	0.7	10.3	100.0	(419)
수도권 외 광역시	8.0	46.4	26.2	3.1	0.6	15.8	100.0	(163)
그 외 지역	3.8	54.5	20.1	3.9	1.2	16.5	100.0	(255)
최종 학력( $\chi^2=7.611$ )								
고졸 이하	7.7	50.7	21.3	4.2	1.0	15.1	100.0	(194)
대졸(대재 포함)	4.9	55.6	23.1	3.3	0.9	12.2	100.0	(584)
대학원 이상	6.8	50.9	18.4	6.7	0.0	17.2	100.0	(59)
경제활동( $\chi^2=4.947$ )								
맞벌이	4.4	55.7	23.3	4.0	0.7	11.7	100.0	(446)
외벌이	6.9	52.9	21.1	3.5	1.1	14.6	100.0	(375)
자녀 수( $\chi^2=17.120$ )								
없음	7.1	56.8	24.5	2.4	0.0	9.3	100.0	(85)
1명	6.4	51.5	23.6	5.0	1.2	12.3	100.0	(324)
2명	3.7	57.2	21.2	3.4	0.9	13.6	100.0	(352)
3명 이상	10.4	48.8	19.4	1.3	0.0	20.1	100.0	(76)
월평균 가구소득( $\chi^2=11.725$ )								
300만 원 미만	7.9	53.1	22.2	2.1	0.0	14.8	100.0	(141)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4	56.2	21.1	3.8	0.9	12.6	100.0	(349)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5.7	52.8	24.4	3.3	1.7	12.0	100.0	(241)
700만 원 이상	3.7	52.1	21.8	6.6	0.0	15.9	100.0	(105)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결혼 후 언제까지를 신혼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미혼의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고, 이와 비슷한 비율로 결혼 후 1년까지(32.7%)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그다음은 결혼 후 3년까지가 23.2%, 결혼 후 6개월까지가 7.5%, 결혼 후 10년까지가 1.4%, 결혼 후 5년까지가 1.2%, 결혼 후 7년까지가 0.3%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가 38.2%였으나, 미혼 남성은 결혼 후 1년까지가 37.0%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가 30.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응답이었으며, 여성은 결혼 후 1년까지와 결혼 후 3년까지가 각각 26.7%로 동일한 비율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으로 나타나 미혼 남녀의 신혼 기간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결혼 후 1년까지의 응답이 소득 700만 원 미만까지는 30~35%대였지만, 700만 원 이상은 26.0%로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대신, 결혼 후 3년까지의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 3-20〉 신혼 기간에 대한 견해: 미혼

(단위: %, 명)

항목	결혼 후 6개월까지	결혼 후 1년까지	결혼 후 3년까지	결혼 후 5년까지	결혼 후 7년까지	결혼 후 10년까지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	계	(명)
	전체	7.5	32.7	23.2	1.2	0.3	1.4	33.8	100.0
성별( $\chi^2=21.309^{**}$ )									
여성	6.8	26.7	26.7	1.0	0.0	0.5	38.2	100.0	(398)
남성	8.0	37.0	20.7	1.3	0.5	2.0	30.5	100.0	(548)
연령( $\chi^2=20.014$ )									
19~29세	6.3	33.7	25.7	1.3	0.3	1.1	31.6	100.0	(620)
30~39세	8.0	31.3	19.9	1.4	0.5	0.9	37.9	100.0	(211)
40~49세	12.9	29.7	16.4	0.0	0.0	3.4	37.6	100.0	(116)
지역( $\chi^2=18.561$ )									
수도권	7.0	36.0	21.7	0.8	0.6	0.8	33.1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8.0	29.3	27.1	1.7	0.0	0.6	33.3	100.0	(174)
그 외 지역	8.0	28.1	23.8	1.6	0.0	3.2	35.4	100.0	(248)

항목	결혼 후 6개월까지	결혼 후 1년까지	결혼 후 3년까지	결혼 후 5년까지	결혼 후 7년까지	결혼 후 10년까지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	계	(명)
최종 학력( $\chi^2=9.937$ )									
고졸 이하	10.7	36.4	21.4	1.3	0.6	1.3	28.3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7.0	31.3	23.7	1.2	0.3	1.4	35.1	100.0	(752)
대학원 이상	2.8	44.5	22.3	0.0	0.0	0.0	30.5	100.0	(36)
경제활동( $\chi^2=4.134$ )									
취업	6.9	34.7	22.7	1.1	0.3	1.1	33.1	100.0	(609)
비취업	8.6	29.0	24.3	1.2	0.3	1.8	34.9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32.347^*$ )									
300만 원 미만	8.8	35.7	19.0	0.0	0.0	1.3	35.1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6.6	30.7	23.1	1.2	0.3	1.5	36.5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8.9	35.6	22.0	2.1	1.0	0.5	29.8	100.0	(191)
700만 원 이상	4.6	26.0	35.2	2.3	0.0	2.3	29.7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인 경우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라는 응답이 42.2%로 매우 높고, 결혼 후 1년까지가 23.9%, 결혼 후 3년까지가 21.1%, 결혼 후 6개월까지가 7.5%, 결혼 후 5년까지가 3.3%, 결혼 후 10년까지가 1.3%, 결혼 후 7년까지가 0.7%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은 기혼 남성보다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47.9%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결혼 후 1년까지로 (23.5%)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라는 응답 (35.5%)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응답이 결혼 후 3년까지로(24.8%) 결혼 후 1년까지(24.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기혼의 경우 결혼 후 6개월까지와 결혼 후 5년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결혼 후 1년까지라는 응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수에 따라서 보면,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기간과 상관없이 출산 전까지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결혼 후 3년까지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신혼 기간을 더 길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3-21〉 신혼 기간에 대한 견해: 기혼

(단위: %, 명)

항목	결혼 후 6개월까지	결혼 후 1년까지	결혼 후 3년까지	결혼 후 5년까지	결혼 후 7년까지	결혼 후 10년까지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	계	(명)
전체	7.5	23.9	21.1	3.3	0.7	1.3	42.2	100.0	(1053)
성별( $\chi^2=24.345^{***}$ )									
여성	6.5	23.5	18.0	2.5	0.9	0.7	47.9	100.0	(572)
남성	8.6	24.3	24.8	4.3	0.4	2.1	35.5	100.0	(482)
연령( $\chi^2=30.310^{**}$ )									
19~29세	13.8	17.1	17.2	10.3	0.0	0.0	41.7	100.0	(29)
30~39세	4.9	20.7	22.7	4.9	1.5	1.7	43.7	100.0	(409)
40~49세	8.9	26.3	20.2	1.9	0.2	1.1	41.3	100.0	(615)
지역( $\chi^2=14.208$ )									
수도권	6.5	22.1	23.0	3.4	1.1	1.7	42.3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7.4	22.3	22.1	3.9	0.0	0.5	43.7	100.0	(205)
그 외 지역	9.1	28.0	17.2	2.9	0.3	1.3	41.2	100.0	(312)
최종 학력( $\chi^2=14.004$ )									
고졸 이하	10.3	24.4	20.5	2.8	0.4	1.2	40.4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6.4	24.3	21.6	3.1	0.5	1.3	42.6	100.0	(737)
대학원 이상	8.5	18.0	17.9	6.9	2.8	1.4	44.5	100.0	(72)
경제활동( $\chi^2=2.484$ )									
맞벌이	7.2	24.6	19.6	3.4	0.5	1.6	43.0	100.0	(551)
외벌이	7.9	23.3	22.4	3.1	0.8	1.0	41.4	100.0	(478)
자녀 수( $\chi^2=40.831^{**}$ )									
없음	2.5	23.9	25.5	5.1	4.3	1.7	36.9	100.0	(117)
1명	7.4	25.9	21.7	3.4	0.0	1.2	40.3	100.0	(405)
2명	9.4	22.1	19.8	3.0	0.5	1.4	43.9	100.0	(436)
3명 이상	5.2	23.4	18.9	2.1	0.0	1.0	49.3	100.0	(95)
월평균 가구소득( $\chi^2=17.551$ )									
300만 원 미만	8.3	21.5	22.0	4.1	0.0	2.3	41.9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6.7	26.0	20.5	2.4	0.9	1.6	41.9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9.4	21.6	21.4	5.2	0.7	0.7	41.0	100.0	(303)
700만 원 이상	4.7	24.9	21.0	0.8	0.8	0.8	47.0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 임신 및 출산

언제 임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아본 결과에서 미혼의 경우는 결혼 후 3년 이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결혼 후 1년 이





항목	결혼 전	결혼 후					계	(명)
		6개월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취업	1.8	8.7	24.3	47.2	9.5	8.5	100.0	(609)
비취업	1.5	10.4	31.0	40.2	9.8	7.1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26.986^*$ )								
300만 원 미만	1.3	9.2	31.9	38.3	8.9	10.5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0.6	9.0	25.2	49.6	9.3	6.3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1	8.4	26.1	47.7	10.0	5.7	100.0	(191)
700만 원 이상	4.6	11.5	19.1	43.5	11.5	9.9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적절한 임신 시기에 대해 기혼은 결혼 후 3년 이내라는 응답이 49.3%, 결혼 후 1년 이내는 29.6%, 결혼 후 6개월 이내는 8.8%, 결혼 후 5년 이내는 7.5%, 결혼 후 5년 이상은 4.0%, 결혼 전은 0.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후 3년 이내라는 응답이 과반수(52.1%)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결혼 후 1년 이내는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광역시나 그 외 지역 거주 의 경우보다 생각하는 적절한 임신 시기가 더 늦은 경향을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신 적정 시기를 늦게 생각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 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에 자녀가 2명이거나 3명인 경우보다 임신 적정 시기를 늦게 생각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23〉 임신의 적정 시기: 기혼

(단위: %, 명)

항목	결혼 전	결혼 후					계	(명)
		6개월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전체	0.8	8.8	29.6	49.3	7.5	4.0	100.0	(1053)
성별( $\chi^2=10.838$ )								
여성	0.4	7.8	31.1	51.2	6.6	3.0	100.0	(572)
남성	1.2	10.0	27.8	47.1	8.7	5.1	100.0	(482)

항목	결혼 전	결혼 후 6개월 이내	결혼 후 1년 이내	결혼 후 3년 이내	결혼 후 5년 이내	결혼 후 5년 이상	계	(명)
연령( $\chi^2=17.033$ )								
19~29세	3.4	10.2	41.7	27.5	6.9	10.3	100.0	(29)
30~39세	0.5	7.5	27.8	50.0	9.5	4.6	100.0	(409)
40~49세	0.8	9.6	30.2	49.9	6.2	3.3	100.0	(615)
지역( $\chi^2=27.248^{**}$ )								
수도권	0.9	7.3	26.7	52.1	10.1	2.8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1.0	11.6	34.5	43.8	5.8	3.3	100.0	(205)
그 외 지역	0.3	9.6	31.3	48.1	4.3	6.4	100.0	(312)
최종 학력( $\chi^2=35.297^{***}$ )								
고졸 이하	1.7	10.4	37.3	41.4	5.0	4.2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0.5	8.8	28.2	51.7	7.4	3.4	100.0	(737)
대학원 이상	0.0	4.2	18.1	51.5	16.6	9.7	100.0	(72)
경제활동( $\chi^2=2.717$ )								
맞벌이	0.5	8.1	29.5	50.0	8.0	3.8	100.0	(551)
외벌이	1.0	10.1	28.6	49.2	6.7	4.4	100.0	(478)
자녀 수( $\chi^2=41.428^{***}$ )								
없음	0.9	7.8	22.2	43.6	13.7	11.9	100.0	(117)
1명	0.7	8.4	28.2	50.3	7.7	4.7	100.0	(405)
2명	0.7	9.1	33.0	49.9	6.2	1.1	100.0	(436)
3명 이상	1.1	10.5	29.3	49.5	5.3	4.4	100.0	(95)
월평균 가구소득( $\chi^2=18.155$ )								
300만 원 미만	0.6	12.2	30.4	43.4	8.3	5.2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0.7	6.9	33.1	49.5	6.0	3.8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0.7	8.5	24.0	53.3	9.2	4.2	100.0	(303)
700만 원 이상	1.5	11.7	29.6	47.0	7.8	2.4	100.0	(128)

주 : p<.05 \*, p<.01 \*\*, p<.001 \*\*\*

자녀를 낳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미혼 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로 44.7%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19.3%,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라는 응답은 12.6%,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7.8%, 아이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가 7.6%,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가 6.5%,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가 0.7% 등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미혼의 응답은 경제적 불안정과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해서 특성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았고, 대학원 이상의 경우는 주거 환경의 미비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원 이상의 샘플이 적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24〉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미혼

(단위: %, 명)

항목	경제적 불안정	바쁜 업무	주거환경의 미비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불만족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	기타	계	(명)
전체	44.7	6.5	7.6	7.8	19.3	12.6	0.7	0.7	100.0	(947)
성별( $\chi^2=8.462$ )										
여성	40.0	7.3	9.3	7.5	20.9	13.6	0.8	0.5	100.0	(398)
남성	48.1	6.0	6.4	8.0	18.1	11.8	0.7	0.9	100.0	(548)
연령( $\chi^2=14.508$ )										
19~29세	44.0	8.2	7.9	7.4	19.0	11.8	0.8	0.8	100.0	(620)
30~39세	46.9	3.8	5.2	9.5	19.9	13.3	0.5	0.9	100.0	(211)
40~49세	44.3	2.5	10.4	6.8	19.6	15.6	0.9	0.0	100.0	(116)
지역( $\chi^2=11.126$ )										
수도권	46.5	6.3	8.4	8.2	18.3	11.0	0.8	0.6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44.1	5.8	6.9	7.5	19.0	15.7	1.2	0.0	100.0	(174)
그 외 지역	41.4	7.6	6.5	7.2	21.7	13.7	0.4	1.6	100.0	(248)
최종 학력( $\chi^2=13.395$ )										
고졸 이하	40.2	5.7	9.5	7.5	22.6	12.6	0.6	1.3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45.7	7.0	6.8	8.0	18.9	12.2	0.8	0.7	100.0	(752)
대학원 이상	44.5	0.0	16.7	5.6	13.8	19.5	0.0	0.0	100.0	(36)
경제활동( $\chi^2=2.675$ )										
취업	45.1	6.2	7.9	7.4	18.8	12.8	1.0	0.8	100.0	(609)
비취업	44.1	7.1	7.1	8.6	20.1	12.2	0.3	0.6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6.543$ )										
300만 원 미만	48.5	6.6	6.2	7.2	18.3	11.9	0.3	1.0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6.1	6.5	7.8	8.4	16.8	12.8	1.2	0.3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8.2	7.9	7.3	9.5	23.5	12.5	0.5	0.5	100.0	(191)
700만 원 이상	41.9	4.6	10.7	5.3	21.4	13.8	0.8	1.5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이 생각하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미혼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안정이 37.4%,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25.3%,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가 11.9%, 아이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가 10.3%,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8.3%,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가 4.0%,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가 2.2%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와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응답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에 대한 응답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라는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의 그룹은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라고 가장 많이 생각했고, 다른 소득 그룹과 비교해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 소득 그룹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고 아이 양육 및 교육비는 두 번째 높은 이유로 나타나 다른 특성을 보인다.

〈표 3-25〉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기혼

(단위: %, 명)

항목	경제적 불안정	비싼 업무	주거환경의 미비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불만족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	기타	계	(명)
전체	37.4	4.0	10.3	8.3	25.3	11.9	2.2	0.8	100.0	(1053)
성별( $\chi^2=11.721$ )										
여성	34.4	3.9	10.4	9.5	27.6	11.8	1.4	0.9	100.0	(572)
남성	40.9	4.1	10.0	6.8	22.5	12.1	3.1	0.6	100.0	(482)
연령( $\chi^2=18.959$ )										
19~29세	44.9	3.4	3.5	10.3	13.9	17.2	6.8	0.0	100.0	(29)
30~39세	39.2	4.4	12.5	8.1	21.5	12.5	1.7	0.2	100.0	(409)
40~49세	35.8	3.8	9.1	8.3	28.3	11.3	2.2	1.1	100.0	(615)
지역( $\chi^2=7.530$ )										
수도권	37.2	4.5	10.4	6.6	26.0	12.0	2.4	0.9	100.0	(535)

항목	경제적 불안정	비싼 업무	주거환경의 미비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불만족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	기타	계	(명)
수도권 외 광역시	36.0	2.9	9.7	11.1	25.3	13.0	1.4	0.5	100.0	(205)
그 외 지역	38.6	3.9	10.3	9.3	23.9	11.2	2.2	0.6	100.0	(312)
최종 학력( $x^2=17.879$ )										
고졸 이하	37.5	3.3	8.3	9.9	25.5	11.9	3.3	0.4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36.7	3.8	11.0	8.4	25.4	12.2	1.9	0.7	100.0	(737)
대학원 이상	44.2	8.3	9.5	1.4	22.7	9.7	1.4	2.8	100.0	(72)
경제활동( $x^2=9.547$ )										
맞벌이	35.0	4.2	10.0	9.3	27.0	12.0	1.4	1.1	100.0	(551)
외벌이	40.7	3.6	10.4	6.4	23.9	11.9	2.7	0.4	100.0	(478)
자녀 수( $x^2=40.077^{**}$ )										
없음	35.7	8.6	10.2	4.3	19.9	12.8	7.7	0.9	100.0	(117)
1명	37.1	3.4	10.2	9.1	24.7	13.3	2.0	0.2	100.0	(405)
2명	36.3	3.7	10.6	8.0	27.3	11.6	1.3	1.2	100.0	(436)
3명 이상	45.4	2.1	9.4	10.8	25.0	6.3	0.0	1.0	100.0	(95)
월평균 가구소득( $x^2=34.936^*$ )										
300만 원 미만	43.1	2.9	9.3	5.8	23.3	13.3	2.3	0.0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0.0	3.6	12.2	8.7	21.8	10.4	2.4	0.9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9.3	4.3	8.9	9.6	33.9	11.2	1.9	1.0	100.0	(303)
700만 원 이상	39.7	6.3	7.9	7.1	19.4	17.4	1.5	0.8	100.0	(128)

주 :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3절 자녀 양육 및 돌봄

### 1.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자녀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 정도를 조사한 결과 미혼과 기혼의 경우 국가 책임 비율을 각각 46.1%, 48.4%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혼보다는 기혼의 경우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국가 책임 비율을 고려하면 자녀 양육 및 돌봄의 책임은 국가보다 개인의 책임이 다소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혼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

인 경우보다 비취업의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비율을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 자녀 양육 및 돌봄 책임에 대한 국가 책임 비율 정도: 미혼

(단위: %, 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46.1	18.8	(947)
성별			
여성	48.7	17.8	(398)
남성	44.1	19.3	(548)
연령			
19~29세	45.9	19.5	(620)
30~39세	47.1	18.3	(211)
40~49세	45.3	15.7	(116)
지역			
수도권	46.1	18.5	(525)
수도권 외 광역시	46.4	18.3	(174)
그 외 지역	45.9	19.9	(248)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7.2	19.5	(159)
대졸(대재 포함)	45.9	18.7	(752)
대학원 이상	44.5	18.3	(36)
경제활동			
취업	45.6	18.9	(609)
비취업	47.0	18.6	(33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44.6	17.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8.1	18.8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47.3	19.1	(191)
700만 원 이상	42.8	21.8	(131)

주: 가중치 적용.

기혼의 특성별로 살펴보면(〈표 3-27〉), 미혼과 달리 남녀 차이가 없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비율이 54.5%라고 응답하여 개인(부모)의 책임보다 국가 책임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의 국가 책임 비율에 대한 응답은 49.3%로 미취학 자녀가 없는 가구(47.9%)와 다소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가 책임 비율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응답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자녀 양육 및 돌봄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비율 정도: 기혼

(단위: %, 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48.4	17.9	(1053)
성별			
여성	48.5	17.1	(572)
남성	48.2	18.8	(482)
연령			
19~29세	48.8	27.2	(29)
30~39세	48.6	18.7	(409)
40~49세	48.2	16.8	(615)
지역			
수도권	48.1	17.5	(535)
수도권 외 광역시	48.3	18.6	(205)
그 외 지역	48.8	18.1	(312)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9.8	16.8	(244)
대졸(대재 포함)	47.9	18.2	(737)
대학원 이상	47.8	18.5	(72)
경제활동			
맞벌이	48.3	17.4	(551)
외벌이	48.2	18.4	(478)
자녀 수			
없음	48.6	18.2	(117)
1명	47.6	17.9	(405)
2명	47.7	17.6	(436)
3명 이상	54.5	18.0	(95)
미취학 자녀 여부			
있음	49.3	18.2	(335)
없음	47.9	17.7	(71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0.9	18.7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8.1	17.7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47.6	18.1	(303)
700만 원 이상	47.5	16.6	(128)

주: 가중치 적용.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표 3-28> 참조), 미혼의 경우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뒤이어 ‘부모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5%로 조사되었다. 뒤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각각 18.4%, 17.8%로 조사되어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주요 목적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경우, 비취업의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경우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28>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미혼

(단위: %, 명)

항목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계	(명)
전체	17.8	30.5	33.3	18.4	100.0	(947)
성별( $\chi^2=18.488^{***}$ )						
여성	16.7	31.4	27.9	24.0	100.0	(398)
남성	18.7	29.8	37.2	14.3	100.0	(548)
연령( $\chi^2=3.919$ )						
19~29세	19.2	30.6	32.6	17.6	100.0	(620)
30~39세	13.7	31.3	35.6	19.4	100.0	(211)
40~49세	18.0	28.2	33.3	20.5	100.0	(116)
지역( $\chi^2=9.700$ )						
수도권	15.6	30.9	34.3	19.2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16.0	32.7	35.7	15.6	100.0	(174)
그 외 지역	23.8	28.1	29.6	18.5	100.0	(248)
최종 학력( $\chi^2=8.267$ )						
고졸 이하	20.1	22.7	39.7	17.6	100.0	(159)



항목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계	(명)
대졸(대재 포함)	17.4	32.0	32.4	18.2	100.0	(752)
대학원 이상	16.7	33.3	25.1	24.9	100.0	(36)
경제활동( $\chi^2=2.145$ )						
취업	17.9	30.0	32.4	19.7	100.0	(609)
비취업	17.8	31.4	34.9	16.0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5.096$ )						
300만 원 미만	18.3	31.1	30.5	20.0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7.8	30.8	34.5	16.8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4.7	30.9	34.6	19.9	100.0	(191)
700만 원 이상	21.4	27.5	35.1	16.1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의 경우 ‘부모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뒤이어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1%로 조사되었다. 뒤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각각 25.3%, 16.9%로 조사되어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미혼과 마찬가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의 경우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주요 목적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기혼의 경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였다. 다만, 기혼의 경우에도 남성,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29〉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기혼

(단위: %, 명)

항목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계	(명)
전체	16.9	30.7	27.1	25.3	100.0	(1053)
성별( $\chi^2=18.016^{***}$ )						
여성	16.2	32.0	22.6	29.2	100.0	(572)
남성	17.7	29.3	32.5	20.6	100.0	(482)
연령( $\chi^2=5.814$ )						
19~29세	17.3	34.5	30.9	17.3	100.0	(29)
30~39세	16.3	33.0	28.5	22.2	100.0	(409)
40~49세	17.2	29.1	26.0	27.7	100.0	(615)
지역( $\chi^2=13.179^*$ )						
수도권	20.2	30.1	25.7	24.0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16.1	34.4	24.7	24.8	100.0	(205)
그 외 지역	11.7	29.3	31.1	27.9	100.0	(312)
최종 학력( $\chi^2=9.470$ )						
고졸 이하	19.0	25.5	24.7	30.8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16.6	32.5	27.7	23.2	100.0	(737)
대학원 이상	12.6	30.5	28.9	28.1	100.0	(72)
경제활동( $\chi^2=5.482$ )						
맞벌이	15.4	34.1	25.3	25.3	100.0	(551)
외벌이	18.2	28.0	28.9	24.9	100.0	(478)
자녀 수( $\chi^2=14.501$ )						
없음	16.2	24.9	33.3	25.6	100.0	(117)
1명	14.9	32.4	26.6	26.1	100.0	(405)
2명	16.5	31.5	25.6	26.3	100.0	(436)
3명 이상	27.5	27.4	28.3	16.8	100.0	(95)
미취학 자녀 여부( $\chi^2=1.723$ )						
있음	19.1	29.5	26.8	24.6	100.0	(335)
없음	15.8	31.3	27.2	25.6	100.0	(71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6.961^*$ )						
300만 원 미만	18.7	23.9	36.4	21.0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8.7	29.8	26.1	25.3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3.9	33.8	24.5	27.8	100.0	(303)
700만 원 이상	14.9	35.9	24.2	25.1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미혼의 경우 63.8%가 ‘영유아기’라고 응답하였으며 뒤이어 ‘초등 시기 (16.6%)’, ‘대학교 이상 시기(9.1%)’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

력자의 경우 ‘영유아기’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초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인 경우 14.3%인 반면 비취업의 경우 20.7%로 나타났다.

〈표 3-30〉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 미혼

(단위: %, 명)

항목	영유아기 (미취학)	초등 시기	중등 시기	고등 시기	대학교 이상	계	(명)
전체	63.8	16.6	5.0	5.6	9.1	100.0	(947)
성별( $\chi^2=11.763^*$ )							
여성	69.3	14.8	4.8	3.5	7.5	100.0	(398)
남성	59.9	17.8	5.1	7.1	10.2	100.0	(548)
연령( $\chi^2=7.020$ )							
19~29세	62.0	16.6	6.1	5.8	9.5	100.0	(620)
30~39세	66.8	16.1	3.3	5.2	8.5	100.0	(211)
40~49세	68.4	17.1	1.7	5.2	7.7	100.0	(116)
지역( $\chi^2=7.830$ )							
수도권	61.9	18.5	5.3	5.5	8.8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66.2	12.6	3.4	8.0	9.8	100.0	(174)
그 외 지역	66.4	15.2	5.2	4.0	9.2	100.0	(248)
최종 학력( $\chi^2=11.018$ )							
고졸 이하	60.4	14.5	5.0	7.5	12.6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64.2	17.4	4.6	5.2	8.6	100.0	(752)
대학원 이상	72.1	8.4	11.1	5.6	2.8	100.0	(36)
경제활동( $\chi^2=9.267$ )							
취업	66.4	14.3	4.3	5.6	9.5	100.0	(609)
비취업	59.2	20.7	6.2	5.6	8.3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4.691$ )							
300만 원 미만	63.6	17.1	4.9	4.3	10.2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66.4	12.7	5.9	7.2	7.8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59.7	20.4	2.6	6.3	11.0	100.0	(191)
700만 원 이상	64.1	19.0	6.1	3.8	6.9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의 경우 미혼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영유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초등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19.7%로 조사되었다. 미혼과 비교해 볼 때 ‘영유아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낮고 ‘초등 시기’라고 응

답한 비율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영유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조사되었으며 초등 아동이 있는 경우 초등 아동이 없는 경우보다 ‘초등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기혼인 경우 미혼보다 ‘영유아기’, ‘초등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고, ‘대학교 이상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 기혼

(단위: %, 명)

항목	영유아기 (미취학)	초등 시기	중등 시기	고등 시기	대학교 이상	계	(명)
전체	64.9	19.7	3.5	5.6	6.2	100.0	(1053)
성별( $\chi^2=7.276$ )							
여성	63.1	22.2	3.2	6.2	5.3	100.0	(572)
남성	67.1	16.8	3.9	5.0	7.3	100.0	(482)
연령( $\chi^2=9.594$ )							
19~29세	79.3	3.4	6.9	3.5	6.9	100.0	(29)
30~39세	67.3	19.3	2.7	4.6	6.1	100.0	(409)
40~49세	62.7	20.8	3.9	6.4	6.3	100.0	(615)
지역( $\chi^2=6.355$ )							
수도권	65.9	19.1	3.8	6.0	5.3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65.4	17.0	2.9	5.8	8.9	100.0	(205)
그 외 지역	63.0	22.7	3.5	4.8	6.1	100.0	(312)
최종 학력( $\chi^2=13.043$ )							
고졸 이하	57.6	23.6	4.4	5.4	9.0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67.2	18.6	3.4	5.3	5.5	100.0	(737)
대학원 이상	66.5	18.2	1.4	9.7	4.2	100.0	(72)
경제활동( $\chi^2=7.994$ )							
맞벌이	68.6	16.6	3.4	5.1	6.2	100.0	(551)
외벌이	61.5	23.5	3.3	5.6	6.1	100.0	(478)
자녀 수( $\chi^2=8.775$ )							
없음	69.0	17.3	4.3	3.4	6.0	100.0	(117)
1명	67.1	17.9	3.9	4.7	6.4	100.0	(405)
2명	62.9	21.4	3.2	6.9	5.6	100.0	(436)
3명 이상	60.1	23.1	2.1	6.3	8.4	100.0	(95)
자녀 여부							
1) 미취학 자녀( $\chi^2=15.182^{**}$ )							
있음	72.2	16.7	2.1	3.0	6.0	100.0	(335)
없음	61.5	21.2	4.2	6.8	6.3	100.0	(718)

항목	영유아기 (미취학)	초등 시기	중등 시기	고등 시기	대학교 이상	계	(명)
2) 초등 아동 자녀( $\chi^2=12.470^*$ )							
있음	60.2	23.8	3.5	6.7	5.7	100.0	(475)
없음	68.8	16.4	3.5	4.7	6.6	100.0	(579)
월평균 가구소득( $\chi^2=34.495^{***}$ )							
300만 원 미만	50.9	25.2	7.0	7.5	9.4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65.1	21.8	2.2	4.7	6.2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69.4	14.0	4.0	7.3	5.4	100.0	(303)
700만 원 이상	72.8	18.7	2.3	2.4	3.9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자녀 양육 및 돌봄과 여성의 경제활동

우리 사회의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정도가 어떠한지 질문한 결과, 미혼의 경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인식(제약이 있는 편이다, 매우 제약이 많다)하는 비율이 87.8%로 나타나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부담을 매우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49세 그룹,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93.9%, 94.5%로 특히 높게 조사되었다. 이 밖에 '제약이 매우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평균 43.7%에 달했으며 여성과 남성의 경우 각각 55.1%, 35.3%로 나타나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에 대한 인식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0~49세 그룹,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제약이 매우 많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60.5%, 41.6%로 조사되었다.

<표 3-32>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정도: 미혼

(단위: %, 명)

항목	전혀 제약이 없음	제약이 없는 편임	제약이 있는 편임	매우 제약이 많음	계	(명)
전체	3.2	9.1	44.1	43.7	100.0	(947)
성별( $\chi^2=41.288^{***}$ )						
여성	2.0	5.3	37.6	55.1	100.0	(398)
남성	4.0	11.8	48.8	35.3	100.0	(548)
연령( $\chi^2=27.026^{***}$ )						
19~29세	3.7	11.3	46.1	38.9	100.0	(620)
30~39세	1.9	5.7	44.1	48.3	100.0	(211)
40~49세	2.6	3.4	33.4	60.5	100.0	(116)
지역( $\chi^2=3.944$ )						
수도권	2.9	9.3	44.8	43.0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1.7	8.6	44.9	44.8	100.0	(174)
그 외 지역	4.8	8.8	42.1	44.3	100.0	(248)
최종 학력( $\chi^2=15.165^*$ )						
고졸 이하	1.9	14.5	34.0	49.7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3.6	8.1	45.8	42.5	100.0	(752)
대학원 이상	0.0	5.6	52.9	41.6	100.0	(36)
경제활동( $\chi^2=1.082$ )						
취업	3.1	8.4	44.4	44.1	100.0	(609)
비취업	3.3	10.4	43.5	42.9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7.300^*$ )						
300만 원 미만	4.6	10.2	42.6	42.6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5	9.0	48.3	40.2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1	6.3	36.6	55.0	100.0	(191)
700만 원 이상	3.1	10.7	48.1	38.1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의 경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인식(제약이 있는 편이다, 매우 제약이 많다)하는 비율이 93.9%로 나타나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부담을 미혼보다 매우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이 매우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평균 56.2%에 달했으며 여성과 남성의 경우 각각 64.0%, 46.9%로 나타나 미혼과 마찬가지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제약이 매우 많다’라고 인식한 비율이 각각 66.4%, 60.7%로 나타났다.

〈표 3-33〉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정도: 기준

(단위: %, 명)

항목	전혀 제약이 없음	제약이 없는 편임	제약이 있는 편임	매우 제약이 많음	계	(명)
전체	1.7	4.4	37.7	56.2	100.0	(1053)
성별( $\chi^2=32.741^{***}$ )						
여성	1.1	3.2	31.7	64.0	100.0	(572)
남성	2.5	5.9	44.7	46.9	100.0	(482)
연령( $\chi^2=6.194$ )						
19~29세	3.4	3.5	41.3	51.8	100.0	(29)
30~39세	1.0	4.9	34.4	59.8	100.0	(409)
40~49세	2.1	4.2	39.7	54.0	100.0	(615)
지역( $\chi^2=4.478$ )						
수도권	1.3	5.0	35.7	58.0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1.5	3.9	39.7	54.9	100.0	(205)
그 외 지역	2.6	3.7	39.7	54.0	100.0	(312)
최종 학력( $\chi^2=20.511^{**}$ )						
고졸 이하	1.7	8.9	38.9	50.5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1.9	3.2	36.5	58.4	100.0	(737)
대학원 이상	0.0	1.4	45.6	53.0	100.0	(72)
경제활동( $\chi^2=5.075$ )						
맞벌이	1.6	3.1	36.8	58.5	100.0	(551)
외벌이	1.7	5.6	38.7	54.0	100.0	(478)
자녀 수( $\chi^2=20.200^*$ )						
없음	0.9	2.6	40.8	55.8	100.0	(117)
1명	3.2	5.1	41.5	50.2	100.0	(405)
2명	0.7	4.3	35.3	59.7	100.0	(436)
3명 이상	1.0	4.3	28.3	66.4	100.0	(95)
미취학 자녀 여부( $\chi^2=6.423$ )						
있음	1.5	5.4	32.4	60.7	100.0	(335)
없음	1.8	4.0	40.1	54.1	100.0	(71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4.417$ )						
300만 원 미만	2.9	8.0	32.5	56.6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8	2.9	38.3	57.0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6	5.2	37.7	55.4	100.0	(303)
700만 원 이상	0.0	3.1	42.2	54.8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앞서 〈표 3-32〉, 〈표 3-33〉에서 자녀 돌봄 및 양육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사하였다. 미혼의 경우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41.5%)으로 조사되었으며 뒤이어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남녀평등 인식 확대'가 각각 28.8%, 15.7%, 13.7%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0~49세의 경우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경우와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의 경우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2.9%, 49.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34〉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해소에 필요한 정책: 미혼

(단위: %, 명)

항목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 변화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남녀평등 인식 확대	기타	계	(명)
전체	15.7	28.8	41.5	13.7	0.2	100.0	(831)
성별( $\chi^2=5.143$ )							
여성	14.3	29.1	39.7	16.6	0.3	100.0	(369)
남성	16.8	28.7	42.9	11.4	0.2	100.0	(462)
연령( $\chi^2=14.672$ )							
19~29세	16.8	26.2	44.1	12.5	0.4	100.0	(527)
30~39세	16.4	29.8	37.9	15.9	0.0	100.0	(195)
40~49세	8.9	40.0	35.6	15.5	0.0	100.0	(109)
지역( $\chi^2=9.321$ )							
수도권	17.6	29.9	37.6	14.5	0.4	100.0	(461)
수도권 외 광역시	12.7	25.6	48.1	13.5	0.0	100.0	(156)
그 외 지역	13.9	28.9	45.2	12.1	0.0	100.0	(215)
최종 학력( $\chi^2=5.260$ )							
고졸 이하	17.3	28.6	36.9	17.3	0.0	100.0	(133)
대졸(대재 포함)	15.6	29.3	41.8	12.9	0.3	100.0	(664)
대학원 이상	11.8	20.6	52.9	14.7	0.0	100.0	(34)
경제활동( $\chi^2=1.607$ )							
취업	16.1	29.6	40.0	14.1	0.2	100.0	(539)
비취업	15.1	27.4	44.2	13.0	0.3	100.0	(292)



항목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 변화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남녀평등 인식 확대	기타	계	(명)
월평균 가구소득( $\chi^2=18.149$ )							
300만 원 미만	14.2	31.2	39.3	15.4	0.0	100.0	(260)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6.9	30.6	39.1	13.4	0.0	100.0	(284)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9.4	22.9	43.5	13.1	1.1	100.0	(175)
700만 원 이상	10.6	28.2	49.6	11.6	0.0	100.0	(113)

주 : p<.05 \*, p<.01 \*\*, p<.001 \*\*\*

기혼의 경우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35.3%)으로 조사되었으며 뒤이어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의 변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남녀평등 인식 확대’가 각각 34.0%, 16.3%, 14.2%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28.7%)’보다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 변화(4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인 경우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그 외 소득 그룹의 경우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 변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미혼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미혼의 경우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 변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반면 기혼의 경우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를 더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해소에 필요한 정책: 기준  
(단위: %, 명)

항목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육아휴직, 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 변화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남녀평등 인식 확대	기타	계	(명)
전체	16.3	35.3	34.0	14.2	0.2	100.0	(988)
성별( $\chi^2=7.170$ )							
여성	13.7	36.9	33.8	15.4	0.2	100.0	(547)
남성	19.6	33.4	34.2	12.7	0.2	100.0	(441)
연령( $\chi^2=1.761$ )							
19~29세	18.7	33.0	37.1	11.2	0.0	100.0	(27)
30~39세	16.6	37.0	32.9	13.2	0.3	100.0	(385)
40~49세	16.0	34.2	34.5	15.0	0.2	100.0	(576)
지역( $\chi^2=19.130^*$ )							
수도권	17.4	36.9	29.7	15.6	0.4	100.0	(501)
수도권 외 광역시	13.9	41.0	32.2	12.9	0.0	100.0	(194)
그 외 지역	16.1	28.7	42.5	12.7	0.0	100.0	(293)
최종 학력( $\chi^2=12.660$ )							
고졸 이하	19.3	34.5	30.8	15.3	0.0	100.0	(218)
대졸(대재 포함)	14.8	35.4	35.2	14.4	0.1	100.0	(699)
대학원 이상	22.4	36.3	31.2	8.6	1.4	100.0	(71)
경제활동( $\chi^2=6.556$ )							
맞벌이	15.1	37.8	34.5	12.6	0.0	100.0	(525)
외벌이	17.8	32.6	33.7	15.3	0.5	100.0	(443)
자녀 수( $\chi^2=18.062$ )							
없음	9.9	37.2	35.2	17.7	0.0	100.0	(113)
1명	14.9	35.7	34.6	14.8	0.0	100.0	(371)
2명	17.4	37.0	32.7	12.4	0.5	100.0	(414)
3명 이상	25.4	23.3	35.5	15.9	0.0	100.0	(90)
미취학 자녀 여부( $\chi^2=3.741$ )							
있음	18.9	35.8	32.8	12.1	0.3	100.0	(312)
없음	15.1	35.1	34.5	15.2	0.2	100.0	(676)
월평균 가구소득( $\chi^2=23.190^*$ )							
300만 원 미만	21.8	33.7	23.6	20.9	0.0	100.0	(154)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6.1	33.3	37.5	12.6	0.5	100.0	(429)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4.6	39.8	31.4	14.2	0.0	100.0	(282)
700만 원 이상	14.3	34.0	40.5	11.3	0.0	100.0	(124)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 자녀 양육 및 돌봄과 성평등

한국 사회의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남녀평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 3-36〉 참조), 미혼의 경우 50.0%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뒤를 이어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27.2%로 나타났다. 다만, 이에 대한 남녀의 견해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67.7%, 37.1%로 매우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과 남성 각각 8.8%, 26.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미혼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평등과 관련한 인식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표 3-36〉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성평등: 미혼

(단위: %, 명)

항목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평등	기타	계	(명)
전체	50.0	2.8	27.2	18.8	1.1	100.0	(947)
성별( $\chi^2=97.574^{***}$ )							
여성	67.7	1.3	22.0	8.8	0.3	100.0	(398)
남성	37.1	4.0	31.1	26.1	1.6	100.0	(548)
연령( $\chi^2=15.351$ )							
19~29세	46.8	3.4	27.4	21.4	1.0	100.0	(620)
30~39세	54.0	1.9	28.0	14.2	1.9	100.0	(211)
40~49세	59.9	1.7	24.9	13.5	0.0	100.0	(116)
지역( $\chi^2=5.336$ )							
수도권	52.0	2.3	27.1	17.5	1.1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45.4	2.9	28.8	22.4	0.6	100.0	(174)
그 외 지역	49.0	4.0	26.6	19.2	1.2	100.0	(248)
최종 학력( $\chi^2=7.650$ )							

항목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평등	기타	계	(명)
고졸 이하	47.1	1.3	27.7	22.0	1.9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50.4	3.3	26.9	18.5	0.9	100.0	(752)
대학원 이상	55.5	0.0	33.4	11.1	0.0	100.0	(36)
경제활동( $\chi^2=8.185$ )							
취업	50.2	2.4	25.4	20.4	1.5	100.0	(609)
비취업	49.7	3.6	30.5	16.0	0.3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7.291$ )							
300만 원 미만	48.5	3.0	24.3	22.6	1.6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6.8	3.4	30.6	18.0	1.2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58.7	1.0	26.1	13.6	0.5	100.0	(191)
700만 원 이상	48.9	3.8	27.5	19.8	0.0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의 경우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미혼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미혼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과 남성 각각 69.9%, 59.7%로 남녀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의 경우 그 차이가 67.7%와 37.1%로 30%포인트 차이가 있었으나 기혼의 경우 그 차이는 약 10%포인트로 나타나 기혼보다 미혼의 경우 남녀 인식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과 남성 각각 8.7%, 15.6%로 차이를 보였다. 미혼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기혼과 미혼 모두 남녀 간에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보다 미혼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성평등: 기혼

(단위: %, 명)

항목	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	남녀 모두에게 평등	기타	계	(명)
전체	65.2	1.1	21.5	11.9	0.3	100.0	(1053)
성별( $\chi^2=17.680^{**}$ )							
여성	69.9	0.7	20.3	8.7	0.4	100.0	(572)
남성	59.7	1.7	22.8	15.6	0.2	100.0	(482)
연령( $\chi^2=9.330$ )							
19~29세	44.7	0.0	34.6	20.7	0.0	100.0	(29)
30~39세	64.6	0.7	22.0	12.2	0.5	100.0	(409)
40~49세	66.6	1.5	20.5	11.2	0.2	100.0	(615)
지역( $\chi^2=10.342$ )							
수도권	64.7	0.6	20.4	14.0	0.4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68.2	1.5	22.4	7.9	0.0	100.0	(205)
그 외 지역	64.2	1.9	22.7	10.8	0.3	100.0	(312)
최종 학력( $\chi^2=7.825$ )							
고졸 이하	67.6	1.6	16.8	13.6	0.4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63.8	1.0	23.2	11.8	0.3	100.0	(737)
대학원 이상	72.3	1.4	19.4	6.9	0.0	100.0	(72)
경제활동( $\chi^2=4.244$ )							
맞벌이	65.8	0.6	22.2	11.2	0.2	100.0	(551)
외벌이	63.9	1.7	21.3	12.7	0.4	100.0	(478)
자녀 수( $\chi^2=14.907$ )							
없음	58.1	0.9	23.9	17.1	0.0	100.0	(117)
1명	65.4	2.0	20.0	12.3	0.2	100.0	(405)
2명	68.1	0.7	21.3	9.6	0.2	100.0	(436)
3명 이상	60.1	0.0	25.1	13.7	1.1	100.0	(95)
미취학 자녀 여부( $\chi^2=9.744^*$ )							
있음	61.0	0.3	23.2	15.2	0.3	100.0	(335)
없음	67.2	1.5	20.6	10.3	0.3	100.0	(71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4.351$ )							
300만 원 미만	62.8	0.6	18.0	18.0	0.6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63.6	1.4	23.5	11.1	0.4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66.9	1.3	20.3	11.5	0.0	100.0	(303)
700만 원 이상	70.3	0.8	21.9	7.0	0.0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음은 조부모가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부모 중 누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미혼의 경우 70.2%가 조부모 중 누가 돌봐 줘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3.0%가

외할머니, 6.1%가 친할머니의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의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0.2%, 0.4%로 낮게 조사되었다. 외할머니의 도움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2.2%), 40~49세 그룹(36.8%), 대학원 이상 학력자(36.2%)의 경우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49세 그룹의 경우 누가 돌보든지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그쳤으며 47.1%가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38〉 조부모의 자녀 돌봄 가능 시 선호하는 사람: 미혼

(단위: %, 명)

항목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무관	계	(명)
전체	23.0	0.2	6.1	0.4	70.2	100.0	(947)
성별( $\chi^2=33.913^{***}$ )							
여성	32.2	0.3	6.0	0.3	61.2	100.0	(398)
남성	16.3	0.2	6.2	0.5	76.8	100.0	(548)
연령( $\chi^2=27.554^{***}$ )							
19~29세	20.5	0.2	6.1	0.3	72.9	100.0	(620)
30~39세	22.7	0.0	3.8	0.9	72.5	100.0	(211)
40~49세	36.8	0.8	10.3	0.0	52.0	100.0	(116)
지역( $\chi^2=4.897$ )							
수도권	22.3	0.2	7.2	0.6	69.7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23.5	0.0	4.0	0.0	72.5	100.0	(174)
그 외 지역	24.2	0.4	5.2	0.4	69.8	100.0	(248)
최종 학력( $\chi^2=8.864$ )							
고졸 이하	25.2	0.0	8.2	0.0	66.6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21.9	0.3	6.0	0.5	71.3	100.0	(752)
대학원 이상	36.2	0.0	0.0	0.0	63.8	100.0	(36)
경제활동( $\chi^2=6.179$ )							
취업	21.3	0.2	5.3	0.5	72.8	100.0	(609)
비취업	26.1	0.3	7.7	0.3	65.6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3.945$ )							
300만 원 미만	20.7	0.6	6.9	1.0	70.8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3.1	0.0	6.9	0.0	70.1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27.8	0.0	5.2	0.5	66.5	100.0	(191)
700만 원 이상	21.4	0.0	3.8	0.0	74.8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혼의 경우 55.3%가 조부모 중 누가 돌봐 줘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7.0%가 외할머니, 7.3%가 친할머니의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의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0.2%로 낮게 조사되었다. 미혼의 경우보다 할머니의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으며 그중에서도 외할머니의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전반적으로 조부모의 자녀 돌봄이 가능할 시 누가 돌보든지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나, 조부모 각각에 대한 선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할머니의 돌봄을 가장 선호하며 뒤이어 친할머니의 돌봄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할아버지의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 돌봄 책임이 조부모에게 전가되었을 경우에도 암묵적으로 여성에게 손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을 훨씬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3-39〉 조부모의 자녀 돌봄 가능 시 선호하는 사람: 기혼

(단위: %, 명)

항목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무관	계	(명)
전체	37.0	0.2	7.3	0.2	55.3	100.0	(1053)
성별( $\chi^2=6.386$ )							
여성	39.7	0.0	6.7	0.2	53.4	100.0	(572)
남성	33.8	0.4	8.0	0.2	57.6	100.0	(482)
연령( $\chi^2=26.993^{***}$ )							
19~29세	24.3	0.0	6.9	3.4	65.4	100.0	(29)
30~39세	39.8	0.0	4.9	0.0	55.4	100.0	(409)
40~49세	35.8	0.3	9.0	0.2	54.8	100.0	(615)
지역( $\chi^2=8.252$ )							
수도권	35.5	0.0	7.7	0.2	56.7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40.9	0.0	6.3	0.5	52.3	100.0	(205)
그 외 지역	37.1	0.6	7.4	0.0	55.0	100.0	(312)
최종 학력( $\chi^2=15.751^*$ )							
고졸 이하	32.9	0.0	11.1	0.8	55.2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38.2	0.2	6.0	0.0	55.6	100.0	(737)
대학원 이상	38.7	0.0	8.3	0.0	53.0	100.0	(72)
경제활동( $\chi^2=3.110$ )							
맞벌이	37.6	0.0	7.8	0.2	54.4	100.0	(551)
외벌이	36.1	0.4	6.7	0.2	56.6	100.0	(478)

항목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무관	계	(명)
자녀 수( $\chi^2=38.554^{***}$ )							
없음	25.6	0.0	6.8	0.9	66.8	100.0	(117)
1명	36.2	0.0	8.2	0.2	55.3	100.0	(405)
2명	42.4	0.0	6.4	0.0	51.2	100.0	(436)
3명 이상	29.6	1.9	8.5	0.0	60.0	100.0	(95)
미취학 자녀 여부( $\chi^2=13.143^*$ )							
있음	41.6	0.5	4.5	0.3	53.1	100.0	(335)
없음	34.9	0.0	8.7	0.1	56.3	100.0	(718)
월평균 가구소득( $\chi^2=8.684$ )							
300만 원 미만	38.4	0.0	5.3	0.0	56.3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8.6	0.2	7.5	0.4	53.2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36.8	0.3	8.0	0.0	54.9	100.0	(303)
700만 원 이상	29.8	0.0	7.8	0.0	62.3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음으로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남편이 외벌이인 경우, 부인이 외벌이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에 따라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 ‘주로 부인이 자녀 양육 및 돌봄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과 기혼 각각 51.6%, 53.2%로 조사되었다. 부인이 외벌이일 경우 ‘주로 남편이 자녀 양육 및 돌봄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과 기혼 각각 55.8%, 55.9%로 조사되었으며 맞벌이의 경우 약 98%가 자녀 양육 및 돌봄은 ‘부부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40〉 부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

(단위: %, 명)

경제활동 상태	미혼/기혼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남편 외벌이	미혼	51.6	0.7	47.7	100.0	(947)
	기혼	53.2	0.4	46.4	100.0	(1053)
부인 외벌이	미혼	0.8	55.8	43.3	100.0	(947)
	기혼	0.4	55.9	43.7	100.0	(1053)
맞벌이	미혼	1.1	0.8	98.1	100.0	(947)
	기혼	1.0	0.7	98.3	100.0	(1053)



〈표 3-41〉은 남편만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 미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로 부인이 자녀 양육 및 돌봄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높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41.7%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과 대학원 이상 학력자는 ‘부부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8%, 58.3%로 평균 47.7%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표 3-41〉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남편 외벌이): 미혼

(단위: %, 명)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전체	51.6	0.7	47.7	100.0	(947)
성별( $x^2=5.791$ )					
여성	47.9	1.3	50.8	100.0	(398)
남성	54.3	0.4	45.3	100.0	(548)
연령( $x^2=1.729$ )					
19~29세	51.3	1.0	47.8	100.0	(620)
30~39세	53.1	0.5	46.4	100.0	(211)
40~49세	50.6	0.0	49.4	100.0	(116)
지역( $x^2=3.557$ )					
수도권	50.7	1.0	48.4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50.1	1.2	48.8	100.0	(174)
그 외 지역	54.7	0.0	45.3	100.0	(248)
최종 학력( $x^2=3.707$ )					
고졸 이하	47.8	1.3	50.9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52.9	0.7	46.5	100.0	(752)
대학원 이상	41.7	0.0	58.3	100.0	(36)
경제활동( $x^2=0.254$ )					
취업	52.0	0.7	47.3	100.0	(609)
비취업	50.9	0.9	48.2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x^2=11.123$ )					
300만 원 미만	53.2	0.0	46.8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2.3	0.9	46.7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45.5	2.1	52.4	100.0	(191)
700만 원 이상	55.0	0.0	45.0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42〉는 남편만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 기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로 부인이 자녀 양육 및 돌봄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3.2%로 미혼 응답률 51.6%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19~29세의 경우 ‘부부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매우 높은 반면 40~49세 그룹은 해당 비율이 43.1%로 조사되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부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2〉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남편 외벌이): 기혼

(단위: %, 명)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전체	53.2	0.4	46.4	100.0	(1053)
성별( $\chi^2=1.464$ )					
여성	53.7	0.2	46.1	100.0	(572)
남성	52.6	0.6	46.8	100.0	(482)
연령( $\chi^2=8.240$ )					
19~29세	37.6	0.0	62.4	100.0	(29)
30~39세	49.3	0.5	50.3	100.0	(409)
40~49세	56.5	0.3	43.1	100.0	(615)
지역( $\chi^2=5.966$ )					
수도권	51.6	0.4	48.0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58.1	0.9	40.9	100.0	(205)
그 외 지역	52.6	0.0	47.4	100.0	(312)
최종 학력( $\chi^2=2.103$ )					
고졸 이하	51.8	0.8	47.4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53.8	0.3	45.9	100.0	(737)
대학원 이상	51.6	0.0	48.4	100.0	(72)
경제활동( $\chi^2=0.389$ )					
맞벌이	51.9	0.4	47.7	100.0	(551)
외벌이	53.8	0.4	45.8	100.0	(478)
자녀 수( $\chi^2=14.367^*$ )					
없음	45.5	0.0	54.5	100.0	(117)
1명	55.7	1.0	43.3	100.0	(405)
2명	54.9	0.0	45.1	100.0	(436)
3명 이상	44.3	0.0	55.7	100.0	(95)
미취학 자녀 여부( $\chi^2=5.587$ )					
있음	47.9	0.3	51.7	100.0	(335)
없음	55.6	0.4	44.0	100.0	(718)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월평균 가구소득( $\chi^2=5.955$ )					
300만 원 미만	49.9	0.6	49.5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1.7	0.0	48.3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55.6	0.6	43.8	100.0	(303)
700만 원 이상	57.1	0.8	42.1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43>은 부인만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 미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로 남편이 자녀 양육 및 돌봄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과 남성 각각 51.9%, 58.7%로 남성이 다소 높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44.6%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이상 학력자는 '주로 부인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로 타 그룹에 비해서 유난히 높게 조사되었다.

<표 3-43>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부인 외벌이): 미혼

(단위: %, 명)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전체	0.8	55.8	43.3	100.0	(947)
성별( $\chi^2=7.817^*$ )					
여성	0.3	51.9	47.8	100.0	(398)
남성	1.2	58.7	40.1	100.0	(548)
연령( $\chi^2=6.344$ )					
19~29세	0.3	56.8	42.9	100.0	(620)
30~39세	1.9	55.0	43.1	100.0	(211)
40~49세	1.6	52.5	46.0	100.0	(116)
지역( $\chi^2=0.931$ )					
수도권	0.8	55.6	43.6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0.5	54.7	44.8	100.0	(174)
그 외 지역	1.2	57.1	41.7	100.0	(248)
최종 학력( $\chi^2=26.236^{***}$ )					
고졸 이하	0.6	54.1	45.3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0.5	56.8	42.7	100.0	(752)
대학원 이상	8.3	44.6	47.1	100.0	(36)
경제활동( $\chi^2=1.920$ )					
취업	1.1	55.5	43.4	100.0	(609)
비취업	0.3	56.6	43.1	100.0	(338)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월평균 가구소득( $\chi^2=8.513$ )					
300만 원 미만	1.6	55.8	42.6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0.9	52.7	46.4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0.0	56.6	43.4	100.0	(191)
700만 원 이상	0.0	62.7	37.3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44>는 부인만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의 경우 기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로 남편이 자녀 양육 및 돌봄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로 미혼 응답률 55.8%와 거의 차이가 없다. 19~29세의 경우 '부부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매우 높은 반면 40~49세 그룹은 해당 비율이 42.1%로 조사되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3-44>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부인 외벌이): 기혼

(단위: %, 명)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전체	0.4	55.9	43.7	100.0	(1053)
성별( $\chi^2=0.038$ )					
여성	0.4	55.8	43.9	100.0	(572)
남성	0.4	56.1	43.5	100.0	(482)
연령( $\chi^2=5.102$ )					
19~29세	0.0	37.6	62.4	100.0	(29)
30~39세	0.5	54.6	44.9	100.0	(409)
40~49세	0.3	57.6	42.1	100.0	(615)
지역( $\chi^2=8.880$ )					
수도권	0.2	55.5	44.3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1.4	58.1	40.5	100.0	(205)
그 외 지역	0.0	55.1	44.9	100.0	(312)
최종 학력( $\chi^2=2.780$ )					
고졸 이하	0.4	51.6	47.9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0.4	57.4	42.2	100.0	(737)
대학원 이상	0.0	55.4	44.6	100.0	(72)
경제활동( $\chi^2=0.283$ )					
외벌이	0.4	54.8	44.8	100.0	(551)
맞벌이	0.4	56.4	43.2	100.0	(478)
자녀 수( $\chi^2=11.637$ )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없음	0.0	49.6	50.4	100.0	(117)
1명	1.0	56.0	43.1	100.0	(405)
2명	0.0	59.0	41.0	100.0	(436)
3명 이상	0.0	49.2	50.8	100.0	(95)
미취학 자녀 여부( $\chi^2=1.504$ )					
있음	0.3	53.3	46.4	100.0	(335)
없음	0.4	57.1	42.5	100.0	(718)
월평균 가구소득( $\chi^2=8.753$ )					
300만 원 미만	0.0	54.4	45.6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0.0	53.9	46.1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0	58.2	40.8	100.0	(303)
700만 원 이상	0.8	59.6	39.6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45>, <표 3-46>은 맞벌이의 경우 미혼과 기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부부가 동등하게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혼과 미혼 각각 98.1%, 98.3%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자녀 양육 및 돌봄 책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맞벌이의 경우 ‘부부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부인이 홀벌이일 경우에도 ‘부부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45% 내외로 조사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이 홀벌이일 경우 남편이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55%로 조사되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부인에게 자녀 양육 및 돌봄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조사 결과가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자녀 양육 및 돌봄 역할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앞서 조사된 <표 3-36>, <표 3-37>과 같이 상당 부분 여성에게 불합리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현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3-45〉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맞벌이): 미혼

(단위: %, 명)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전체	1.1	0.8	98.1	100.0	(947)
성별( $\chi^2=2.088$ )					
여성	0.5	0.8	98.7	100.0	(398)
남성	1.5	0.9	97.6	100.0	(548)
연령( $\chi^2=2.010$ )					
19~29세	1.0	0.8	98.2	100.0	(620)
30~39세	0.9	0.5	98.6	100.0	(211)
40~49세	1.7	1.8	96.5	100.0	(116)
지역( $\chi^2=6.478$ )					
수도권	1.1	0.6	98.3	100.0	(525)
수도권 외 광역시	0.6	0.0	99.4	100.0	(174)
그 외 지역	1.2	2.0	96.8	100.0	(248)
최종 학력( $\chi^2=2.934$ )					
고졸 이하	1.3	0.6	98.1	100.0	(159)
대졸(대재 포함)	0.9	0.8	98.3	100.0	(752)
대학원 이상	2.8	2.9	94.4	100.0	(36)
경제활동( $\chi^2=2.658$ )					
취업	1.1	0.5	98.4	100.0	(609)
비취업	0.9	1.5	97.6	100.0	(338)
월평균 가구소득( $\chi^2=7.167$ )					
300만 원 미만	1.0	0.0	99.0	100.0	(30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6	1.2	97.2	100.0	(321)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0.0	1.0	99.0	100.0	(191)
700만 원 이상	1.5	1.5	96.9	100.0	(131)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46〉 자녀 양육 및 돌봄을 주로 해야 하는 사람(맞벌이): 기혼

(단위: %, 명)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전체	1.0	0.7	98.3	100.0	(1053)
성별( $\chi^2=4.539$ )					
여성	1.1	0.2	98.8	100.0	(572)
남성	1.0	1.2	97.7	100.0	(482)
연령( $\chi^2=1.563$ )					
19~29세	0.0	0.0	100.0	100.0	(29)
30~39세	1.5	0.7	97.8	100.0	(409)
40~49세	0.8	0.6	98.5	100.0	(615)
지역( $\chi^2=2.203$ )					

항목	주로 부인이	주로 남편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계	(명)
수도권	0.9	0.9	98.1	100.0	(535)
수도권 외 광역시	1.0	0.0	99.0	100.0	(205)
그 외 지역	1.3	0.6	98.1	100.0	(312)
최종 학력( $\chi^2=12.326^*$ )					
고졸 이하	2.5	1.6	95.9	100.0	(244)
대졸(대재 포함)	0.7	0.3	99.1	100.0	(737)
대학원 이상	0.0	1.4	98.6	100.0	(72)
경제활동( $\chi^2=5.620$ )					
맞벌이	0.4	0.7	98.9	100.0	(551)
외벌이	1.9	0.6	97.5	100.0	(478)
자녀 수( $\chi^2=5.069$ )					
없음	0.9	0.9	98.3	100.0	(117)
1명	1.7	1.0	97.3	100.0	(405)
2명	0.7	0.5	98.9	100.0	(436)
3명 이상	0.0	0.0	100.0	100.0	(95)
자녀 여부					
미취학 자녀 여부( $\chi^2=1.360$ )					
있음	1.5	0.9	97.6	100.0	(335)
없음	0.8	0.6	98.6	100.0	(718)
월평균 가구소득( $\chi^2=10.703$ )					
300만 원 미만	1.7	0.0	98.3	100.0	(17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0.7	0.4	98.9	100.0	(450)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7	1.7	96.7	100.0	(303)
700만 원 이상	0.0	0.0	100.0	100.0	(128)

주: 1)  $p < .05$  \*,  $p < .01$  \*\*,  $p < .001$  \*\*\*

2) 가중치 적용에 따라 전체 사례 수와 항목에 따른 사례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4절 소결

### 1. 결혼 및 출산

청년층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현상의 주된 이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미혼은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일자리,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 순으로 생각하는 반면, 기혼은 불안정한 일자리,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 주거 불안정 순으로 나타나 미혼과 기혼의 생각이 달랐

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미혼의 생각이 중요할 텐데, 남성은 주거 불안정이 가장 큰 이유였고, 여성은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미혼 남녀의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최근 남녀가 신혼집 마련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결혼 시 여성보다는 남성이 집에 대한 부담이 더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미혼과 기혼은 모두 결혼에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모두 65% 이상으로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기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각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미혼과 기혼의 차이를 보였다. 미혼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의 이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기혼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의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떤 이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미혼은 정신적 의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이었고, 기혼 역시 정신적 의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도 비교적 중요한 이점으로 나타나 미혼은 정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기혼은 좀 더 현실적인 이유까지도 포함되는 경향 차이를 보인다.

결혼의 단점에 대해서는 이점과 마찬가지로 미혼과 기혼 모두 60% 이상이 결혼에는 단점이 많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매우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보다도 미혼 여성이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과 기혼의 경우 모두 개인의 삶이 줄어들다는 부분을 가장 큰 단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노동 시간에 대한 정책이 더욱 발전·개선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개인의 삶이 줄어들어가는 부분은 기혼보다 미혼이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의 증가에 대한 것은 미혼모다 기혼의 경우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개인의 삶이 줄어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혼의 경우에 한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 소득을 함께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견해는 주요 단점은 아니었지만, 미혼과 기혼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생각하는 부분인 특징을 보였다. 반면, 가족 및 친지 대소사 등 챙겨야 하는 것이 많다는 점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생각하는 단점이었는데, 특히 기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 생활을 경험한 여성은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만큼이나 가족 모임이나 명절, 제사, 친지 결혼 등 신경 쓰는 일을 현실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미혼 여성보다도 이 이유를 결혼의 단점으로 꼽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기혼 남성에게는 본인 소득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이 가족 대소사를 챙기는 것보다 약간 더 큰 단점으로 나타나 가족 대소사를 챙기는 일에 대해 여성이 더 신경을 쓰는 현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제도가 평등한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혼은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하다는 의견과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의견에 주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기혼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입장과 남녀 모두에게 불평등하다는 입장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난 두 가지 응답이었다. 미혼과 기혼 모두 이 견해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모두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미혼과 기혼 모두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입장이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연령별로는 미혼과 기혼의 20대는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했지만,

20대 기혼의 경우는 이 의견에 대한 응답 비율이 과반수로 특히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결혼을 경험한 기혼 여성은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의견에, 결혼을 경험한 20대는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 것이다. 특히 남성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여성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제도 안에서의 경험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결혼이라는 것을 장래의 본인 자녀에게 적용해, 본인의 자녀가 또는 현재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 자녀가 결혼을 하기 바라는지, 하지 않기 바라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혼과 미혼 모두 자녀의 선택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고, 미혼의 경우는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에는 가능한 한 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미혼과 기혼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만남으로 여겨졌고, 그만큼 부모가 결혼에 개입하거나 결혼할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개인화되어 가고 결혼이 사회적으로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자녀의 선택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견이 매우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혼과 기혼의 경우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미혼보다 기혼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혼인신고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한 혼인신고 시기는 미혼과 기혼 모두 결혼 후 6개월 이내가 과반수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결혼 후 1년 이내이고, 그다음 높게 나타난 것이 기간과 무관하게 아이가 생겼을 때라는 의견으로 미혼과 기혼 모두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이 혼인신고의 기준이 되는 경향이 미혼 남성과 기혼 남성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벤트가 혼인신고의 시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혼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미혼과 기혼 모두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결혼 후 1년까지, 결혼 후 3년까지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혼은 미혼보다도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전까지라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신혼 기간의 기준에는 적절한 혼인신고 기간보다 실질적인 삶의 이벤트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2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둘만 생활을 하는 것을 신혼 생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혼 후 5년 또는 7년까지 신혼이라는 응답 비율은 매우 낮아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정책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신혼 기간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신혼 기간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언제 임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결혼 후 3년 이내, 1년 이내라는 것에 의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혼과 기혼 모두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응답에 집중되며, 아이 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자녀가 없는 생활에 대한 여유 및 편안함이라는 이유가 그 뒤를 잇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 중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있는 경우보다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신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응답에 차이를 보이며, 확실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이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과 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결국 경제적인 상황이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 준다.

## 2. 자녀 양육 및 돌봄

본 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및 돌봄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혼과 기혼의 인식 차이, 남녀 간의 인식 차이 등이 발견되었다.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등에 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국가보다 개인의 책임을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기혼의 경우 국가 책임 정도를 미혼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직접 경험하는 경우 국가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미혼의 경우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기혼의 경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미혼과 기혼 모두 낮게 조사되었다. 당초 양육 지원 정책의 확대는 저출산과 같은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해당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복지 추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영유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뒤이어 초등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영유아기 지원 정책은 무상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도입 등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초등 시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에 대해서 미혼과 기혼 모두 '제약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기혼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스스로도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 남녀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혼의 경우 '육아휴직·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혼의 경우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가 근소한 차이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미혼의 경우 관련 제도와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양육을 하는 기혼의 경우 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자녀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성평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에서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과 기혼의 경우 각각 50.0%, 65.2%로 조사되어 미혼보다 기혼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이나 가정 내 불평등에 대한 인식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아 남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부의 경제활동 상황에 따른 자녀 양육 및 돌봄 책임에 대한 조사 결과 맞벌이의 경우 '부부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98%로 매우 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육아는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가정 내 실태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가정 내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부부 경제활동에 따른 양육 책임을 조사한 결과가 이처럼 상이하게 나온 이유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 인식은 평등적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제 4 장

## 노인 돌봄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제2절 노인 돌봄에 관한 경험과 인식

제3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와 정책 요구

제4절 소결





# 4

## 노인 돌봄 <<

###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 1. 연구 목적

한국의 2019년 고령화율은 14.9%로 203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를 넘어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인구 감소 현상과 결합하면 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향후 급증하게 될 노인 돌봄에 대한 과제 검토는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개선과 선제적 대응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돌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향후 10~20년 내 노인 돌봄 당사자가 될 신중년과 예비 노인,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인구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당사자의 돌봄 욕구와 트렌드를 노인 보건복지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 2. 조사 개요 및 내용

조사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1주일간 전국 만 40세 이상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실시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의 실수요층인 만 4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

으로 돌봄 경험과 인식,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요구에 대해 질문하였다. 영역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였으며, 유·무선 RDD 번호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조사표는 선행 연구(內閣部, 1941; 정경희 외, 2017)에 근거해 조사 목적에 맞는 문항 개발 후 전문가 5명과의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표 4-1> 노인 돌봄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응답자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연령, 거주지 권역, 거주지 규모</li> <li>- 배우자 및 자녀 유무,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li> <li>- 본인 및 배우자 취업 여부, 가구 형태</li> </ul>
가족 및 친척의 돌봄 경험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이 필요한 가족/친척 유무</li> <li>- 일주일 이상 가족/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험</li> <li>- 노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한 경험</li> <li>- 본인이 노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발생할 어려움</li> <li>- 가족이 노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발생할 어려움</li> <li>- 돌봄 필요 노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li> <li>- 돌봄 필요 시 적절한 한 달 간병비</li> <li>- 노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li> <li>- 노후 돌봄 필요 시 돌봄을 받고 싶은 장소</li> <li>- 본인의 집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li> <li>-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li> <li>- 노인요양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li> </ul>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 인지도</li> <li>-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li> <li>- 돌봄 필요 노인 증가에 따라 정부가 증점 추진해야 할 대책</li> </ul>

### 3. 표본설계 개요

#### 가. 모집단 현황

조사 대상자는 전국<sup>1)</sup> 만 40세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층화이단추출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중고령자(40~50대), 전기 노인(60~64세), 후기 노인(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거주지는 5개 권역, 거주지 규모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표본 추출 틀로 활용하였다.

#### 나. 표본설계

본 연구는 연령대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500명을 균등 할당한 뒤, 거주지 권역별, 거주지 규모별, 성별로 비례배분하였다. 표본 배분을 위한 비례배분 적용식은 아래와 같다.

$$n_h = 500 \times \frac{N_h}{\sum N_h}$$

여기서  $N_h$ 는  $h$ 연령대 내의 거주지 권역별, 거주지 규모별, 성별로 구분된 세부 셀의 인구수를 의미한다.  $h$ 연령대의 전체 인구수 대비 셀별 인구수 비율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분하였다.

1) 제주 지역은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어서 서술되는 모집단 정보와 표본설계 내용은 모두 서울/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권역에 대한 내용임.

〈표 4-2〉 표본배분(비례배분)

(단위: 명)

구분	40~50대				60~64세				65세 이상				계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서울/수도권	122	123	9	8	111	115	10	9	91	118	9	11	736
충청권	22	22	7	6	20	20	9	8	16	21	9	13	173
강원권	4	4	3	2	4	4	4	4	3	5	4	5	46
호남권	17	17	7	5	15	16	9	8	14	19	11	16	154
영남권	52	53	9	8	54	57	12	11	44	59	13	19	391
계	500				500				500				1500

#### 다. 조사 진행 절차

설문 문항 검토,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실사 진행, 자료 검증, 자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단계별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3〉 노인 돌봄 관련 국민 인식 조사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설문 작성	유사 조사 연구 및 관련 문항 검토 조사 방법에 적합한 설문 구성 및 문항 내용에 대한 연구진 협의
표본 할당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따른 비례배분 실시
조사원 선발	사회복지 분야 여론조사 및 인식 조사 경험 조사원 선발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조사 경험 조사원 우선 선발
조사 준비	CATI 프로그램 내 설문 환경 구축 유·무선 RDD 번호 생성, PDS 시스템 업로드
조사원 교육	표준화된 조사 내용을 위한 집체교육 조사 수행 기관 서울 본사에서 실시
실사 진행	실사 진행
검증	전화 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검증 및 사후 녹취콜 검증 실시
자료 처리	조사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방안 협의

## 라. 자료 분석

전국 40세 이상 국민 1507명이 응답하였고, 분석은 SPSS for Windows 21을 사용해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응답자 특성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47.4%, 여성이 52.6%를 나타내었다. 40~50대가 33.5%, 60~64세가 33.2%, 65세 이상이 33.3%를 차지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서울/수도권이 48.8%로 많았고, 이어서 영남권이 25.9%였다. 응답자의 82.4%는 도시에 거주했고 17.6%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했다. 응답자의 74.3%가 기혼이었고, 이혼 및 사별, 미혼인 경우는 25.8%였다. 응답자의 91.6%가 자녀가 있었고,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중졸 이하가 29.5%, 고졸이 31.4%, 3년제를 포함해 대졸 이상이 39.1%였다. 응답자 중 본인이 취업한 경우는 57.3%,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는 52.5%였다. 응답자는 부부동거 가구가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36.8%, 1인 가구는 17.9%나 되었다.

〈표 4-4〉 응답자 특성

	항목	비율(%)	(명)
전체		100.0	(1507)
성			
	남성	47.4	(715)
	여성	52.6	(792)
연령			
	40~50대	33.5	(505)
	60~64세	33.2	(500)
	65세 이상	33.3	(502)
거주 지역			
	서울/수도권	48.8	(736)

15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항목	비율(%)	(명)
총청권	11.5	(174)
강원권	3.3	(50)
호남권	10.4	(156)
영남권	25.9	(391)
거주 지역 규모		
도시 지역	82.4	(1242)
농어촌 지역	17.6	(265)
배우자 유무		
미혼	5.0	(75)
기혼	74.3	(1119)
이혼 및 사별	20.8	(313)
자녀 유무		
있음	91.6	(1380)
없음	8.4	(12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9.5	(444)
고졸	31.4	(473)
대졸(3년제 이하)	8.2	(124)
대졸(4년제 이상)	24.2	(365)
대학원 이상	6.7	(101)
월평균 가구소득		
50만 원 미만	10.6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10.9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6.6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6.4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9.7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12.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9.6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9.4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4.2	(64)
700만 원 이상	10.6	(159)
본인 취업 여부		
취업	57.3	(864)
미취업	42.7	(643)
배우자 취업 여부		
취업	52.5	(587)
미취업	47.5	(532)
가구 형태		
1인 가구	17.9	(269)
부부 가구	39.0	(588)
자녀와 동거	36.8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2.5	(37)
기타	3.8	(58)

## 제2절 노인 돌봄에 관한 경험과 인식

### 1. 노인 돌봄 경험과 돌봄 필요에 따른 불안 경험

#### 가. 노인 돌봄 경험

가족이나 친척 중 와상, 보행 불능, 중풍, 치매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60~64세의 응답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높았고, 이어서 40대~50대가 25.9%였다. 65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은 17.5%였다(〈표 4-5〉 참조).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 일주일 이상 돌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7.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주일 이상 돌봄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와 60~64세에서 일주일 이상 돌봄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8.7%, 31.8%로 높게 나타났다(〈표 4-6〉 참조).

〈표 4-5〉 돌봄이 필요한 가족/친척 여부

(단위: %, 명)

항목	있다	없다	계	(명)
전체	23.2 (349)	76.8 (1158)	100.0	(1507)
성( $\chi^2=0.192$ )				
남성	22.7 (162)	77.3 (553)	100.0	(715)
여성	23.6 (187)	76.4 (605)	100.0	(792)
연령( $\chi^2=13.402^{**}$ )				
40~50대	25.9 (131)	74.1 (374)	100.0	(505)
60~64세	26.0 (130)	74.0 (370)	100.0	(500)
65세 이상	17.5 (88)	82.5 (414)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5.090$ )				
서울/수도권	25.5 (188)	74.5 (548)	100.0	(736)
충청권	22.4 (39)	77.6 (135)	100.0	(174)

항목	있다	없다	계	(명)
강원권	20.0 (10)	80.0 (40)	100.0	(50)
호남권	19.2 (30)	80.8 (126)	100.0	(156)
영남권	21.0 (82)	79.0 (309)	100.0	(391)
거주지 규모( $x^2=0.292$ )				
도시 지역	23.4 (291)	76.6 (951)	100.0	(1242)
농어촌 지역	21.9 (58)	78.1 (207)	100.0	(265)
배우자유무( $x^2=14.719^{**}$ )				
미혼	25.3 (19)	74.7 (56)	100.0	(75)
기혼	25.3 (283)	74.7 (836)	100.0	(1119)
이혼 및 사별	15.0 (47)	85.0 (266)	100.0	(313)
자녀 유무( $x^2=0.622$ )				
있음	22.9 (316)	77.1 (1064)	100.0	(1380)
없음	26.0 (33)	74.0 (94)	100.0	(127)
최종 학력( $x^2=21.471^{***}$ )				
중졸 이하	15.8 (70)	84.2 (374)	100.0	(444)
고졸	24.3 (115)	75.7 (358)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27.4 (34)	72.6 (90)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28.5 (104)	71.5 (261)	100.0	(365)
대학원 이상	25.7 (26)	74.3 (75)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x^2=22.975^{**}$ )				
50만 원 미만	18.9 (30)	81.1 (129)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21.2 (35)	78.8 (130)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22.0 (22)	78.0 (78)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18.8 (18)	81.3 (78)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8.5 (55)	81.5 (242)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26.5 (48)	73.5 (133)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30.6 (44)	69.4 (100)	100.0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34.5 (49)	65.5 (93)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20.3 (13)	79.7 (51)	100.0	(64)
700만 원 이상	22.0 (35)	78.0 (124)	100.0	(159)
본인 취업 여부( $x^2=0.000$ )				
취업	23.1 (200)	76.9 (664)	100.0	(864)
미취업	23.2 (149)	76.8 (494)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x^2=0.004$ )				
취업	25.2 (148)	74.8 (439)	100.0	(587)
미취업	25.4 (135)	74.6 (397)	100.0	(532)
가구 형태( $x^2=36.273^{***}$ )				
1인 가구	13.8 (37)	86.2 (232)	100.0	(269)
부부 가구	22.8 (134)	77.2 (454)	100.0	(588)
자녀와 동거	26.3 (146)	73.7 (409)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13.5 (5)	86.5 (32)	100.0	(37)
기타	46.6 (27)	53.4 (31)	100.0	(58)

주 : p<.05 \*, p<.01 \*\*, p<.001 \*\*\*



〈표 4-6〉 일주일 이상 가족/친척에게 돌봄 제공 경험

(단위: %, 명)

항목	있다	없다	계	(명)
전체	27.4 (413)	72.6 (1094)	100.0	(1507)
성( $\chi^2=2.989$ )				
남성	25.3 (181)	74.7 (534)	100.0	(715)
여성	29.3 (232)	70.7 (560)	100.0	(792)
연령( $\chi^2=13.463^{**}$ )				
40~50대	28.7 (145)	71.3 (360)	100.0	(505)
60~64세	31.8 (159)	68.2 (341)	100.0	(500)
65세 이상	21.7 (109)	78.3 (393)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1.303$ )				
서울/수도권	26.8 (197)	73.2 (539)	100.0	(736)
충청권	27.0 (47)	73.0 (127)	100.0	(174)
강원권	34.0 (17)	66.0 (33)	100.0	(50)
호남권	27.6 (43)	72.4 (113)	100.0	(156)
영남권	27.9 (109)	72.1 (282)	100.0	(391)
거주지 규모( $\chi^2=0.009$ )				
도시 지역	27.5 (341)	72.5 (901)	100.0	(1242)
농어촌 지역	27.2 (72)	72.8 (193)	100.0	(265)
배우자 유무( $\chi^2=0.519$ )				
미혼	25.3 (19)	74.7 (56)	100.0	(75)
기혼	27.9 (312)	72.1 (807)	100.0	(1119)
이혼 및 사별	26.2 (82)	73.8 (231)	100.0	(313)
자녀 유무( $\chi^2=0.340$ )				
있음	27.6 (381)	72.4 (999)	100.0	(1380)
없음	25.2 (32)	74.8 (95)	100.0	(127)
최종 학력( $\chi^2=11.779^*$ )				
중졸 이하	22.5 (100)	77.5 (344)	100.0	(444)
고졸	26.4 (125)	73.6 (348)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33.1 (41)	66.9 (83)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32.1 (117)	67.9 (248)	100.0	(365)
대학원 이상	29.7 (30)	70.3 (71)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chi^2=22.504^{**}$ )				
50만 원 미만	18.2 (29)	81.8 (130)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27.3 (45)	72.7 (120)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22.0 (22)	78.0 (78)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18.8 (18)	81.3 (78)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9.6 (88)	70.4 (209)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34.3 (62)	65.7 (119)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35.4 (51)	64.6 (93)	100.0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29.6 (42)	70.4 (100)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23.4 (15)	76.6 (49)	100.0	(64)
700만 원 이상	25.8 (41)	74.2 (118)	100.0	(159)

항목	있다	없다	계	(명)
본인 취업 여부( $\chi^2=2.382$ )				
취업	28.9 (250)	71.1 (614)	100.0	(864)
미취업	25.3 (163)	74.7 (480)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4.754^*$ )				
취업	30.7 (180)	69.3 (407)	100.0	(587)
미취업	24.8 (132)	75.2 (400)	100.0	(532)
가구 형태( $\chi^2=5.745$ )				
1인 가구	23.8 (64)	76.2 (205)	100.0	(269)
부부 가구	26.0 (153)	74.0 (435)	100.0	(588)
자녀와 동거	30.8 (171)	69.2 (384)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24.3 (9)	75.7 (28)	100.0	(37)
기타	27.6 (16)	72.4 (42)	100.0	(58)

주 : p<.05 \*, p<.01 \*\*, p<.001 \*\*\*

### 나. 돌봄 필요에 따른 불안 경험

자신이 노후에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노후 돌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52.4%로 남성보다 노후 돌봄이 필요할까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64세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40~50대의 불안 정도가 높았다.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에 노후 돌봄이 필요하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7%로 높게 나타났고, 미혼의 경우 불안도가 낮았다.

〈표 4-7〉 노후 중풍/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까 봐 불안했던 경험

(단위: %,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13.9 (210)	20.2 (304)	17.7 (266)	34.3 (517)	13.9 (210)	100.0	(1507)
성( $\chi^2=27.994^{***}$ )							
남성	18.3 (131)	20.1 (144)	17.9 (128)	29.5 (211)	14.1 (101)	100.0	(715)
여성	10.0 (79)	20.2 (160)	17.4 (138)	38.6 (306)	13.8 (109)	100.0	(792)
연령( $\chi^2=32.105^{***}$ )							
40~50대	14.5 (73)	14.1 (71)	23.4 (118)	34.1 (172)	14.1 (71)	100.0	(505)
60~64세	13.8 (69)	21.0 (105)	15.2 (76)	36.4 (182)	13.6 (68)	100.0	(500)
65세 이상	13.5 (68)	25.5 (128)	14.3 (72)	32.5 (163)	14.1 (71)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15.058$ )							
서울/수도권	12.8 (94)	19.0 (140)	19.2 (141)	35.3 (260)	13.7 (101)	100.0	(736)
충청권	13.2 (23)	21.8 (38)	14.4 (25)	33.3 (58)	17.2 (30)	100.0	(174)
강원권	16.0 (8)	16.0 (8)	12.0 (6)	42.0 (21)	14.0 (7)	100.0	(50)
호남권	14.1 (22)	16.7 (26)	17.9 (28)	34.6 (54)	16.7 (26)	100.0	(156)
영남권	16.1 (63)	23.5 (92)	16.9 (66)	31.7 (124)	11.8 (46)	100.0	(391)
거주지 규모( $\chi^2=8.051$ )							
도시 지역	13.2 (164)	20.0 (249)	18.5 (230)	34.9 (433)	13.4 (166)	100.0	(1242)
농어촌 지역	17.4 (46)	20.8 (55)	13.6 (36)	31.7 (84)	16.6 (44)	100.0	(265)
배우자 유무( $\chi^2=23.778^{**}$ )							
미혼	22.7 (17)	10.7 (8)	28.0 (21)	28.0 (21)	10.7 (8)	100.0	(75)
기혼	14.1 (158)	19.9 (223)	18.3 (205)	34.3 (384)	13.3 (149)	100.0	(1119)
이혼 및 사별	11.2 (35)	23.3 (73)	12.8 (40)	35.8 (112)	16.9 (53)	100.0	(313)
자녀 유무( $\chi^2=13.183^*$ )							
있음	13.6 (187)	21.1 (291)	17.0 (234)	34.3 (474)	14.1 (194)	100.0	(1380)
없음	18.1 (23)	10.2 (13)	25.2 (32)	33.9 (43)	12.6 (16)	100.0	(127)
최종 학력( $\chi^2=16.491$ )							
중졸 이하	13.3 (59)	24.3 (108)	15.5 (69)	33.3 (148)	13.5 (60)	100.0	(444)
고졸	15.2 (72)	17.1 (81)	17.5 (83)	35.5 (168)	14.6 (69)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16.1 (20)	19.4 (24)	18.5 (23)	34.7 (43)	11.3 (14)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11.5 (42)	20.3 (74)	19.5 (71)	32.9 (120)	15.9 (58)	100.0	(365)
대학원 이상	16.8 (17)	16.8 (17)	19.8 (20)	37.6 (38)	8.9 (9)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chi^2=55.198^*$ )							
50만 원 미만	8.8 (14)	25.2 (40)	11.3 (18)	33.3 (53)	21.4 (34)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10.9 (18)	21.2 (35)	16.4 (27)	32.1 (53)	19.4 (32)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16.0 (16)	20.0 (20)	15.0 (15)	35.0 (35)	14.0 (14)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16.7 (16)	16.7 (16)	13.5 (13)	40.6 (39)	12.5 (12)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8.2 (54)	21.9 (65)	20.9 (62)	29.6 (88)	9.4 (28)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17.7 (32)	18.2 (33)	19.9 (36)	30.4 (55)	13.8 (25)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11.1 (16)	20.1 (29)	19.4 (28)	36.1 (52)	13.2 (19)	100.0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7.7 (11)	20.4 (29)	16.2 (23)	44.4 (63)	11.3 (16)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10.9 (7)	18.8 (12)	20.3 (13)	40.6 (26)	9.4 (6)	100.0	(64)
700만 원 이상	16.4 (26)	15.7 (25)	19.5 (31)	33.3 (53)	15.1 (24)	100.0	(159)
본인 취업 여부( $\chi^2=11.638^*$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취업	14.6 (126)	18.9 (163)	19.8 (171)	34.5 (298)	12.3 (106)	100.0	(864)
미취업	13.1 (84)	21.9 (141)	14.8 (95)	34.1 (219)	16.2 (104)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7.773$ )							
취업	13.5 (79)	17.2 (101)	19.3 (113)	36.8 (216)	13.3 (78)	100.0	(587)
미취업	14.8 (79)	22.9 (122)	17.3 (92)	31.6 (168)	13.3 (71)	100.0	(532)
가구 형태( $\chi^2=12.898$ )							
1인 가구	12.6 (34)	21.2 (57)	16.4 (44)	33.8 (91)	16.0 (43)	100.0	(269)
부부 가구	13.9 (82)	19.6 (115)	17.0 (100)	35.4 (208)	14.1 (83)	100.0	(588)
자녀와 동거	13.5 (75)	20.0 (111)	18.9 (105)	34.6 (192)	13.0 (72)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16.2 (6)	32.4 (12)	10.8 (4)	29.7 (11)	10.8 (4)	100.0	(37)
기타	22.4 (13)	15.5 (9)	22.4 (13)	25.9 (15)	13.8 (8)	100.0	(58)

주 : p<.05 \*, p<.01 \*\*, p<.001 \*\*\*

#### 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응답자 본인이 노후에 중풍이나 치매로 돌봄이 필요하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32.9%가 ‘돌봄(간병)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안겨 주는 것’(29.5%), ‘돌봄(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11.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64세(30.6%)와 65세 이상(30.5%)보다 40~50대(37.6%)에서 ‘돌봄(간병)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00만~150만 원 미만 구간에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타 소득 구간 대비 높게 느끼고 있었다(〈표 4-8〉 참조).

유사하게 가족 중 누군가가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돌봄(간병)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39.9%)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 응답하였다. 이어서 ‘돌봄(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담 증가’(19.8%), ‘집을 비울 수 없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것’(13.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돌봄(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담 증가’를 고민하고 있었다(〈표 4-9〉 참조).

〈표 4-8〉 노후 중풍/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할 어려움

(단위: %, 명)

항목	돌봄(간병)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안겨 주는 것	돌봄(간병)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	정든 집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	기타	특별한 어려움 없음	계 (명)
전체	32.9(496)	29.5(445)	11.8(178)	7.7(116)	4.4(67)	0.5(7)	13.1(198)	100.0 (1507)
성( $\chi^2=4.184$ )								
남성	31.2(223)	30.8(220)	11.3(81)	8.7(62)	4.3(31)	0.6(4)	13.1(94)	100.0 (715)
여성	34.5(273)	28.4(225)	12.2(97)	6.8(54)	4.5(36)	0.4(3)	13.1(104)	100.0 (792)
연령( $\chi^2=67.405^{***}$ )								
40~50대	37.6(190)	32.9(166)	9.5(48)	9.9(50)	2.0(10)	0.4(2)	7.7(39)	100.0 (505)
60~64세	30.6(153)	31.8(159)	12.2(61)	8.0(40)	5.6(28)	0.4(2)	11.4(57)	100.0 (500)
65세 이상	30.5(153)	23.9(120)	13.7(69)	5.2(26)	5.8(29)	0.6(3)	20.3(102)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26.552$ )								
서울/수도권	32.2(237)	31.5(232)	12.6(93)	6.8(50)	4.6(34)	0.8(6)	11.4(84)	100.0 (736)
충청권	31.0(54)	31.0(54)	12.1(21)	9.2(16)	4.6(8)	0.0(0)	12.1(21)	100.0 (174)
강원권	36.0(18)	28.0(14)	14.0(7)	0.0(0)	2.0(1)	0.0(0)	20.0(10)	100.0 (50)
호남권	31.4(49)	30.1(47)	10.3(16)	10.9(17)	4.5(7)	0.6(1)	12.2(19)	100.0 (156)
영남권	35.3(138)	25.1(98)	10.5(41)	8.4(33)	4.3(17)	0.0(0)	16.4(64)	100.0 (391)
거주지 규모( $\chi^2=5.790$ )								
도시 지역	33.8(420)	30.0(372)	11.4(142)	7.3(91)	4.3(53)	0.5(6)	12.7(158)	100.0 (1242)
농어촌 지역	28.7(76)	27.5(73)	13.6(36)	9.4(25)	5.3(14)	0.4(1)	15.1(40)	100.0 (265)
배우자 유무( $\chi^2=79.905^{***}$ )								
미혼	48.0(36)	14.7(11)	18.7(14)	10.7(8)	2.7(2)	0.0(0)	5.3(4)	100.0 (75)
기혼	31.8(356)	33.5(375)	8.8(99)	8.3(93)	4.8(54)	0.4(4)	12.3(138)	100.0 (1119)
이혼 및 사별	33.2(104)	18.8(59)	20.8(65)	4.8(15)	3.5(11)	1.0(3)	17.9(56)	100.0 (313)
자녀 유무( $\chi^2=30.335^{***}$ )								
있음	32.0(442)	30.7(423)	10.9(151)	7.5(103)	4.6(64)	0.4(6)	13.8(191)	100.0 (1380)
없음	42.5(54)	17.3(22)	21.3(27)	10.2(13)	2.4(3)	0.8(1)	5.5(7)	100.0 (127)
최종 학력( $\chi^2=85.183^{***}$ )								
중졸 이하	36.5(162)	20.9(93)	12.6(56)	3.4(15)	5.6(25)	0.7(3)	20.3(90)	100.0 (444)
고졸	33.4(158)	30.7(145)	11.2(53)	7.8(37)	4.7(22)	0.0(0)	12.3(58)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34.7(43)	29.0(36)	11.3(14)	8.9(11)	4.0(5)	0.0(0)	12.1(15)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30.4(111)	36.7(134)	10.4(38)	11.5(42)	3.0(11)	0.8(3)	7.1(26)	100.0 (365)
대학원 이상	21.8(22)	36.6(37)	16.8(17)	10.9(11)	4.0(4)	1.0(1)	8.9(9)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chi^2=149.611^{***}$ )								
50만 원 미만	36.5(58)	18.2(29)	19.5(31)	5.0(8)	4.4(7)	0.0(0)	16.4(26)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39.4(65)	17.6(29)	16.4(27)	4.8(8)	6.1(10)	0.6(1)	15.2(25)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42.0(42)	24.0(24)	9.0(9)	3.0(3)	5.0(5)	0.0(0)	17.0(17)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36.5(35)	27.1(26)	15.6(15)	5.2(5)	3.1(3)	1.0(1)	11.5(11)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2.3(96)	25.6(76)	12.1(36)	6.1(18)	5.4(16)	1.0(3)	17.5(52)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34.3(62)	38.1(69)	10.5(19)	5.0(9)	4.4(8)	0.0(0)	7.7(14)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30.6(44)	38.9(56)	5.6(8)	8.3(12)	4.9(7)	1.4(2)	10.4(15)	100.0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29.6(42)	38.7(55)	12.0(17)	9.9(14)	2.8(4)	0.0(0)	7.0(10)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31.3(20)	37.5(24)	12.5(8)	9.4(6)	1.6(1)	0.0(0)	7.8(5)	100.0 (64)
700만 원 이상	20.1(32)	35.8(57)	5.0(8)	20.8(33)	3.8(6)	0.0(0)	14.5(23)	100.0 (159)

16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항목	돌봄(간병)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안겨 주는 것	돌봄(간병)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	정든 집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	기타	특별한 어려움 없음	계	(명)
본인 취업 여부( $\chi^2=7.842$ )									
취업	32.1(277)	31.7(274)	10.8(93)	8.3(72)	4.4(38)	0.5(4)	12.3(106)	100.0	(864)
미취업	34.1(219)	26.6(171)	13.2(85)	6.8(44)	4.5(29)	0.5(3)	14.3(92)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18.125^{**}$ )									
취업	34.9(205)	34.8(204)	7.3(43)	8.9(52)	4.6(27)	0.2(1)	9.4(55)	100.0	(587)
미취업	28.4(151)	32.1(171)	10.5(56)	7.7(41)	5.1(27)	0.6(3)	15.6(83)	100.0	(532)
가구 형태( $\chi^2=83.171^{***}$ )									
1인 가구	34.2(92)	16.4(44)	21.6(58)	6.7(18)	3.3(9)	0.7(2)	17.1(46)	100.0	(269)
부부 가구	31.3(184)	29.9(176)	10.7(63)	8.0(47)	5.8(34)	0.3(2)	13.9(82)	100.0	(588)
자녀와 동거	34.2(190)	35.7(198)	8.1(45)	8.3(46)	3.4(19)	0.5(3)	9.7(54)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21.6(8)	35.1(13)	5.4(2)	5.4(2)	2.7(1)	0.0(0)	29.7(11)	100.0	(37)
기타	37.9(22)	24.1(14)	17.2(10)	5.2(3)	6.9(4)	0.0(0)	8.6(5)	100.0	(58)

주 : p<.05 \*, p<.01 \*\*, p<.001 \*\*\*

<표 4-9> 가족 중 중풍/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발생할 어려움

(단위: %, 명)

항목	돌봄(간병)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	돌봄(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담 증가	집을 비울 수 없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것	돌봄(간병)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 증가	적절한 돌봄(간병) 기술을 모르는 것	기타	특별한 어려움 없음	계	(명)
전체 ( $\chi^2=18.726^{**}$ )									
남성	42.2(302)	19.9(142)	13.7(98)	7.8(56)	5.3(38)	0.3(2)	10.8(77)	100.0	(715)
여성	37.8(299)	19.8(157)	13.3(105)	14.5(115)	3.8(30)	0.3(2)	10.6(84)	100.0	(792)
연령( $\chi^2=64.191^{***}$ )									
40-50대	40.2(203)	26.3(133)	13.9(70)	9.1(46)	5.3(27)	0.2(1)	5.0(25)	100.0	(505)
60-64세	41.0(205)	19.2(96)	14.8(74)	10.6(53)	3.8(19)	0.4(2)	10.2(51)	100.0	(500)
65세 이상	38.4(193)	13.9(70)	11.8(59)	14.3(72)	4.4(22)	0.2(1)	16.9(85)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32.698$ )									
서울/수도권	41.6(306)	20.8(153)	14.5(107)	11.5(85)	3.4(25)	0.3(2)	7.9(58)	100.0	(736)
충청권	37.9(66)	18.4(32)	10.9(19)	12.6(22)	6.3(11)	0.0(0)	13.8(24)	100.0	(174)
강원권	52.0(26)	8.0(4)	10.0(5)	10.0(5)	4.0(2)	0.0(0)	16.0(8)	100.0	(50)
호남권	33.3(52)	21.2(33)	16.7(26)	12.2(19)	6.4(10)	0.0(0)	10.3(16)	100.0	(156)
영남권	38.6(151)	19.7(77)	11.8(46)	10.2(40)	5.1(20)	0.5(2)	14.1(55)	100.0	(391)
거주지 규모( $\chi^2=2.162$ )									
도시 지역	40.0(497)	20.1(250)	13.4(167)	11.3(140)	4.5(56)	0.3(4)	10.3(128)	100.0	(1242)
농어촌 지역	39.2(104)	18.5(49)	13.6(36)	11.7(31)	4.5(12)	0.0(0)	12.5(33)	100.0	(265)
배우자 유무( $\chi^2=65.707^{***}$ )									
미혼	36.0(27)	29.3(22)	17.3(13)	5.3(4)	6.7(5)	1.3(1)	4.0(3)	100.0	(75)
기혼	39.4(441)	21.8(244)	14.1(158)	10.8(121)	4.9(55)	0.1(1)	8.8(99)	100.0	(1119)
이혼 및 사별	42.5(133)	10.5(33)	10.2(32)	14.7(46)	2.6(8)	0.6(2)	18.8(59)	100.0	(313)

항목	돌봄(간병)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	돌봄(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담 증가	집을 비울 수 없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것	돌봄(간병)으로 인한 돌봄(간병) 육체적 부담 증가	적절한 돌봄(간병) 기술을 모르는 것	기타	특별한 어려움 없음	계	(명)
자녀 유무( $\chi^2=11.138$ )									
있음	39.8(549)	19.3(267)	13.3(183)	11.7(162)	4.4(61)	0.2(3)	11.2(155)	100.0	(1380)
없음	40.9(52)	25.2(32)	15.7(20)	7.1(9)	5.5(7)	0.8(1)	4.7(6)	100.0	(127)
최종 학력( $\chi^2=97.400^{***}$ )									
중졸 이하	43.2(192)	9.9(44)	12.2(54)	12.2(54)	5.0(22)	0.2(1)	17.3(77)	100.0	(444)
고졸	42.5(201)	22.2(105)	12.1(57)	8.9(42)	3.0(14)	0.4(2)	11.0(52)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40.3(50)	21.0(26)	13.7(17)	16.9(21)	3.2(4)	0.0(0)	4.8(6)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34.2(125)	27.4(100)	16.2(59)	12.1(44)	5.2(19)	0.0(0)	4.9(18)	100.0	(365)
대학원 이상	32.7(33)	23.8(24)	15.8(16)	9.9(10)	8.9(9)	1.0(1)	7.9(8)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chi^2=115.595^{***}$ )									
50만 원 미만	54.7(87)	6.9(11)	6.3(10)	11.9(19)	3.8(6)	0.6(1)	15.7(25)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42.4(70)	13.9(23)	6.1(10)	16.4(27)	4.8(8)	0.6(1)	15.8(26)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41.0(41)	18.0(18)	17.0(17)	5.0(5)	5.0(5)	0.0(0)	14.0(14)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45.8(44)	14.6(14)	12.5(12)	10.4(10)	3.1(3)	1.0(1)	12.5(12)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7.4(111)	19.5(58)	15.2(45)	12.5(37)	3.4(10)	0.3(1)	11.8(35)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40.3(73)	23.2(42)	15.5(28)	11.0(20)	3.9(7)	0.0(0)	6.1(11)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38.2(55)	22.2(32)	16.0(23)	9.0(13)	4.9(7)	0.0(0)	9.7(14)	100.0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40.1(57)	28.2(40)	11.3(16)	10.6(15)	7.7(11)	0.0(0)	2.1(3)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34.4(22)	26.6(17)	18.8(12)	9.4(6)	1.6(1)	0.0(0)	9.4(6)	100.0	(64)
700만 원 이상	25.8(41)	27.7(44)	18.9(30)	11.9(19)	6.3(10)	0.0(0)	9.4(15)	100.0	(159)
본인 취업 여부( $\chi^2=16.552^*$ )									
취업	40.2(347)	22.1(191)	13.1(113)	9.6(83)	5.2(45)	0.1(1)	9.7(84)	100.0	(864)
미취업	39.5(254)	16.8(108)	14.0(90)	13.7(88)	3.6(23)	0.5(3)	12.0(77)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10.097$ )									
취업	38.8(228)	23.9(140)	14.8(87)	11.1(65)	4.6(27)	0.0(0)	6.8(40)	100.0	(587)
미취업	40.0(213)	19.5(104)	13.3(71)	10.5(56)	5.3(28)	0.2(1)	11.1(59)	100.0	(532)
가구 형태( $\chi^2=66.557^{***}$ )									
1인 가구	42.8(115)	13.4(36)	10.0(27)	11.2(30)	3.3(9)	0.7(2)	18.6(50)	100.0	(269)
부부 가구	38.8(228)	20.2(119)	13.8(81)	12.2(72)	3.7(22)	0.2(1)	11.1(65)	100.0	(588)
자녀와 동거	41.4(230)	22.3(124)	14.2(79)	10.1(56)	5.8(32)	0.2(1)	5.9(33)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37.8(14)	8.1(3)	10.8(4)	16.2(6)	2.7(1)	0.0(0)	24.3(9)	100.0	(37)
기타	24.1(14)	29.3(17)	20.7(12)	12.1(7)	6.9(4)	0.0(0)	6.9(4)	100.0	(58)

주 : p<.05 \*, p<.01 \*\*, p<.001 \*\*\*

## 2.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적절 간병 비용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 노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개인과 국가로 나눌 때 국가의 책임은 전체 100% 중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문하

였다. 그 결과,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약 60%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평균 59.96%로 남성(평균 57.64%)에 비해 노인 돌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만 원 미만 구간(65.53%)이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게 응답하였고, 600만~700만 원 미만 구간(55.39%)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표 4-10〉 참조).

한 달에 지출 가능한 적절 돌봄(간병) 비용은 약 93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약 102만 원)이 여성(약 85만 원)보다 지출 가능한 적절 간병비의 금액을 높게 응답하였다. 거주지 권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약 98만 원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영남권이 가장 낮았다. 고소득층에서 한 달에 지출할 수 있는 간병비의 금액을 비교적 높게 응답하였다(〈표 4-11〉 참조).

〈표 4-10〉 중풍/치매로 인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100% 중 몇 %)

(단위: %)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86	18.72
성( $t=-2.403^*$ )		
남성	57.64	19.14
여성	59.96	18.28
연령( $F=2.258$ )		
40~50대	57.55	18.54
60~64세	58.99	17.96
65세 이상	60.05	19.57
거주지 권역( $F=2.069$ )		
서울/수도권	59.07	18.35
충청권	60.32	20.30
강원권	58.90	19.91
호남권	61.28	20.37
영남권	56.85	17.71
거주지 규모( $t=-1.324$ )		
도시 지역	58.55	18.35
농어촌 지역	60.34	20.34



항목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 유무(F=3.525*)		
미혼	58.87	21.69
기혼	58.17	18.36
이혼 및 사별	61.34	19.08
자녀 유무(t=-1.975)		
있음	58.54	18.49
없음	62.32	20.82
최종 학력(F=3.565**)		
중졸 이하	60.67	19.54
고졸	58.18	18.04
대졸(3년제 이하)	61.29	19.62
대졸(4년제 이상)	58.05	17.80
대학원 이상	54.06	19.35
월평균 가구소득(F=4.295***)		
50만 원 미만	65.53	22.85
50만 원~100만 원 미만	61.24	19.53
100만 원~150만 원 미만	61.90	18.62
150만 원~200만 원 미만	57.03	17.04
200만 원~300만 원 미만	58.43	18.31
300만 원~400만 원 미만	55.88	16.17
400만 원~500만 원 미만	56.91	17.08
500만 원~600만 원 미만	58.84	17.33
600만 원~700만 원 미만	55.39	17.44
700만 원 이상	56.30	19.15
본인 취업 여부(t=-1.688)		
취업	58.16	18.15
미취업	59.81	19.43
배우자 취업 여부(t=0.736)		
취업	58.55	18.05
미취업	57.74	18.71
가구 형태(F=2.007)		
1인 가구	61.54	19.89
부부 가구	58.24	18.85
자녀와 동거	58.66	18.27
자녀/손자녀와 동거	56.62	15.28
기타	56.12	17.30

주 : p<.05 \*, p<.01 \*\*, p<.001 \*\*\*

<표 4-11> 중풍/치매로 인한 돌봄 필요 시, 적절한 간병비

(단위: 만 원)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체	93.17	65.17
성(t=5.008***)		
남성	101.95	67.57
여성	85.24	61.90
연령(F=2.798)		
40~50대	97.55	69.88
60~64세	93.98	62.72
65세 이상	87.95	62.34
거주지 권역(F=2.615*)		
서울/수도권	98.08	66.95
충청권	91.68	61.14
강원권	96.56	76.19
호남권	90.26	66.37
영남권	85.31	60.82
거주지 규모(t=1.098)		
도시 지역	94.02	65.98
농어촌 지역	89.18	61.16
배우자 유무(F=4.671*)		
미혼	115.47	78.62
기혼	91.79	63.88
이혼 및 사별	92.77	65.45
자녀 유무(t=-2.289*)		
있음	91.82	63.89
없음	107.83	76.43
최종 학력(F=7.629***)		
중졸 이하	80.68	54.72
고졸	95.20	66.17
대졸(3년제 이하)	95.70	69.81
대졸(4년제 이상)	99.25	68.03
대학원 이상	113.51	76.88
월평균 가구소득(F=2.443**)		
50만 원 미만	86.78	63.72
50만 원~100만 원 미만	79.75	52.09
100만 원~150만 원 미만	85.05	72.94
150만 원~200만 원 미만	82.92	60.73
200만 원~300만 원 미만	95.97	67.15
300만 원~400만 원 미만	101.66	70.84
400만 원~500만 원 미만	93.54	62.40
500만 원~600만 원 미만	95.38	62.84
600만 원~700만 원 미만	103.67	67.95
700만 원 이상	103.36	66.41

항목	평균	표준편차
본인 취업 여부(t=2.677**)		
취업	97.04	65.68
미취업	87.97	64.16
배우자 취업 여부(t=1.146)		
취업	93.87	65.65
미취업	89.49	61.84
가구 형태(F=2.750*)		
1인 가구	98.86	69.45
부부 가구	89.87	62.63
자녀와 동거	92.75	64.23
자녀/손자녀와 동거	78.78	48.47
기타	113.36	82.02

주 : p<.05 \*, p<.01 \*\*, p<.001 \*\*\*

### 3. 노후 돌봄 과정에 대한 준비

#### 가. 돌봄 상황에 대한 준비

노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21.4%가 ‘저축 등을 통한 경제 면에서의 대비’를 하고 있었고, ‘민간 간병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7.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노후 돌봄에 대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저축 등을 통한 경제 면에서의 대비’와 ‘민간 간병보험 등에 가입’에 대한 응답이 각각 29.7%, 26.5%로 타 연령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이 60.8%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50만 원 미만 구간과 50만~1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노후 돌봄에 대한 준비 없음’의 응답 비율이 각각 73.6%, 68.5%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노후 돌봄에 대한 준비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표 4-12> 노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

(단위: %, 명)

항목	저축 등을 통한 경제 면에서의 대비	민간 간병보험 등에 가입	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 기관,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가족에게 돌봄(간병)을 해 줄 것을 부탁	기타	특별히 없음	계 (명)
전체	21.4(322)	17.4(262)	10.3(155)	4.1(62)	0.2(3)	46.6(703)	100.0 (1507)
성( $\chi^2=14.042$ )							
남성	23.1(165)	14.5(104)	8.7(62)	4.5(32)	0.3(2)	49.0(350)	100.0 (715)
여성	19.8(157)	19.9(158)	11.7(93)	3.8(30)	0.1(1)	44.6(353)	100.0 (792)
연령( $\chi^2=148.917^{***}$ )							
40~50대	29.7(150)	26.5(134)	8.5(43)	0.8(4)	0.2(1)	34.3(173)	100.0 (505)
60~64세	19.8(99)	16.6(83)	14.2(71)	4.2(21)	0.2(1)	45.0(225)	100.0 (500)
65세 이상	14.5(73)	9.0(45)	8.2(41)	7.4(37)	0.2(1)	60.8(305)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16.485$ )							
서울/수도권	23.8(175)	17.8(131)	10.5(77)	3.5(26)	0.1(1)	44.3(326)	100.0 (736)
충청권	21.3(37)	19.0(33)	9.2(16)	6.3(11)	0.6(1)	43.7(76)	100.0 (174)
강원권	10.0(5)	20.0(10)	14.0(7)	4.0(2)	0.0(0)	52.0(26)	100.0 (50)
호남권	19.9(31)	16.0(25)	11.5(18)	3.8(6)	0.0(0)	48.7(76)	100.0 (156)
영남권	18.9(74)	16.1(63)	9.5(37)	4.3(17)	0.3(1)	50.9(199)	100.0 (391)
거주지 규모( $\chi^2=10.067$ )							
도시 지역	22.0(273)	18.4(229)	10.3(128)	3.9(49)	0.2(2)	45.2(561)	100.0 (1242)
농어촌 지역	18.5(49)	12.5(33)	10.2(27)	4.9(13)	0.4(1)	53.6(142)	100.0 (265)
배우자 유무( $\chi^2=31.756^{***}$ )							
미혼	20.0(15)	22.7(17)	9.3(7)	2.7(2)	0.0(0)	45.3(34)	100.0 (75)
기혼	23.6(264)	18.3(205)	10.5(118)	4.2(47)	0.2(2)	43.2(483)	100.0 (1119)
이혼 및 사별	13.7(43)	12.8(40)	9.6(30)	4.2(13)	0.3(1)	59.4(186)	100.0 (313)
자녀 유무( $\chi^2=3.930$ )							
있음	21.6(298)	17.1(236)	10.1(140)	4.3(60)	0.2(3)	46.6(643)	100.0 (1380)
없음	18.9(24)	20.5(26)	11.8(15)	1.6(2)	0.0(0)	47.2(60)	100.0 (127)
최종 학력( $\chi^2=129.743^{***}$ )							
중졸 이하	11.7(52)	11.0(49)	6.8(30)	6.5(29)	0.2(1)	63.7(283)	100.0 (444)
고졸	18.8(89)	21.1(100)	11.8(56)	3.2(15)	0.2(1)	44.8(212)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25.0(31)	21.8(27)	12.9(16)	3.2(4)	0.0(0)	37.1(46)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30.7(112)	18.6(68)	12.3(45)	2.5(9)	0.3(1)	35.6(130)	100.0 (365)
대학원 이상	37.6(38)	17.8(18)	7.9(8)	5.0(5)	0.0(0)	31.7(32)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chi^2=253.138^{***}$ )							
50만 원 미만	5.7(9)	8.2(13)	3.1(5)	9.4(15)	0.0(0)	73.6(117)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10.9(18)	7.3(12)	7.9(13)	5.5(9)	0.0(0)	68.5(113)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16.0(16)	12.0(12)	10.0(10)	8.0(8)	0.0(0)	54.0(54)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15.6(15)	10.4(10)	13.5(13)	5.2(5)	0.0(0)	55.2(53)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8.5(55)	17.5(52)	12.8(38)	3.0(9)	0.3(1)	47.8(142)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16.6(30)	22.7(41)	16.0(29)	6.6(12)	0.0(0)	38.1(69)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33.3(48)	22.2(32)	7.6(11)	2.1(3)	0.0(0)	34.7(50)	100.0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35.2(50)	26.8(38)	10.6(15)	0.0(0)	0.7(1)	26.8(38)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31.3(20)	26.6(17)	9.4(6)	0.0(0)	0.0(0)	32.8(21)	100.0 (64)
700만 원 이상	38.4(61)	22.0(35)	9.4(15)	0.6(1)	0.6(1)	28.9(46)	100.0 (159)

항목	저축 등을 통한 경제 면에서의 대비	민간 간병보험 등에 가입	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 기관,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가족에게 돌봄(간병)을 해 줄 것을 부탁	기타	특별히 없음	계	(명)
본인 취업 여부( $\chi^2=98.017^{***}$ )								
취업	26.0(225)	22.7(196)	10.2(88)	2.3(20)	0.2(2)	38.5(333)	100.0	(864)
미취업	15.1(97)	10.3(66)	10.4(67)	6.5(42)	0.2(1)	57.5(370)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45.337^{***}$ )								
취업	24.9(146)	23.2(136)	11.2(66)	1.5(9)	0.3(2)	38.8(228)	100.0	(587)
미취업	22.2(118)	13.0(69)	9.8(52)	7.1(38)	0.0(0)	47.9(255)	100.0	(532)
가구 형태( $\chi^2=58.169^{***}$ )								
1인 가구	14.1(38)	14.5(39)	7.8(21)	4.5(12)	0.0(0)	59.1(159)	100.0	(269)
부부 가구	20.2(119)	15.8(93)	10.9(64)	5.6(33)	0.2(1)	47.3(278)	100.0	(588)
자녀와 동거	25.8(143)	20.7(115)	10.3(57)	2.3(13)	0.4(2)	40.5(225)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13.5(5)	21.6(8)	5.4(2)	10.8(4)	0.0(0)	48.6(18)	100.0	(37)
기타	29.3(17)	12.1(7)	19.0(11)	0.0(0)	0.0(0)	39.7(23)	100.0	(58)

주 : p<.05 \*, p<.01 \*\*, p<.001 \*\*\*

## 나. 돌봄을 받고 싶은 장소와 이유

### 1) 돌봄을 받고 싶은 장소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돌봄을 받고 싶은 장소에 대해 질문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4.1%로 절반이 넘었으며, ‘자택’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0.9%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60~64대와 65세 이상은 40~50대와 비교해 자택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후 돌봄을 받고 싶은 장소에 대해 도시 지역 응답자가 농어촌 응답자보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농어촌 응답자는 도시 응답자보다 ‘자택’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추후 돌봄 필요 시 희망 장소

(단위: %, 명)

항목	노인요양시설	자택	자녀의 집	기타	계	(명)
전체	54.1 (816)	40.9 (616)	1.0 (15)	4.0 (60)	100.0	(1507)
성( $\chi^2=0.973$ )						
남성	53.0 (379)	41.7 (298)	1.0 (7)	4.3 (31)	100.0	(715)
여성	55.2 (437)	40.2 (318)	1.0 (8)	3.7 (29)	100.0	(792)
연령( $\chi^2=25.972^{***}$ )						
40~50대	61.8 (312)	35.4 (179)	0.6 (3)	2.2 (11)	100.0	(505)
60~64세	51.6 (258)	43.8 (219)	1.0 (5)	3.6 (18)	100.0	(500)
65세 이상	49.0 (246)	43.4 (218)	1.4 (7)	6.2 (31)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6.120$ )						
서울/수도권	55.0 (405)	40.5 (298)	0.8 (6)	3.7 (27)	100.0	(736)
충청권	50.0 (87)	44.8 (78)	1.1 (2)	4.0 (7)	100.0	(174)
강원권	52.0 (26)	38.0 (19)	2.0 (1)	8.0 (4)	100.0	(50)
호남권	51.3 (80)	43.6 (68)	0.6 (1)	4.5 (7)	100.0	(156)
영남권	55.8 (218)	39.1 (153)	1.3 (5)	3.8 (15)	100.0	(391)
거주지 규모( $\chi^2=21.175^{***}$ )						
도시 지역	55.8 (693)	40.3 (500)	0.6 (8)	3.3 (41)	100.0	(1242)
농어촌 지역	46.4 (123)	43.8 (116)	2.6 (7)	7.2 (19)	100.0	(265)
배우자 유무( $\chi^2=20.029^{**}$ )						
미혼	61.3 (46)	36.0 (27)	0.0 (0)	2.7 (2)	100.0	(75)
기혼	54.6 (611)	41.6 (465)	0.9 (10)	2.9 (33)	100.0	(1119)
이혼 및 사별	50.8 (159)	39.6 (124)	1.6 (5)	8.0 (25)	100.0	(313)
자녀 유무( $\chi^2=2.806$ )						
있음	53.8 (742)	41.0 (566)	1.1 (15)	4.1 (57)	100.0	(1380)
없음	58.3 (74)	39.4 (50)	0.0 (0)	2.4 (3)	100.0	(127)
최종 학력( $\chi^2=41.606^{***}$ )						
중졸 이하	48.9 (217)	42.6 (189)	1.4 (6)	7.2 (32)	100.0	(444)
고졸	58.8 (278)	36.6 (173)	0.6 (3)	4.0 (19)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55.6 (69)	40.3 (50)	2.4 (3)	1.6 (2)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57.3 (209)	40.8 (149)	0.3 (1)	1.6 (6)	100.0	(365)
대학원 이상	42.6 (43)	54.5 (55)	2.0 (2)	1.0 (1)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chi^2=33.278$ )						
50만 원 미만	50.3 (80)	40.9 (65)	1.3 (2)	7.5 (12)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53.3 (88)	41.8 (69)	0.6 (1)	4.2 (7)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52.0 (52)	41.0 (41)	2.0 (2)	5.0 (5)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47.9 (46)	49.0 (47)	1.0 (1)	2.1 (2)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51.9 (154)	39.7 (118)	2.0 (6)	6.4 (19)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54.7 (99)	42.0 (76)	0.6 (1)	2.8 (5)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57.6 (83)	38.9 (56)	0.7 (1)	2.8 (4)	100.0	(144)

항목	노인요양시설	주택	자녀의 집	기타	계	(명)
500만 원~600만 원 미만	64.8 (92)	33.8 (48)	0.0 (0)	1.4 (2)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51.6 (33)	46.9 (30)	0.0 (0)	1.6 (1)	100.0	(64)
700만 원 이상	56.0 (89)	41.5 (66)	0.6 (1)	1.9 (3)	100.0	(159)
본인 취업 여부( $\chi^2=7.902$ )						
취업	57.1 (493)	38.5 (333)	1.0 (9)	3.4 (29)	100.0	(864)
미취업	50.2 (323)	44.0 (283)	0.9 (6)	4.8 (31)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1.259$ )						
취업	55.7 (327)	40.5 (238)	0.7 (4)	3.1 (18)	100.0	(587)
미취업	53.4 (284)	42.7 (227)	1.1 (6)	2.8 (15)	100.0	(532)
가구 형태( $\chi^2=27.976^{**}$ )						
1인 가구	52.0 (140)	39.0 (105)	1.5 (4)	7.4 (20)	100.0	(269)
부부 가구	50.5 (297)	44.7 (263)	1.4 (8)	3.4 (20)	100.0	(588)
자녀와 동거	58.4 (324)	38.2 (212)	0.5 (3)	2.9 (16)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54.1 (20)	35.1 (13)	0.0 (0)	10.8 (4)	100.0	(37)
기타	60.3 (35)	39.7 (23)	0.0 (0)	0.0 (0)	100.0	(58)

주 :  $p < .05$  \*,  $p < .01$  \*\*,  $p < .001$  \*\*\*

## 2) 주택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

치매, 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택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 중, '본인의 집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들고 익숙한 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은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해서'(14.9%), '시설에 들어갈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1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시설은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해서' 응답이 20.7%로 60~64세(14.2%), 65세 이상(11.0%)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시설에 들어갈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응답의 경우 60~64세와 65세 이상에서 각각 10.5%, 17.0%로 40~50대(5.6%) 대비 높게 나타나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4-14〉 본인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항목	정들고 익숙한 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어서	시설은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해서	시설에 들어갈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타인과 공동생활을 하기 싫어서	기타	계 (명)
전체	66.1(407)	14.9(92)	11.4(70)	7.5(46)	0.2(1)	100.0 (616)
성( $\chi^2=1.282$ )						
남성	65.1(194)	15.1(45)	11.7(35)	7.7(23)	0.3(1)	100.0 (298)
여성	67.0(213)	14.8(47)	11.0(35)	7.2(23)	0.0(0)	100.0 (318)
연령( $\chi^2=21.002^{**}$ )						
40~50대	67.6(121)	20.7(37)	5.6(10)	6.1(11)	0.0(0)	100.0 (179)
60~64세	66.2(145)	14.2(31)	10.5(23)	9.1(20)	0.0(0)	100.0 (219)
65세 이상	64.7(141)	11.0(24)	17.0(37)	6.9(15)	0.5(1)	100.0 (218)
거주지 권역( $\chi^2=8.327$ )						
서울/수도권	67.8(202)	13.4(40)	11.7(35)	6.7(20)	0.3(1)	100.0 (298)
충청권	59.0(46)	16.7(13)	12.8(10)	11.5(9)	0.0(0)	100.0 (78)
강원권	73.7(14)	15.8(3)	5.3(1)	5.3(1)	0.0(0)	100.0 (19)
호남권	70.6(48)	16.2(11)	5.9(4)	7.4(5)	0.0(0)	100.0 (68)
영남권	63.4(97)	16.3(25)	13.1(20)	7.2(11)	0.0(0)	100.0 (153)
거주지 규모( $\chi^2=4.849$ )						
도시 지역	65.8(329)	15.4(77)	11.2(56)	7.6(38)	0.0(0)	100.0 (500)
농어촌 지역	67.2(78)	12.9(15)	12.1(14)	6.9(8)	0.9(1)	100.0 (116)
배우자 유무( $\chi^2=7.881$ )						
미혼	59.3(16)	22.2(6)	11.1(3)	7.4(2)	0.0(0)	100.0 (27)
기혼	67.5(314)	15.1(70)	9.7(45)	7.5(35)	0.2(1)	100.0 (465)
이혼 및 사별	62.1(77)	12.9(16)	17.7(22)	7.3(9)	0.0(0)	100.0 (124)
자녀 유무( $\chi^2=1.921$ )						
있음	66.6(377)	14.7(83)	11.0(62)	7.6(43)	0.2(1)	100.0 (566)
없음	60.0(30)	18.0(9)	16.0(8)	6.0(3)	0.0(0)	100.0 (50)
최종 학력( $\chi^2=45.051^{***}$ )						
중졸 이하	62.4(118)	11.1(21)	20.1(38)	6.3(12)	0.0(0)	100.0 (189)
고졸	65.9(114)	13.3(23)	14.5(25)	5.8(10)	0.6(1)	100.0 (173)
대졸(3년제 이하)	66.0(33)	22.0(11)	2.0(1)	10.0(5)	0.0(0)	100.0 (50)
대졸(4년제 이상)	71.1(106)	15.4(23)	3.4(5)	10.1(15)	0.0(0)	100.0 (149)
대학원 이상	65.5(36)	25.5(14)	1.8(1)	7.3(4)	0.0(0)	100.0 (55)
월평균 가구소득( $\chi^2=82.540^{***}$ )						
50만 원 미만	56.9(37)	12.3(8)	26.2(17)	4.6(3)	0.0(0)	100.0 (65)
50만 원~100만 원 미만	56.5(39)	5.8(4)	30.4(21)	7.2(5)	0.0(0)	100.0 (69)
100만 원~150만 원 미만	75.6(31)	4.9(2)	12.2(5)	7.3(3)	0.0(0)	100.0 (41)
150만 원~200만 원 미만	61.7(29)	17.0(8)	8.5(4)	12.8(6)	0.0(0)	100.0 (47)
200만 원~300만 원 미만	66.1(78)	16.1(19)	9.3(11)	7.6(9)	0.8(1)	100.0 (118)
300만 원~400만 원 미만	78.9(60)	9.2(7)	6.6(5)	5.3(4)	0.0(0)	100.0 (76)
400만 원~500만 원 미만	66.1(37)	19.6(11)	7.1(4)	7.1(4)	0.0(0)	100.0 (56)
500만 원~600만 원 미만	60.4(29)	25.0(12)	6.3(3)	8.3(4)	0.0(0)	100.0 (48)
600만 원~700만 원 미만	56.7(17)	30.0(9)	0.0(0)	13.3(4)	0.0(0)	100.0 (30)
700만 원 이상	75.8(50)	18.2(12)	0.0(0)	6.1(4)	0.0(0)	100.0 (66)



항목	정들고 익숙한 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어서	시설은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해서	시설에 들어갈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타인과 공동생활을 하기 싫어서	기타	계 (명)
본인 취업 여부( $\chi^2=4.428$ )						
취업	65.2(217)	17.1(57)	10.2(34)	7.5(25)	0.0(0)	100.0 (333)
미취업	67.1(190)	12.4(35)	12.7(36)	7.4(21)	0.4(1)	100.0 (28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4.972$ )						
취업	67.2(160)	17.2(41)	7.6(18)	8.0(19)	0.0(0)	100.0 (238)
미취업	67.8(154)	12.8(29)	11.9(27)	7.0(16)	0.4(1)	100.0 (227)
가구 형태( $\chi^2=19.051$ )						
1인 가구	61.9(65)	12.4(13)	17.1(18)	8.6(9)	0.0(0)	100.0 (105)
부부 가구	66.5(175)	12.5(33)	12.9(34)	7.6(20)	0.4(1)	100.0 (263)
자녀와 동거	66.0(140)	19.8(42)	6.6(14)	7.5(16)	0.0(0)	100.0 (212)
자녀/손자녀와 동거	76.9(10)	0.0(0)	15.4(2)	7.7(1)	0.0(0)	100.0 (13)
기타	73.9(17)	17.4(4)	8.7(2)	0.0(0)	0.0(0)	100.0 (23)

주 :  $p < .05$  \*,  $p < .01$  \*\*,  $p < .001$  \*\*\*

추후 돌봄 필요 시 희망 장소로 자택을 선택한 응답자만 본 문항에 응답함.

### 3)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적인 돌봄(간병)을 받을 수 있어서’가 19.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도 9.1%나 되었다. 연령별로는 60~64세와 65세 이상 노인은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65.5%, 60.6%로 40~50대(57.7%)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적인 돌봄(간병)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40~50대 응답이 25.3%로 60~64세(17.1%)와 65세 이상(14.6%) 대비 높게 나타나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4-15>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항목	가족에게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전문적인 돌봄(간병) 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안심할 수 있어서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간병) 서비스가 부족해서	기타	계 (명)
전체	61.0(498)	19.5(159)	9.1(74)	6.3(51)	3.8(31)	0.4(3)	100.0 (816)
성( $\chi^2=4.936$ )							
남성	61.7(234)	20.6(78)	9.2(35)	5.3(20)	3.2(12)	0.0(0)	100.0 (379)
여성	60.4(264)	18.5(81)	8.9(39)	7.1(31)	4.3(19)	0.7(3)	100.0 (437)
연령( $\chi^2=26.858^{**}$ )							
40~50대	57.7(180)	25.3(79)	5.8(18)	7.1(22)	4.2(13)	0.0(0)	100.0 (312)
60~64세	65.5(169)	17.1(44)	9.7(25)	4.7(12)	3.1(8)	0.0(0)	100.0 (258)
65세 이상	60.6(149)	14.6(36)	12.6(31)	6.9(17)	4.1(10)	1.2(3)	100.0 (246)
거주지 권역( $\chi^2=10.601$ )							
서울/수도권	59.8(242)	20.5(83)	8.9(36)	6.4(26)	4.0(16)	0.5(2)	100.0 (405)
충청권	62.1(54)	18.4(16)	8.0(7)	6.9(6)	4.6(4)	0.0(0)	100.0 (87)
강원권	76.9(20)	15.4(4)	0.0(0)	7.7(2)	0.0(0)	0.0(0)	100.0 (26)
호남권	62.5(50)	20.0(16)	7.5(6)	5.0(4)	3.8(3)	1.3(1)	100.0 (80)
영남권	60.6(132)	18.3(40)	11.5(25)	6.0(13)	3.7(8)	0.0(0)	100.0 (218)
거주지 규모( $\chi^2=2.872$ )							
도시 지역	60.6(420)	19.5(135)	9.2(64)	6.1(42)	4.2(29)	0.4(3)	100.0 (693)
농어촌 지역	63.4(78)	19.5(24)	8.1(10)	7.3(9)	1.6(2)	0.0(0)	100.0 (123)
배우자 유무( $\chi^2=57.680^{***}$ )							
미혼	37.0(17)	19.6(9)	26.1(12)	15.2(7)	0.0(0)	2.2(1)	100.0 (46)
기혼	63.2(386)	20.9(128)	5.6(34)	6.1(37)	4.1(25)	0.2(1)	100.0 (611)
이혼 및 사별	59.7(95)	13.8(22)	17.6(28)	4.4(7)	3.8(6)	0.6(1)	100.0 (159)
자녀 유무( $\chi^2=53.225^{***}$ )							
있음	63.5(471)	19.3(143)	7.3(54)	5.8(43)	4.0(30)	0.1(1)	100.0 (742)
없음	36.5(27)	21.6(16)	27.0(20)	10.8(8)	1.4(1)	2.7(2)	100.0 (74)
최종 학력( $\chi^2=24.342$ )							
중졸 이하	61.3(133)	15.2(33)	14.3(31)	6.0(13)	2.8(6)	0.5(1)	100.0 (217)
고졸	60.4(168)	18.7(52)	8.6(24)	7.2(20)	4.7(13)	0.4(1)	100.0 (278)
대졸(3년제 이하)	65.2(45)	23.2(16)	4.3(3)	4.3(3)	2.9(2)	0.0(0)	100.0 (69)
대졸(4년제 이상)	63.6(133)	21.5(45)	5.7(12)	4.8(10)	3.8(8)	0.5(1)	100.0 (209)
대학원 이상	44.2(19)	30.2(13)	9.3(4)	11.6(5)	4.7(2)	0.0(0)	100.0 (43)
월평균 가구소득( $\chi^2=72.573^{**}$ )							
50만 원 미만	55.0(44)	15.0(12)	21.3(17)	5.0(4)	2.5(2)	1.3(1)	100.0 (80)
50만 원~100만 원 미만	59.1(52)	9.1(8)	15.9(14)	8.0(7)	6.8(6)	1.1(1)	100.0 (88)
100만 원~150만 원 미만	55.8(29)	13.5(7)	15.4(8)	7.7(4)	7.7(4)	0.0(0)	100.0 (52)
150만 원~200만 원 미만	58.7(27)	19.6(9)	15.2(7)	6.5(3)	0.0(0)	0.0(0)	100.0 (4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66.2(102)	16.2(25)	7.8(12)	6.5(10)	2.6(4)	0.6(1)	100.0 (154)
300만 원~400만 원 미만	57.6(57)	25.3(25)	5.1(5)	9.1(9)	3.0(3)	0.0(0)	100.0 (99)
400만 원~500만 원 미만	59.0(49)	22.9(19)	6.0(5)	4.8(4)	7.2(6)	0.0(0)	100.0 (83)
500만 원~600만 원 미만	69.6(64)	20.7(19)	2.2(2)	4.3(4)	3.3(3)	0.0(0)	100.0 (9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63.6(21)	21.2(7)	6.1(2)	6.1(2)	3.0(1)	0.0(0)	100.0 (33)
700만 원 이상	59.6(53)	31.5(28)	2.2(2)	4.5(4)	2.2(2)	0.0(0)	100.0 (89)

항목	가족에게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전문적인 돌봄(간병) 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안심할 수 있어서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간병) 서비스가 부족해서	기타	계	(명)
본인 취업 여부( $\chi^2=21.656^{**}$ )								
취업	63.1(311)	21.7(107)	6.3(31)	6.3(31)	2.4(12)	0.2(1)	100.0	(493)
미취업	57.9(187)	16.1(52)	13.3(43)	6.2(20)	5.9(19)	0.6(2)	100.0	(32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10.389$ )								
취업	65.4(214)	22.3(73)	3.4(11)	5.8(19)	3.1(10)	0.0(0)	100.0	(327)
미취업	60.6(172)	19.4(55)	8.1(23)	6.3(18)	5.3(15)	0.4(1)	100.0	(284)
가구 형태( $\chi^2=41.858^{**}$ )								
1인 가구	52.9(74)	17.1(24)	18.6(26)	7.9(11)	2.1(3)	1.4(2)	100.0	(140)
부부 가구	62.3(185)	19.5(58)	8.1(24)	5.4(16)	4.4(13)	0.3(1)	100.0	(297)
자녀와 동거	63.9(207)	21.3(69)	4.6(15)	5.9(19)	4.3(14)	0.0(0)	100.0	(324)
자녀/손자녀와 동거	75.0(15)	5.0(1)	15.0(3)	5.0(1)	0.0(0)	0.0(0)	100.0	(20)
기타	48.6(17)	20.0(7)	17.1(6)	11.4(4)	2.9(1)	0.0(0)	100.0	(35)

주 : p<.05 \*, p<.01 \*\*, p<.001 \*\*\*

추후 돌봄 필요 시 희망 장소로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만 본 문항에 응답함.

#### 4) 요양시설 선택의 기준

요양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으로 '전문인력 배치'가 33.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휴식시설과 편의시설 마련 여부'(17.4%), '저렴한 비용'(15.6%),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 여부'(15.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는 타 연령군과 비교해 '전문인력 배치'와 '휴식시설과 편의시설 마련 여부'를 중시하였고, 60~64세와 65세 이상은 '저렴한 비용'을 노인요양시설 선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답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만 원 미만 구간의 경우 '저렴한 비용'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았고, 이에 반해 600만~700만 원 미만 구간은 '전문인력 배치'가 48.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아 소득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4-16〉 노인요양시설 선택 시 중요한 기준

(단위 : %, 명)

항목	전문인력 배치	휴식시설과 편의시설 마련 여부	저렴한 비용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 여부	위생과 청결	편리한 교통	기타	계 (명)
전체	33.0(269)	17.4(142)	15.6(127)	15.4(126)	14.1(115)	2.7(22)	1.8(15)	100.0 (816)
성( $\chi^2=14.437$ )								
남성	28.8(109)	22.2(84)	15.6(59)	16.4(62)	12.7(48)	2.6(10)	1.8(7)	100.0 (379)
여성	36.6(160)	13.3(58)	15.6(68)	14.6(64)	15.3(67)	2.7(12)	1.8(8)	100.0 (437)
연령( $\chi^2=44.182^{***}$ )								
40~50대	40.7(127)	19.2(60)	7.7(24)	14.7(46)	13.5(42)	3.2(10)	1.0(3)	100.0 (312)
60~64세	32.6(84)	17.8(46)	20.5(53)	14.3(37)	11.6(30)	1.6(4)	1.6(4)	100.0 (258)
65세 이상	23.6(58)	14.6(36)	20.3(50)	17.5(43)	17.5(43)	3.3(8)	3.3(8)	100.0 (246)
거주지 권역( $\chi^2=27.552$ )								
서울/수도권	34.8(141)	18.8(76)	14.1(57)	15.3(62)	12.8(52)	2.5(10)	1.7(7)	100.0 (405)
충청권	39.1(34)	16.1(14)	17.2(15)	13.8(12)	10.3(9)	0.0(0)	3.4(3)	100.0 (87)
강원권	19.2(5)	7.7(2)	23.1(6)	11.5(3)	30.8(8)	3.8(1)	3.8(1)	100.0 (26)
호남권	28.8(23)	23.8(19)	11.3(9)	17.5(14)	13.8(11)	2.5(2)	2.5(2)	100.0 (80)
영남권	30.3(66)	14.2(31)	18.3(40)	16.1(35)	16.1(35)	4.1(9)	0.9(2)	100.0 (218)
거주지 규모( $\chi^2=6.441$ )								
도시 지역	34.5(239)	17.0(118)	15.0(104)	14.9(103)	14.0(97)	2.9(20)	1.7(12)	100.0 (693)
농어촌 지역	24.4(30)	19.5(24)	18.7(23)	18.7(23)	14.6(18)	1.6(2)	2.4(3)	100.0 (123)
배우자 유무( $\chi^2=40.792^{***}$ )								
미혼	45.7(21)	2.2(1)	8.7(4)	19.6(9)	17.4(8)	6.5(3)	0.0(0)	100.0 (46)
기혼	34.2(209)	20.1(123)	13.1(80)	14.9(91)	13.4(82)	2.3(14)	2.0(12)	100.0 (611)
이혼 및 사별	24.5(39)	11.3(18)	27.0(43)	16.4(26)	15.7(25)	3.1(5)	1.9(3)	100.0 (159)
자녀 유무( $\chi^2=4.608$ )								
있음	32.5(241)	17.8(132)	15.9(118)	15.1(112)	14.2(105)	2.6(19)	2.0(15)	100.0 (742)
없음	37.8(28)	13.5(10)	12.2(9)	18.9(14)	13.5(10)	4.1(3)	0.0(0)	100.0 (74)
최종 학력( $\chi^2=111.558^{***}$ )								
중졸 이하	18.9(41)	8.8(19)	30.4(66)	20.7(45)	17.1(37)	0.5(1)	3.7(8)	100.0 (217)
고졸	34.2(95)	20.5(57)	13.7(38)	13.3(37)	11.9(33)	4.3(12)	2.2(6)	100.0 (278)
대졸(3년제 이하)	43.5(30)	21.7(15)	5.8(4)	17.4(12)	8.7(6)	2.9(2)	0.0(0)	100.0 (69)
대졸(4년제 이상)	39.2(82)	19.1(40)	8.1(17)	12.9(27)	17.7(37)	2.4(5)	0.5(1)	100.0 (209)
대학원 이상	48.8(21)	25.6(11)	4.7(2)	11.6(5)	4.7(2)	4.7(2)	0.0(0)	100.0 (43)
월평균 가구소득( $\chi^2=106.645^{***}$ )								
50만 원 미만	18.8(15)	13.8(11)	30.0(24)	11.3(9)	17.5(14)	2.5(2)	6.3(5)	100.0 (80)
50만 원~100만 원 미만	22.7(20)	10.2(9)	25.0(22)	22.7(20)	13.6(12)	3.4(3)	2.3(2)	100.0 (88)
100만 원~150만 원 미만	25.0(13)	7.7(4)	21.2(11)	25.0(13)	17.3(9)	1.9(1)	1.9(1)	100.0 (52)
150만 원~200만 원 미만	21.7(10)	19.6(9)	21.7(10)	13.0(6)	23.9(11)	0.0(0)	0.0(0)	100.0 (4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1.2(48)	16.2(25)	17.5(27)	16.2(25)	13.0(20)	4.5(7)	1.3(2)	100.0 (154)
300만 원~400만 원 미만	41.4(41)	19.2(19)	7.1(7)	18.2(18)	13.1(13)	1.0(1)	0.0(0)	100.0 (99)
400만 원~500만 원 미만	42.2(35)	15.7(13)	9.6(8)	15.7(13)	10.8(9)	3.6(3)	2.4(2)	100.0 (83)
500만 원~600만 원 미만	40.2(37)	23.9(22)	8.7(8)	7.6(7)	15.2(14)	2.2(2)	2.2(2)	100.0 (9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48.5(16)	18.2(6)	3.0(1)	21.2(7)	3.0(1)	3.0(1)	3.0(1)	100.0 (33)
700만 원 이상	38.2(34)	27.0(24)	10.1(9)	9.0(8)	13.5(12)	2.2(2)	0.0(0)	100.0 (89)
본인 취업 여부( $\chi^2=16.627^*$ )								
취업	35.5(175)	19.9(98)	13.8(68)	14.4(71)	12.2(60)	3.0(15)	1.2(6)	100.0 (493)

항목	전문인력 배치	휴식시설과 편의시설 마련 여부	저렴한 비용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 여부	위생과 청결	편리한 교통	기타	계 (명)
미취업 배우자 취업 여부( $\chi^2=20.936^{**}$ )	29.1(94)	13.6(44)	18.3(59)	17.0(55)	17.0(55)	2.2(7)	2.8(9)	100.0 (323)
취업	41.9(137)	19.6(64)	10.7(35)	13.1(43)	11.6(38)	1.5(5)	1.5(5)	100.0 (327)
미취업	25.4(72)	20.8(59)	15.8(45)	16.9(48)	15.5(44)	3.2(9)	2.5(7)	100.0 (284)
가구 형태( $\chi^2=37.394^*$ )								
1인 가구	25.7(36)	11.4(16)	23.6(33)	17.9(25)	17.1(24)	2.9(4)	1.4(2)	100.0 (140)
부부 가구	30.3(90)	18.9(56)	16.5(49)	15.8(47)	14.1(42)	2.4(7)	2.0(6)	100.0 (297)
자녀와 동거	38.0(123)	20.1(65)	11.1(36)	13.9(45)	13.3(43)	2.5(8)	1.2(4)	100.0 (324)
자녀/손자녀와 동거	25.0(5)	5.0(1)	20.0(4)	20.0(4)	15.0(3)	5.0(1)	10.0(2)	100.0 (20)
기타	42.9(15)	11.4(4)	14.3(5)	14.3(5)	8.6(3)	5.7(2)	2.9(1)	100.0 (35)

주 : p<.05 \*, p<.01 \*\*, p<.001 \*\*\*

추후 돌봄 필요 시 희망 장소로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만 본 문항에 응답함.

## 제3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와 정책 요구

### 1.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

2008년부터 실시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인지(잘 안다+조금 안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40~50대와 60~64세에서 제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46.3%, 45.2%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실수요자인 65세 이상 노인층은 오히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41.8%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17>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항목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조금 안다	잘 안다	계 (명)
전체	15.7(237)	27.1(409)	12.7(191)	28.1(424)	16.3(246)	100.0(1507)
성( $\chi^2=6.536$ )						
남성	16.9(121)	29.2(209)	12.4(89)	26.6(190)	14.8(106)	100.0 (715)
여성	14.6(116)	25.3(200)	12.9(102)	29.5(234)	17.7(140)	100.0 (792)
연령( $\chi^2=29.752^{***}$ )						
40~50대	16.0(81)	21.6(109)	16.0(81)	28.3(143)	18.0(91)	100.0 (505)
60~64세	13.6(68)	27.8(139)	13.4(67)	27.2(136)	18.0(90)	100.0 (500)
65세 이상	17.5(88)	32.1(161)	8.6(43)	28.9(145)	12.9(65)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12.507$ )						
서울/수도권	17.8(131)	26.4(194)	11.8(87)	28.5(210)	15.5(114)	100.0 (736)
충청권	13.2(23)	28.2(49)	14.4(25)	24.7(43)	19.5(34)	100.0 (174)
강원권	12.0(6)	30.0(15)	16.0(8)	30.0(15)	12.0(6)	100.0 (50)
호남권	16.0(25)	22.4(35)	12.2(19)	30.1(47)	19.2(30)	100.0 (156)
영남권	13.3(52)	29.7(116)	13.3(52)	27.9(109)	15.9(62)	100.0 (391)
거주지 규모( $\chi^2=7.422$ )						
도시 지역	15.8(196)	26.6(330)	13.0(162)	29.1(362)	15.5(192)	100.0(1242)
농어촌 지역	15.5(41)	29.8(79)	10.9(29)	23.4(62)	20.4(54)	100.0 (265)
배우자 유무( $\chi^2=39.149^{***}$ )						
미혼	30.7(23)	18.7(14)	10.7(8)	21.3(16)	18.7(14)	100.0 (75)
기혼	13.6(152)	25.6(287)	13.6(152)	29.6(331)	17.6(197)	100.0(1119)
이혼 및 사별	19.8(62)	34.5(108)	9.9(31)	24.6(77)	11.2(35)	100.0 (313)
자녀 유무( $\chi^2=14.674^{**}$ )						
있음	14.6(202)	27.5(379)	12.8(177)	28.6(394)	16.5(228)	100.0(1380)
없음	27.6(35)	23.6(30)	11.0(14)	23.6(30)	14.2(18)	100.0 (127)
최종 학력( $\chi^2=73.666^{***}$ )						
중졸 이하	18.9(84)	37.6(167)	7.7(34)	25.9(115)	9.9(44)	100.0 (444)
고졸	13.3(63)	23.3(110)	11.6(55)	32.3(153)	19.5(92)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16.1(20)	24.2(30)	17.7(22)	27.4(34)	14.5(18)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14.8(54)	20.8(76)	17.8(65)	26.0(95)	20.5(75)	100.0 (365)
대학원 이상	15.8(16)	25.7(26)	14.9(15)	26.7(27)	16.8(17)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chi^2=79.416^{***}$ )						
50만 원 미만	21.4(34)	40.9(65)	6.9(11)	24.5(39)	6.3(10)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17.0(28)	33.3(55)	12.7(21)	23.6(39)	13.3(22)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16.0(16)	25.0(25)	8.0(8)	35.0(35)	16.0(16)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12.5(12)	28.1(27)	10.4(10)	31.3(30)	17.7(17)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6.5(49)	31.0(92)	9.1(27)	26.9(80)	16.5(49)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13.3(24)	20.4(37)	13.3(24)	32.6(59)	20.4(37)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15.3(22)	19.4(28)	14.6(21)	32.6(47)	18.1(26)	100.0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14.1(20)	22.5(32)	19.0(27)	25.4(36)	19.0(27)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12.5(8)	23.4(15)	12.5(8)	35.9(23)	15.6(10)	100.0 (64)
700만 원 이상	15.1(24)	20.8(33)	21.4(34)	22.6(36)	20.1(32)	100.0 (159)
본인 취업 여부( $\chi^2=17.779^{**}$ )						
취업	14.1(122)	25.9(224)	13.3(115)	27.2(235)	19.4(168)	100.0 (864)
미취업	17.9(115)	28.8(185)	11.8(76)	29.4(189)	12.1(78)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15.231^{**}$ )						

항목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조금 안다	잘 안다	계 (명)
취업	12.8(75)	23.3(137)	15.5(91)	27.6(162)	20.8(122)	100.0 (587)
미취업	14.5(77)	28.2(150)	11.5(61)	31.8(169)	14.1(75)	100.0 (532)
가구 형태( $\chi^2=25.990$ )						
1인 가구	20.1(54)	33.8(91)	8.9(24)	24.2(65)	13.0(35)	100.0 (269)
부부 가구	14.1(83)	27.9(164)	12.6(74)	29.8(175)	15.6(92)	100.0 (588)
자녀와 동거	14.6(81)	24.0(133)	14.2(79)	29.4(163)	17.8(99)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21.6(8)	24.3(9)	16.2(6)	18.9(7)	18.9(7)	100.0 (37)
기타	19.0(11)	20.7(12)	13.8(8)	24.1(14)	22.4(13)	100.0 (58)

주 : p<.05 \*, p<.01 \*\*, p<.001 \*\*\*

## 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경험

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18.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서비스 이용 경험 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8〉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항목	있다	없다	계	(명)
전체	18.1 (273)	81.9 (1234)	100.0	(1507)
성( $\chi^2=9.929^{**}$ )				
남성	14.8 (106)	85.2 (609)	100.0	(715)
여성	21.1 (167)	78.9 (625)	100.0	(792)
연령( $\chi^2=6.743$ )				
40~50대	18.6 (94)	81.4 (411)	100.0	(505)
60~64세	21.0 (105)	79.0 (395)	100.0	(500)
65세 이상	14.7 (74)	85.3 (428)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2.706$ )				
서울/수도권	16.8 (124)	83.2 (612)	100.0	(736)
충청권	19.5 (34)	80.5 (140)	100.0	(174)
강원권	18.0 (9)	82.0 (41)	100.0	(50)
호남권	16.7 (26)	83.3 (130)	100.0	(156)
영남권	20.5 (80)	79.5 (311)	100.0	(391)
거주지 규모( $\chi^2=0.123$ )				

18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항목	있다	없다	계	(명)
도시 지역	18.0 (223)	82.0 (1019)	100.0	(1242)
농어촌 지역	18.9 (50)	81.1 (215)	100.0	(265)
배우자 유무( $x^2=2.620$ )				
미혼	20.0 (15)	80.0 (60)	100.0	(75)
기혼	18.9 (211)	81.1 (908)	100.0	(1119)
이혼 및 사별	15.0 (47)	85.0 (266)	100.0	(313)
자녀 유무( $x^2=0.230$ )				
있음	18.0 (248)	82.0 (1132)	100.0	(1380)
없음	19.7 (25)	80.3 (102)	100.0	(127)
최종 학력( $x^2=8.574$ )				
중졸 이하	13.7 (61)	86.3 (383)	100.0	(444)
고졸	20.3 (96)	79.7 (377)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21.0 (26)	79.0 (98)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19.7 (72)	80.3 (293)	100.0	(365)
대학원 이상	17.8 (18)	82.2 (83)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x^2=15.070$ )				
50만 원 미만	11.9 (19)	88.1 (140)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20.0 (33)	80.0 (132)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17.0 (17)	83.0 (83)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11.5 (11)	88.5 (85)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7.2 (51)	82.8 (246)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21.0 (38)	79.0 (143)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22.2 (32)	77.8 (112)	100.0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24.6 (35)	75.4 (107)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14.1 (9)	85.9 (55)	100.0	(64)
700만 원 이상	17.6 (28)	82.4 (131)	100.0	(159)
본인 취업 여부( $x^2=0.113$ )				
취업	18.4 (159)	81.6 (705)	100.0	(864)
미취업	17.7 (114)	82.3 (529)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x^2=1.619$ )				
취업	20.3 (119)	79.7 (468)	100.0	(587)
미취업	17.3 (92)	82.7 (440)	100.0	(532)
가구 형태( $x^2=7.815$ )				
1인 가구	15.6 (42)	84.4 (227)	100.0	(269)
부부 가구	18.9 (111)	81.1 (477)	100.0	(588)
자녀와 동거	18.6 (103)	81.4 (452)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5.4 (2)	94.6 (35)	100.0	(37)
기타	25.9 (15)	74.1 (43)	100.0	(58)

주 : p<.05 \*, p<.01 \*\*, p<.001 \*\*\*



### 3. 노인 돌봄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

향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가 27.2%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서비스 질 향상’(24.9%), ‘재가서비스 확충’(23.0%),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 확충’(19.9%)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가 30.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여성은 ‘재가서비스 확충’이 25.9%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시설서비스 질 향상’에서 40~50대(29.1%)와 65세 이상(18.7%) 간의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는 ‘시설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응답이 모두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19〉 향후 돌봄 필요 노인 증가에 따라 필요한 정부 중점 대책

(단위: %, 명)

항목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시설서비스 질 향상	재가서비스 확충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 확충	기타	계 (명)
전체	27.2(410)	24.9(375)	23.0(346)	19.9(300)	5.0(76)	100.0(1507)
성( $\chi^2=15.921^{**}$ )						
남성	30.5(218)	24.3(174)	19.7(141)	21.4(153)	4.1(29)	100.0 (715)
여성	24.2(192)	25.4(201)	25.9(205)	18.6(147)	5.9(47)	100.0 (792)
연령( $\chi^2=35.464^{***}$ )						
40~50대	28.3(143)	29.1(147)	20.0(101)	19.8(100)	2.8(14)	100.0 (505)
60~64세	27.0(135)	26.8(134)	23.8(119)	18.6(93)	3.8(19)	100.0 (500)
65세 이상	26.3(132)	18.7(94)	25.1(126)	21.3(107)	8.6(43)	100.0 (502)
거주지 권역( $\chi^2=15.474$ )						
서울/수도권	26.6(196)	26.5(195)	22.1(163)	20.1(148)	4.6(34)	100.0 (736)
충청권	28.2(49)	20.7(36)	28.7(50)	17.2(30)	5.2(9)	100.0 (174)
강원권	18.0(9)	34.0(17)	16.0(8)	28.0(14)	4.0(2)	100.0 (50)
호남권	26.3(41)	23.7(37)	22.4(35)	23.1(36)	4.5(7)	100.0 (156)
영남권	29.4(115)	23.0(90)	23.0(90)	18.4(72)	6.1(24)	100.0 (391)
거주지 규모( $\chi^2=8.754$ )						

18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항목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시설서비스 질 향상	재가서비스 확충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 확충	기타	계 (명)
도시 지역	27.1(336)	25.7(319)	23.1(287)	19.8(246)	4.3(54)	100.0 (1242)
농어촌 지역	27.9(74)	21.1(56)	22.3(59)	20.4(54)	8.3(22)	100.0 (265)
배우자 유무( $\chi^2=19.801^*$ )						
미혼	30.7(23)	24.0(18)	22.7(17)	21.3(16)	1.3(1)	100.0 (75)
기혼	27.8(311)	26.0(291)	21.6(242)	20.3(227)	4.3(48)	100.0 (1119)
이혼 및 사별	24.3(76)	21.1(66)	27.8(87)	18.2(57)	8.6(27)	100.0 (313)
자녀 유무( $\chi^2=5.747$ )						
있음	26.9(371)	24.9(344)	23.0(317)	19.8(273)	5.4(75)	100.0 (1380)
없음	30.7(39)	24.4(31)	22.8(29)	21.3(27)	0.8(1)	100.0 (127)
최종 학력( $\chi^2=70.067^{***}$ )						
중졸 이하	28.8(128)	16.4(73)	26.4(117)	18.5(82)	9.9(44)	100.0 (444)
고졸	26.8(127)	25.6(121)	19.9(94)	23.5(111)	4.2(20)	100.0 (473)
대졸(3년제 이하)	25.8(32)	33.1(41)	23.4(29)	16.1(20)	1.6(2)	100.0 (124)
대졸(4년제 이상)	24.9(91)	29.3(107)	22.2(81)	21.1(77)	2.5(9)	100.0 (365)
대학원 이상	31.7(32)	32.7(33)	24.8(25)	9.9(10)	1.0(1)	10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chi^2=97.523^{***}$ )						
50만 원 미만	29.6(47)	10.7(17)	32.1(51)	14.5(23)	13.2(21)	100.0 (159)
50만 원~100만 원 미만	22.4(37)	19.4(32)	29.7(49)	20.0(33)	8.5(14)	100.0 (165)
100만 원~150만 원 미만	33.0(33)	24.0(24)	21.0(21)	17.0(17)	5.0(5)	100.0 (10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29.2(28)	18.8(18)	20.8(20)	26.0(25)	5.2(5)	100.0 (9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7.6(82)	23.9(71)	23.2(69)	19.2(57)	6.1(18)	100.0 (29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30.9(56)	27.1(49)	18.2(33)	22.1(40)	1.7(3)	100.0 (181)
400만 원~500만 원 미만	30.6(44)	27.1(39)	20.1(29)	20.1(29)	2.1(3)	100.0 (14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22.5(32)	34.5(49)	19.7(28)	21.8(31)	1.4(2)	100.0 (142)
600만 원~700만 원 미만	28.1(18)	34.4(22)	14.1(9)	20.3(13)	3.1(2)	100.0 (64)
700만 원 이상	20.8(33)	34.0(54)	23.3(37)	20.1(32)	1.9(3)	100.0 (159)
본인 취업 여부( $\chi^2=17.976^{**}$ )						
취업	28.2(244)	27.2(235)	20.5(177)	20.4(176)	3.7(32)	100.0 (864)
미취업	25.8(166)	21.8(140)	26.3(169)	19.3(124)	6.8(44)	100.0 (643)
배우자 취업 여부( $\chi^2=7.154$ )						
취업	25.0(147)	28.6(168)	21.6(127)	20.8(122)	3.9(23)	100.0 (587)
미취업	30.8(164)	23.1(123)	21.6(115)	19.7(105)	4.7(25)	100.0 (532)
가구 형태( $\chi^2=24.988$ )						
1인 가구	24.9(67)	20.1(54)	29.4(79)	18.2(49)	7.4(20)	100.0 (269)
부부 가구	27.7(163)	24.7(145)	22.1(130)	20.6(121)	4.9(29)	100.0 (588)
자녀와 동거	26.3(146)	27.9(155)	21.1(117)	20.7(115)	4.0(22)	100.0 (555)
자녀/손자녀와 동거	40.5(15)	13.5(5)	16.2(6)	21.6(8)	8.1(3)	100.0 (37)
기타	32.8(19)	27.6(16)	24.1(14)	12.1(7)	3.4(2)	100.0 (58)

주 : p<.05 \*, p<.01 \*\*, p<.001 \*\*\*

## 제4절 소결

### 1. 노인 돌봄에 대한 불안과 향후 겪게 될 어려움

노후에 발생하게 될 돌봄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정도(약 47%)가 불안해하고 있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치매, 중풍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제공해야 할 때 발생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응답자가 돌봄 수요자(돌봄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돌봄(간병)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증가’,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 증가’(29.5%), ‘돌봄(간병)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11.8%)을 향후 발생하게 될 어려움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가 돌봄 제공자인 경우 역시 ‘돌봄(간병)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39.9%), ‘돌봄(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부담 증가’(19.8%), ‘집을 비울 수 없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것’(13.5%)이 향후 발생하게 될 어려움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노인 돌봄 정책 수립 시 무엇보다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정신적, 육체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봄제공자가 돌봄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돌봄 제공자 자조모임 지원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정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제공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 정도에 대해 응답자는 국가가 약 60%를, 개인은 약 40%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 달에 지출 가능한 적절한 간병비로는 약 93만 원이 제시되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이 약 80만 원대임(요양시설의 경우)을 감안

한다면 현재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은지출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향후 40~50대가 노인이 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본인 비용 부담률 조정 사이 중장기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 2.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정책 개편 방향성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인지(잘 안다+조금 안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4%에 불과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수요자인 65세 이상 노인층의 장기요양보험 인지도가 41.8%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정책 이해도가 다른 소득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돌봄 사각지대 개선과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관련 정보 전달을 강화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약 60.8%가 노후 돌봄 상황에 대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돌봄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 증가는 물론 일·가정(돌봄)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노후 돌봄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탐색해 두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54.1%가 향후 돌봄이 필요할 때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 시 젊은 연령층은 전문적인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고연령층은 요양시설 입소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아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또는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우선순위(돌봄인력의 질 향상 또는 입소비용 경감) 또는 정

책 개편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풍이나 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정들고 익숙한 자택(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 또한 66.1%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능이 퇴화되거나 장애가 발생해도 자택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5 장

제 언

제1절 미세먼지와 삶의 질

제2절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

제3절 노인 돌봄





## 제1절 미세먼지와 삶의 질

### 1. 미세먼지와 아동

#### 가. 아동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

2017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4개의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범 부처 간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관계부처 합동, 2017). 현재까지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폐지 및 친환경차 보급 등 여러 실적을 이루어 왔지만(문화체육관광부, n.d.),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 특히 본 조사에서 사회로부터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자녀를 둔 부모는 미세먼지가 아동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아동의 건강과 야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활동을 권장하는 것을 국민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n.d.). 환경부는 장시간 실외 활동 자제,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씻어 먹

기, 창문 닫기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의 건강 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환경부, n.d.). 또한 교육부는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검토 등을 학부모 안내물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9). 그러나 이러한 조치 사항들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실외 활동을 줄여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줄어든 실외 활동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아동의 실외 활동은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실외 활동이 제한될 경우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석진 외, 2019, 재인용). 따라서 실외 활동 제한, 실내 활동 권고로 발생하는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 감소를 보충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우석진 외, 2019, p. 144). 본 조사에서도 아동의 실내 놀이 및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었다. 미세먼지 감소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므로, 미세먼지로부터의 아동 보호와 발달 지원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실내 놀이 및 체육 활동 공간 확보와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중·단기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 휴업 등의 조치보다 양질의 실내 스포츠·놀이·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여 아동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우석진 외, 2019).

## 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배려

폭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는 저소득층, 아동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추장민·공성용·백승아, 2010; Kousky,

2016; Oppenheimer & Anttila-Hughes,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미세먼지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부모 가구이거나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이 낮을 경우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의 부모는 물론 자녀인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경제 차원의 거시적 관점의 노력과 함께 이들을 위한 세밀한 정책과 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경보 알림 등의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및 교육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마스크,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등 미세먼지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 환기 제한 등과 같이 주의가 필요한 대처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교육부, 2019),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공간별로 환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좋다고 학자들은 권고하는데(신동천, 2019),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가운데 취약계층의 인지도는 더 낮을 수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경우, 이들의 취약성을 더 높일 수 있다.

## 2. 미세먼지와 노인

미세먼지와 노인의 삶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 방식 등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는 도시 지역, 남성 노인, 전기 노인, 그리고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이나 후기 노인,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관심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환경이 건강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통한 미세먼지(대기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의 미세먼지 정보 수집 경로는 TV나 라디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는 노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나 황사 등의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등)나 읍면동사무소 직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노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황사/미세먼지 마스크가 67.5%로 가장 높지만, 나머지 제품 사용률은 20%대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사용률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이나 관련 제품을 사기 위한 경제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이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건강상의 문제(특히 호흡기 질환)가 있는 노인 가구, 고령 노인 가구, 빈곤 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나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

### 1. 결혼 및 출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미혼과 기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로 집중되며, 그중 여성이 결혼제도와 그 안의 생활에서 평등하지 않은 점을 더 경험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출산을 안 하는 이유에는 결혼을 안 하는 이유보다 가치관 변화가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는 주거 불안정이 크게 작용하기도 해서,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지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그간 정부 차원에서 많은 투자와 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결혼을 하는 데 마련해야 하는 주거 비용과 아이를 낳고 나서 기르는 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여전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결과에서 엿볼 수 있다. 결혼제도에서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어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결혼이나 출산을 해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노동 시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족생활과 개인의 삶이 병행 가능하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꾸준히 없애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 자녀 양육 및 돌봄

### 가.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 목표 제고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 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미혼과 기혼 모두에서 낮게 조사되었다. 당초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의 확대는 저출산과 같은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 정책의 목표를 여성 경제활동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부담 감소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의 양육 지원 정책이 목표하는 바는 이와 같은 것들이었으나 점차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아동기의 적절한 돌봄은 아동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아동수당의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해당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복지 추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나. 초등 시기 양육 및 돌봄 지원 확대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기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은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의 양육

및 돌봄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기 중심의 양육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국내의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은 무상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영유아기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일부 시간지원제도(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등)의 경우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비용 지원 등 관련 제도 대부분이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등 시기의 양육 및 돌봄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초등 시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다. 자녀 양육 및 돌봄 관련 성평등 제고

자녀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성평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에서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오는 등 자녀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이나 가정 내 불평등에 대한 인식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아 남녀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의 경제활동 상황에 따른 자녀 양육 및 돌봄 책임에 대한 조사 결과 부부의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육아는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는 등 매우 합리적인 응답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녀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평등 의식은 매우 높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과 돌봄과 관련한 가정 내의 성평등은 매우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 수준에서 성평등 인식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 기업 내 남성의 육아 문화 정착 등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남성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노인 돌봄

### 1. 노후 돌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강화

노후에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돌봄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노후에 발생하게 될 돌봄 상황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60.8%의 응답자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음에도 응답자의 약 43%는 장기요양보험을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돌봄 불안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

따라서 노후 돌봄에 대한 불안감 완화를 위해 먼저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 정책과 이용 방법에 관한 인지도 제고(이해 강화)가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돌봄 상황 발생 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으로 언급된 경제적 부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가족돌봄제공자 돌봄 휴가 지원, 가족돌봄제공자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돌봄, 부모 돌봄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피로감이 증가하고, 이는 노인 학대 혹은 동반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김원경, 2014;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 완화 지원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가족 돌봄제공자 지원 확대와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인 돌봄 정책 개편 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돌봄 상황이 발생하면 노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하고 돌봄제공자인 가족은 사회와 고립되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돌봄제공자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은 물론 돌봄 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 치매로 인한 심리 행동 증상에 대한 이해 지원, 가족 돌봄자 휴가 지원 등을 통해 돌봄 상황 시 발생할 부담과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은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도 그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다(이윤경 외, 2017).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중요한데 젊은 연령일수록 요양시설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 강화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임정미, 2018)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3. 저소득층 돌봄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

저소득층의 경우 돌봄이 필요할 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특히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시설에 들어갈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자택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 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용 부담의 어려움과 조합되어 저소득층의 장기요양보험 이용률과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돌봄에 대한 이용률 향상(접근성 강화)을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 (2017).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 교육부 (2019). 대기오염대응 매뉴얼.
- 김원경(2014).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219-246.
- 문화체육관광부 (n.d.). 미세먼지종합대책. <http://www.korea.kr/speical/policyCurationView.do?newId=148864591#L4>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 (2019). <http://nes.joins.com/article/23403043>
- 신동천 (2019). <http://sciencetimes.co.kr/?news=미세먼지>
- 우석진,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이상정, 정익중 (2019). 미세먼지가 가정외보호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35(3), 129-151.
- 이윤경 외(2017). 제 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정미(2018). 개호보험에서 케어직원이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271-301.
- 추장민, 공성용, 백승아(2010).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부 (n.d.). 미세먼지 바로 알기. <http://www.me.go.kr>
- Kousky, C. (2016).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26(1), Princeton University. 73-92.
- Oppenhiener, M, & Anttila-Hughes, J. K. (2016).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The Future of Children*, 26(1), Princeton University. 11-30.



## 부록 1.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 - 미세먼지와 노인의 삶 -

### □ 선정질문

선문1. 귀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들어본 적 있음      ② 없음/모름 ☞ 전화중단

선문2.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만 \_\_\_\_\_세 (만 65세 미만 전화중단)

1. 65세 미만 ☞ 전화중단
2. 65~69세
3. 70~75세
4. 75~80세
5. 80세 이상

※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실제나이 - 1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실제나이 - 2

### □ 인구학적 특성

SQ1. 응답자 성별 (면접원 : 묻지 말고 기록)

-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의 주소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조사원체크 SQ2-1)

1. 동 지역
2. 읍/면지역

**(조사원체크 SQ2-2)**

1. 서울/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 충청권(대전, 충청, 세종)
3. 강원권(강원)
4. 호남권(광주, 전라, 제주)
5.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상)

**□ 미세먼지 정보 확인**

**다음은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귀하는 미세먼지 관련한 정보를 평소 얼마나 자주 확인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확인
- ② 일주일에 3-4번
- ③ 일주일에 1-2번
- ④ 한 달에 1-3번
- ⑤ 확인하지 않음 (Q3번으로 이동)

**Q2.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접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Q2-1. 평상시 TV나 라디오의 일기예보를 통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Q2-2. 평상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스마트폰 없음

**Q2-3. 평상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Q2-4. 평상시 당일 날씨나 공기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Q2-5. 평상시 시군구청이나 환경부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통해 확인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 미세먼지 대처(행동)

※ 이제부터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행동의 예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귀하께서는 이같은 행동을 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십시오.

**Q3-1.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귀하는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3-2.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귀하는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Q3-2-1 로**
- ② 그런 편이다 **⇒ Q3-2-1 로**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Q3-3으로**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Q3-3으로**

**Q3-2-1.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귀하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⑧ 미세먼지 전용마스크 모름

**Q3-2-2.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는 주로 누가 구입하십니까?**

- ① 본인(응답자)
- ② 배우자
- ③ 자녀나 손자녀
- ④ 친인척
- ⑤ 이웃/지인
- ⑥ 기타

**Q3-3.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귀하는 창문은 닫고 실내 환기를 자제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3-5.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귀하는 물을 자주 마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3-6.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귀하는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3-7.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귀하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3-8. 귀 댁에 공기청정기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귀하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⑧ 비해당 (공기청정기 없음)

**Q3-9. 귀 댁에 자가용이 있으신가요?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귀하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⑧ 비해당 (자가용 없음)



**Q4. 다음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상의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으신 적 있습니까? (중복응답)**

- |                      |   |
|----------------------|---|
| ① 기관지염,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 | ②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 ③ 알레르기성 비염           | ④ 두통  |
| ⑤ 심혈관 질환(협심증, 뇌졸중)   | ⑥ 피부 질환   |
| ⑦ 기타 질환              | ⑧ 경험한 적 없음  <b>Q5로</b> |

**Q4-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5. 다음은 미세먼지를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복 응답)**

- |               |                  |
|---------------|------------------|
| ① 황사/미세먼지 마스크 | ② 실내용(차량용) 공기청정기 |
| ③ 손소독제/손세정제   | ④ 미세먼지 전용세탁용품    |
| ⑤ 공기정화 식물(화초) | ⑥ 기타             |
| ⑦ 사용한 적 없음    |                  |

**Q6. 미세먼지, 황사 등이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큰 불편을 느낀다  
② 어느 정도 불편을 느낀다  
③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Q7. 미세먼지, 황사 등이 어르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②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③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8. 미세먼지, 황사 등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매우 자주 그렇다 | ② 종종 그렇다      |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런 적이 없다 |

※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S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이상

**SQ4. 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혼자 살고 있음(노인 독거)  
②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음(노인부부가구)  
③ 자녀가 같이 살고 있음(자녀동거 가구)  
④ 기타

**SQ5. 귀하는 평소에 기관지염이나 폐질환, 만성기침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SQ6.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소득 합산)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⑥ 응답거절(무응답), 잘 모름

## 부록 2.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 - 미세먼지와 아동의 삶 -

### □ 선정질문

선문1. 귀하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전화중단

1\_1.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몇 명이신가요?

\_\_\_\_\_명

선문2. 귀하의 자녀(중 가장 어린 자녀)는 몇 살입니까?

만 \_\_\_\_\_세 (만 13세 이상 전화중단)

※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실제나이 - 1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실제나이 - 2

### □ 인구학적 특성

※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이제부터 질문에는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답변  
해주십시오.

SQ1.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아                      ② 여아

SQ2. 귀하의 현 거주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조사원체크 SQ2-1)

1. 동 지역
2. 읍/면지역

(조사원체크 SQ2-2)

1. 서울/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 충청권(대전, 충청, 세종)
3. 강원권(강원)
4. 호남권(광주, 전라, 제주)
5.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상)

SQ3. 응답자 성별 (※ 면접원이 묻지 않고 기재)

- ① 남자                      ② 여자

□ 미세먼지 정보 확인 및 대처방안의 실행

☞ 다음은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귀하는 미세먼지 관련한 정보를 평소 얼마나 자주 확인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확인                      ② 일주일에 3-4번  
③ 일주일에 1-2번                      ④ 한 달에 1-3번  
⑤ 확인하지 않음 (Q3번으로 이동)

Q2. 평상시 미세먼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십니까?

Q2-1. 평상시 TV나 라디오의 일기예보를 통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2-2. 평상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2-3. 평상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미세먼지 수준을 확인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2-4. 평상시 당일 날씨나 공기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2-5. 평상시 시군구청이나 환경부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통해 확인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3. 이제부터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행동의 예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귀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하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⑧ 비해당
1) 외출 및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외출시 마스크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게 한다					
3) 창문은 닫고 실내 환기를 자제한다					
4)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손과 발, 얼굴을 자주 씻게 한다					
6)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게 한다					
7)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 공기청정기가 없는 경우 ⑧ 비해당					
8)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 자가용이 없는 경우 ⑧ 비해당					

**Q4 귀하의 자녀는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처할 줄 압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의 삶과 미세먼지**

☞ **다음은 미세먼지와 자녀의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Q5. 최근 6개월 동안 미세먼지가 심한 날 귀하의 자녀가 다음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Q5-1. 천식, 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 피부질환, 각-결막염 등 안구 질환 등의 증상**

- ① 경험한 적 있음
- ② 경험한 적 없음 ☞ Q5-3로

**Q5-2. 앞서 말씀드린 호흡기, 피부, 안구질환 등의 건강문제로 인한 병원 진료**

- ① 경험한 적 있음                      ② 경험한 적 없음

**Q5-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원)의 등교/등원, 체육 활동, 소풍/수학 여행, 봉사활동 등 공식적인 야외활동(등교, 등원 포함)에 참여하지 않았다**

- ① 그런 적 있음                      ② 그런 적 없음  
 ⑧ 비해당(공식적 야외활동이 없었거나 자녀가 기관(학교)를 다니지 않음)

**Q5-4. 가족모임, 친구모임, 여가 등 비공식적인 야외활동에 (취소로 인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 ① 그런 적 있음                      ② 그런 적 없음

**Q6. 이제부터는 미세먼지가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를 10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0점, '보통'은 5점으로 해서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Q6-1. 자녀의 신체적 건강**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Q6-2. 자녀의 야외 놀이, 문화·여가 활동**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Q6-3. 자녀의 스트레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Q6-4. 자녀의 삶의 질**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Q7. 귀하께서는 자녀를 위해 공기가 좀 더 좋은 곳으로의 이사를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 ① 자주 생각한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④ 생각해본 적 없다

**Q8. 귀하께서는 자녀를 위해 공기가 좋은 나라로의 이민을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 ① 자주 생각한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④ 생각해본 적 없다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필요한 사항**

**Q9. 이제부터는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지원 정책 몇 가지를 예시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생각했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세요.**

구분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없다
1)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2)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실내 놀이 및 체육활동 공간				
4)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물질적 지원				
5) 발전소나 공장, 경유차 등을 통제하거나 인공강우를 만드는 등 국가적인 공기질 관리				

**Q10. 귀하께서는 자녀를 몇 명 두셨습니까? (현재 태아(임신) 포함, 초등 이상 전 연령 포함)**

\_\_\_\_\_명

**Q11. 귀하께서는 추가로 자녀 출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잘 모르겠다

**Q12. 귀하는 미세먼지가 임신·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SQ4. 귀하의 연령은 몇 세 이십니까?**

만 \_\_\_\_\_세

**SQ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대졸
- ③ 대졸 이상

**SQ6.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소득 합산)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 ⑨ 응답거절(무응답), 잘 모름

**SQ7. 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양부모가구
- ② 한부모가구



### 부록 3.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 관련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ID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 관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미혼 및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출산·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담당자 : 김은경 · 변수정

조사업체 :

2019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결혼·출산·자녀양육 및 돌봄 관련 국민 인식조사

조사대상 : 성인 남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조사규모 : 2000명

### Part A. 결혼·출산 관련

문1. 귀하는 다음 중 최근 청년층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 ②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 ③ 주거가 안정되지 않아서
- ④ 적절한 결혼 상대를 못 만나서
- ⑤ 혼자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
- ⑥ 기타(\_\_\_\_\_)

문2. 귀하는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는 편이다    ③ 많은 편이다    ④ 매우 많다

(문2의 ②, ③, ④ 응답자만)

문2-1. 귀하는 결혼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혼자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지는 것
- ②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
- ③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 ④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 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 ⑥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
- ⑦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
- ⑧ 부모나 주위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 ⑨ 기타(\_\_\_\_\_)

**문3. 귀하는 결혼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는 편이다    ③ 많은 편이다    ④ 매우 많다

(문3의 ②, ③, ④응답자만)

**문3-1. 귀하는 결혼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의 삶이 줄어드는 것
- ② 나의 소득은 가족이 같이 써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 ③ 가족 및 친지 대소사(생일, 명절, 제사, 결혼 등)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은 것
- ④ 부모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늘어나는 것
- ⑤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이 늘어나는 것
- ⑥ 이성과의 만남에 제약이 생기는 것
- ⑦ 기타(\_\_\_\_\_)

**문4. 귀하는 결혼제도가 남녀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 ②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 ③ 남녀모두에게 불평등하다
- ④ 남녀모두에게 평등하다

**문5. 귀하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필요한 편이다
- ④ 반드시 필요하다

(문5의 3,4, 응답자)

**문5-1. 귀하는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 전
- ② 결혼 후 6개월 이내
- ③ 결혼 후 1년 이내
- ④ 결혼 후 3년 이내
- ⑤ 결혼 후 5년 이내
- ⑥ 기간과 상관없이 아이가 생겼을 때

**문6. 귀하는 언제까지가 신혼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 후 6개월 까지
- ② 결혼 후 1년 까지
- ③ 결혼 후 3년 까지
- ④ 결혼 후 5년 까지
- ⑤ 결혼 후 7년 까지
- ⑥ 결혼 후 10년 까지
- ⑦ 기간과 상관없이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문7. 귀하는 언제 임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 전
- ② 결혼 후 6개월 이내
- ③ 결혼 후 1년 이내
- ④ 결혼 후 3년 이내
- ⑤ 결혼 후 5년 이내
- ⑥ 결혼 후 5년 이상

**문8. 귀하는 다음 중 자녀를 낳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 ②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 ③ 아이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 ④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⑤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⑥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
- ⑦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 ⑧ 기타(\_\_\_\_\_)

**문9. 귀하는 장래에 본인 자녀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있다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세요.)**

- ①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란다
- ② 가능한 하지 않기를 바란다
- ③ 가능한 하기를 바란다
- ④ 반드시 하기를 바란다
- ⑤ 자녀의 선택이므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 Part B. 자녀 양육 및 돌봄 관련

**문10.** 귀하는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국가가 나눈다면, 국가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율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가 100%일 때)

① (            ) %

**문11.** 귀하는 국가의 자녀 양육 및 돌봄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 지원
- ②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양육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 ④ 여성들이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문11.** 귀하는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기(미취학)    ② 초등시기    ③ 중등시기    ④ 고등시기
- ⑤ 대학교 이상

**문12.** 귀하는 우리 사회가 자녀 양육 및 돌봄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제약이 없다
- ② 제약이 없는 편이다
- ③ 제약이 있는 편이다
- ④ 매우 제약이 많다

(문12의 ③, ④ 응답자만)

**문13-1.** 귀하는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지원
- ②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 ③ 육아휴직 및 기업내에서 자녀 돌봄 휴가 확대 및 인식 변화
- ④ 가정내에서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남녀 평등인식 확대
- ⑤ 기타(\_\_\_\_\_)

**문14. 귀하는 한국사회의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남녀 평등은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 ②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 ③ 남녀모두에게 불평등하다
- ④ 남녀모두에게 평등하다
- ⑤ 기타(\_\_\_\_\_)

**문15. 귀하는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중 어느 분의 도움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외할머니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외할아버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친할머니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친할아버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누가 도움을 주든지 관계없다

**문16. 귀하는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남편만 경제활동) 가구의 경우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은 주로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주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③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해야 한다

**문17. 귀하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부인만 경제활동) 가구의 경우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은 주로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주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③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해야 한다

**문18. 귀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은 주로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주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③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해야 한다

## Part C. 응답자 일반 사항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	만_____세
3. 학력	① 중졸 이하 ④ 대학교 졸	② 고졸 이하 ⑤ 대학원 이상	③ 대학 재학
4.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및 사별
5. 취업유무	본인		배우자 (기혼인 경우만)
	① 취업      ② 비취업	① 취업      ② 비취업	
6. 자녀수	① 미취학 ( )명 ③ 중학생 ( )명 ⑤ 대학생 이상 ( )명	② 초등아동 ( )명 ④ 고등학생 ( )명 ⑥ 없음	
7. 월평균 가구소득	① 2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⑤ 500~6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② 200~3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⑥ 600~700만원 미만	

\*\*\*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4. 노후돌봄 관련 국민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후돌봄(간병)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담당자 : 김은정 · 변수정

조사업체 :

2019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의 3) 응답자만]

**11.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간병)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2)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 3) 전문적인 돌봄(간병)을 받을 수 있어서
- 4) 긴급상황 발생 시 안심할 수 있어서
- 5)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간병) 서비스가 부족해서
- 6) 기타(무엇: \_\_\_\_\_ )

[9의 3) 응답자만]

**12. 요양시설 선택 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문인력 배치
- 2)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 여부
- 3) 휴식시설과 편의시설 마련 여부
- 4) 위생과 청결
- 5) 저렴한 비용
- 6) 편리한 교통
- 7) 기타( \_\_\_\_\_ )

**13. 다음문항에서 귀하에게 가장 해당되는 곳의 번호를 말씀해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들과 매일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자녀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 나를 보살펴줄 가족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의지할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온종일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 2.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 및 정책요구

14.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 전혀 모른다
- 2) 모른다
- 3) 보통이다
- 4) 조금 안다
- 5) 잘 안다

15. 귀하나 귀하의 가족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16. 향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재가서비스 확충 (방문요양, 방문간호, 식사배달서비스 등)
- 2) 시설서비스 질 향상
- 3)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 확충
- 4)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5) 기타(무엇: \_\_\_\_\_)

## 3. 일반사항

1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여성
- 2) 남성

18. 귀하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_\_\_\_\_ 세

19. 귀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 1) 미혼
- 2) 기혼
- 3) 이혼 및 사별

20. 귀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 1) 유
- 2) 무

